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15. 12

laborstat.moel.go.kr

CONTENTS



01

전국총괄

011

I. 인구	012
1. 인구 동향	012
2. 지역별 인구 동향	019
3.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3
II. 경제	026
1. 경제 동향	026
2. 산업 동향	028
3. 소비 및 물가 동향	031
4. 수출·입 동향	032
5. 사업체 동향	032
6. 분배 동향	036
7. 지역별 경제 동향	038
III. 고용	041
1. 노동력 현황	041
2. 취업자 및 고용률	044
3. 실업자 현황	056
4. 비경제활동인구	060
IV. 노동이동	065
1. 입·이직 현황	065
2. 구인·구직 현황	069
3. 미충원 인원	074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78
V. 직업훈련	082
1. 직업훈련 현황	082
2. 수료자 취업 현황	087
VI. 근로조건	090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090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095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105

VII. 노사협력	107
1. 노동조합	107
2. 노사분규	111
3. 노사분쟁 사건	114
4. 근로감독 현황	121

VIII. 산업안전	125
1. 산업재해	125
2. 경제적 손실	128
3. 산재보험	130

02

지역별 현황

135

I. 서울특별시	136
1. 인구	136
2. 인구 이동	138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140
4. 지역 고용 현황	145
5. 구인·구직 현황	154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56
7. 직업훈련	160
8. 근로조건	166
9. 노동조합	169
10. 산업안전	171



II. 부산광역시	172
1. 인구	172
2. 인구 이동	174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176
4. 지역 고용 현황	181
5. 구인·구직 현황	190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92
7. 직업훈련	196
8. 근로조건	202
9. 노동조합	205
10. 산업안전	207
III. 대구광역시	208
1. 인구	208
2. 인구 이동	210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212
4. 지역 고용 현황	217
5. 구인·구직 현황	226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228
7. 직업훈련	232
8. 근로조건	238
9. 노동조합	241
10. 산업안전	243
IV. 인천광역시	244
1. 인구	244
2. 인구 이동	246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248
4. 지역 고용 현황	253
5. 구인·구직 현황	262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264
7. 직업훈련	268
8. 근로조건	274
9. 노동조합	277
10. 산업안전	279
V. 광주광역시	280
1. 인구	280
2. 인구 이동	282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284
4. 지역 고용 현황	289
5. 구인·구직 현황	298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300
7. 직업훈련	304
8. 근로조건	310
9. 노동조합	313
10. 산업안전	315
VI. 대전광역시	316
1. 인구	316
2. 인구 이동	318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320
4. 지역 고용 현황	325
5. 구인·구직 현황	334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336
7. 직업훈련	340
8. 근로조건	346
9. 노동조합	349
10. 산업안전	351
VII. 울산광역시	352
1. 인구	352
2. 인구 이동	354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356

CONTENTS



4. 지역 고용 현황	361	X. 충청북도	460
5. 구인·구직 현황	370	1. 인구	460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372	2. 인구 이동	462
7. 직업훈련	376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464
8. 근로조건	382	4. 지역 고용 현황	469
9. 노동조합	385	5. 구인·구직 현황	478
10. 산업안전	387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480
VIII. 경기도	388	7. 직업훈련	484
1. 인구	388	8. 근로조건	490
2. 인구 이동	390	9. 노동조합	493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392	10. 산업안전	495
4. 지역 고용 현황	397	XI. 충청남도	496
5. 구인·구직 현황	406	1. 인구	496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408	2. 인구 이동	498
7. 직업훈련	412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500
8. 근로조건	418	4. 지역 고용 현황	505
9. 노동조합	421	5. 구인·구직 현황	514
10. 산업안전	423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516
IX. 강원도	424	7. 직업훈련	520
1. 인구	424	8. 근로조건	526
2. 인구 이동	426	9. 노동조합	529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428	10. 산업안전	531
4. 지역 고용 현황	433	XII. 전라북도	532
5. 구인·구직 현황	442	1. 인구	532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444	2. 인구 이동	534
7. 직업훈련	448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536
8. 근로조건	454	4. 지역 고용 현황	541
9. 노동조합	457	5. 구인·구직 현황	550
10. 산업안전	459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552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8. 근로조건	562
9. 노동조합	565
10. 산업안전	567
XIII. 전라남도	568
1. 인구	568
2. 인구 이동	570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572
4. 지역 고용 현황	577
5. 구인·구직 현황	586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588
7. 직업훈련	592
8. 근로조건	598
9. 노동조합	601
10. 산업안전	603
XIV. 경상북도	604
1. 인구	604
2. 인구 이동	606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608
4. 지역 고용 현황	613
5. 구인·구직 현황	622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624
7. 직업훈련	628
8. 근로조건	634
9. 노동조합	637
10. 산업안전	639
XV. 경상남도	640
1. 인구	640
2. 인구 이동	642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644
4. 지역 고용 현황	649
5. 구인·구직 현황	658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660
7. 직업훈련	664
8. 근로조건	670
9. 노동조합	673
10. 산업안전	675
XVI. 제주도	676
1. 인구	676
2. 인구 이동	678
3.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680
4. 지역 고용 현황	685
5. 구인·구직 현황	694
6.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696
7. 직업훈련	700
8. 근로조건	706
9. 노동조합	709
10. 산업안전	711
03] 업종별 현황	713
I. 조선업	714
1. 사업체 동향	714
2. 산업활동 동향	717
3. 노동수요	720
4. 임금 및 근로시간	722
5. 산업안전	723
II. 자동차 산업	724

CONTENTS



1. 사업체 동향	724
2. 산업활동 동향	727
3. 노동수요	730
4. 임금 및 근로시간	732
5. 산업안전	733
III. 철강 산업	734
1. 사업체 동향	734
2. 산업활동 동향	737
3. 노동수요	740
4. 임금 및 근로시간	742
5. 산업안전	743
IV. 기계 산업	744
1. 사업체 동향	744
2. 산업활동 동향	747
3. 노동수요	753
4. 임금 및 근로시간	755
5. 산업안전	757
V. 전기전자 산업	758
1. 사업체 동향	758
2. 산업활동 동향	761
3. 노동수요	767
4. 임금 및 근로시간	769
5. 산업안전	771
VI. 반도체 산업	772
1. 사업체 동향	772
2. 산업활동 동향	775
3. 노동수요	779
4. 임금 및 근로시간	781
5. 산업안전	783
VII. 디스플레이 산업	784
1. 사업체 동향	784
2. 산업활동 동향	787
3. 노동수요	791
4. 임금 및 근로시간	793
5. 산업안전	795
VIII. 섬유 산업	796
1. 사업체 동향	796
2. 산업활동 동향	799
3. 노동수요	805
4. 임금 및 근로시간	807
5. 산업안전	809
04 대상별 현황	811
I. 청년	812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812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814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823
4. 청년 근로조건	826
5. 취업 활동 과정	832
6. 청년 대출자의 전공계열별 현황	834
7. 일자리 이동	836
II. 여성	839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839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841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849
4. 여성 근로조건	852
III. 장년	856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856
2.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858
3.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866
4. 장년 근로조건	869
5. 정년 현황	875
6. 장년층 동태 분석	880
IV. 비정규직	883
1. 비정규직 취업 현황	883
2. 근로조건	892
3. 고용형태 변화	902

부록	고용노동관련 OECD 국제비교 통계	907
1. 인구 및 고용	909	
2. 근로조건	923	
3. 분배지표	934	
4. 기타 고용노동 지표	942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및 행정자료와 그 외의 정부부처 및 기타 국내·외의 통계작성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출처를 표시하였음
2. 통계자료는 반올림된 수치로 작성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제3편 업종별 현황」의 8개 주요 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을 선별하였으며, 수출 통계는 「한국 재화 및 서비스 분류 항목표 및 연계표」를, 산재부분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따랐음
4.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자료의 출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록된 내용의 통계는 고용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i.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http://mdss.kostat.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음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15년 인구추계)

50,617 천명



성 별	남성 25,303천명(50.0%)	여성 25,315천명(50.0%)	
연령 별	14세 이하 7,040천명 (13.9%)	15~64세 36,953천명 (73.0%)	65세 이상 6,624천명 (13.1%)
지 역 별	수도권* 25,144천명(49.7%)	비수도권 25,473천명(50.3%)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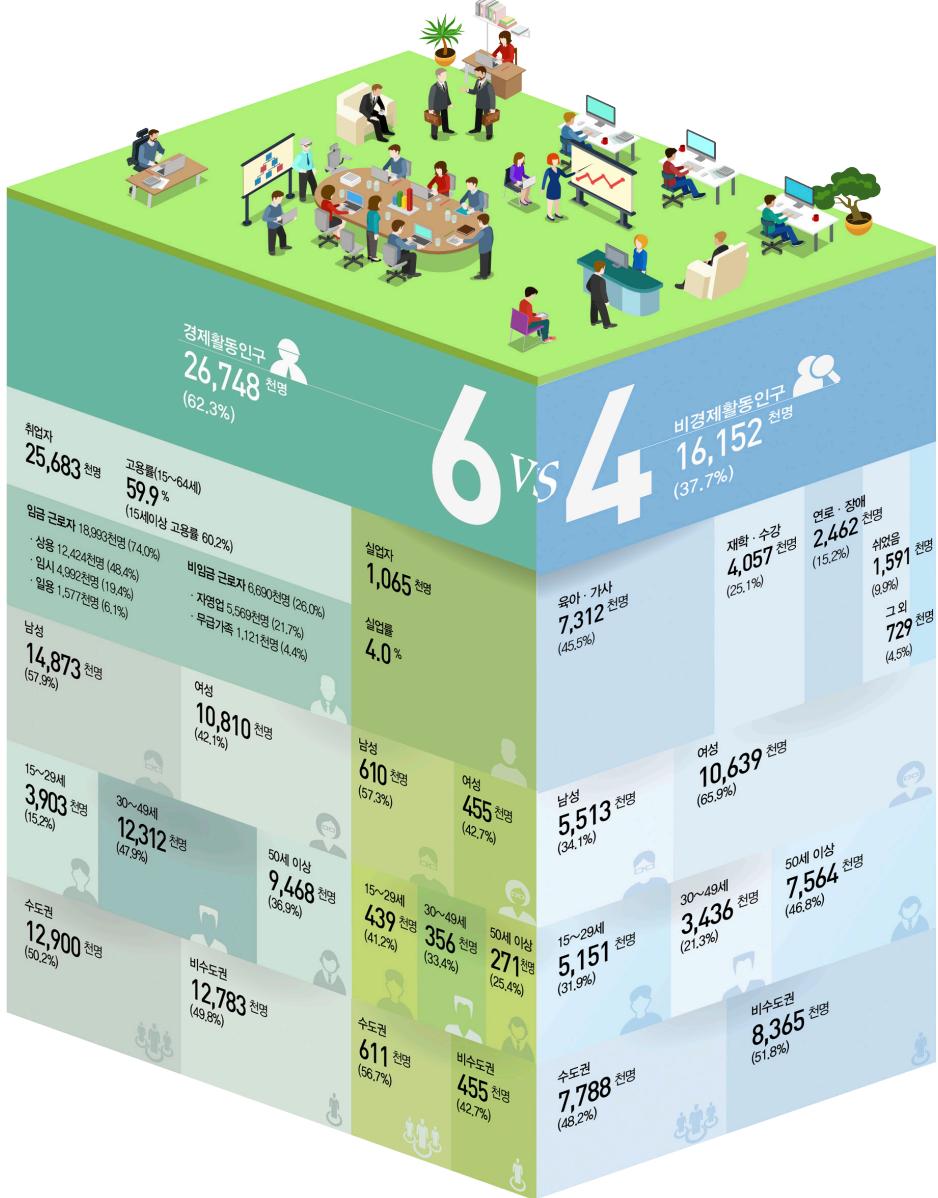
15세이상 생산기능인구('15년 인구추계)

43,577 천명



성 별	남성 21,664천명(49.7%)	여성 21,914천명(50.3%)	
연령 별	15~29세 9,980천명 (22.9%)	30~49세 16,119천명 (37.0%)	50세 이상 17,478천명 (40.1%)
지 역 별	수도권* 21,630천명(49.6%)	비수도권 21,948천명(50.4%)	

● 경제활동상태('15년 상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경제지표('14년 OECD)



14,104억 US\$ (1,485조원)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9위 (1위 미국, 174,190억 US\$)
• 경제성장률(실질GDP 증가율) '14년 3.3%

27,971US\$ (2,945만원)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3위 (1위 룩셈부르크, 111,407US\$)

61.7% ('13년 OECD)
• OECD 회원국 26개국(발표) 중 19위 (1위 슬로베니아, 79.3%)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4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2.6%

62,093US\$ ('13년, PPP기준)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2위 (1위 미국, 98,856US\$)
• 시간당노동생산성 29.9US\$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5위)

5.8점(10점 만점)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 (공동 1위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7.5점)

● 주요 노동시장지표

사업체수 3,677천개(13년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 수 도 권 1,736천개(47.2%)
- 비수도권 1,941천개(52.8%)

산업별

- 광공업 372천개(10.1%)
- 건설업 117천개(3.2%)
- 서비스업 3,185천개(86.6%)
- 농림어업 3천개(0.1%)

임금근로자수 18,993천명(15년 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 수 도 권 10,084천명(53.1%)
- 비수도권 8,910천명(46.9%)

산업별

- 광공업 3,955천명(20.8%)
- 건설업 1,372천명(7.2%)
- 서비스업 13,529천명(71.2%)
- 농림어업 136천명(0.7%)

임금 및 근로시간(15년 상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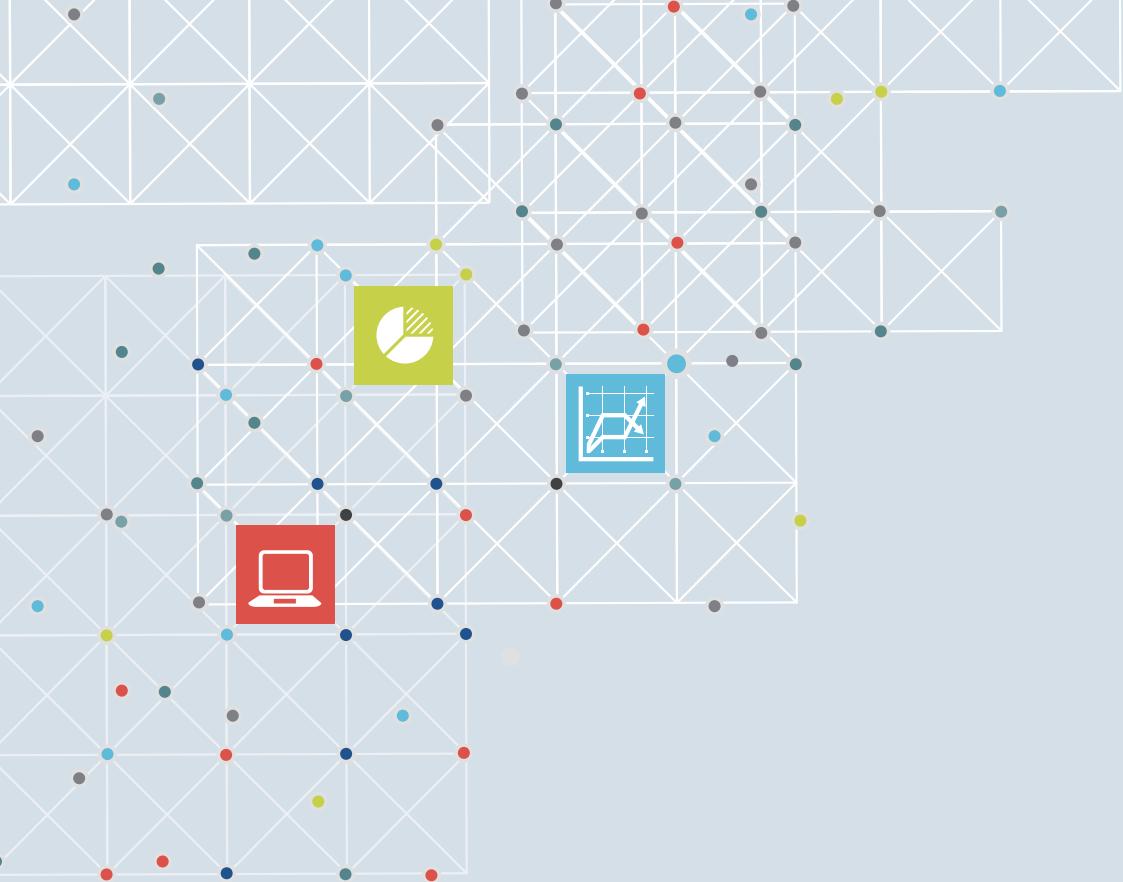
- 월평균명목임금 324만원(월평균실질임금 296만원)
- 월평균근로시간 171시간(연간근로시간 2,047시간)

노동조합(13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노동조합수 5,305개
- 노동조합원수 1,847,586명
- 노동조합조직률 10.3%

산업안전(14년 산업재해현황)

- 산업재해자수 90,909명
- 산업재해천인율 0.53%
- 사망만인율 1.08‰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01

전국총괄

The nation as a whole

- I. 인구
- II. 경제
- III. 고용
- IV. 노동이동
- V. 직업훈련
- VI. 근로조건
- VII. 노사협력
- VIII. 산업안전

I.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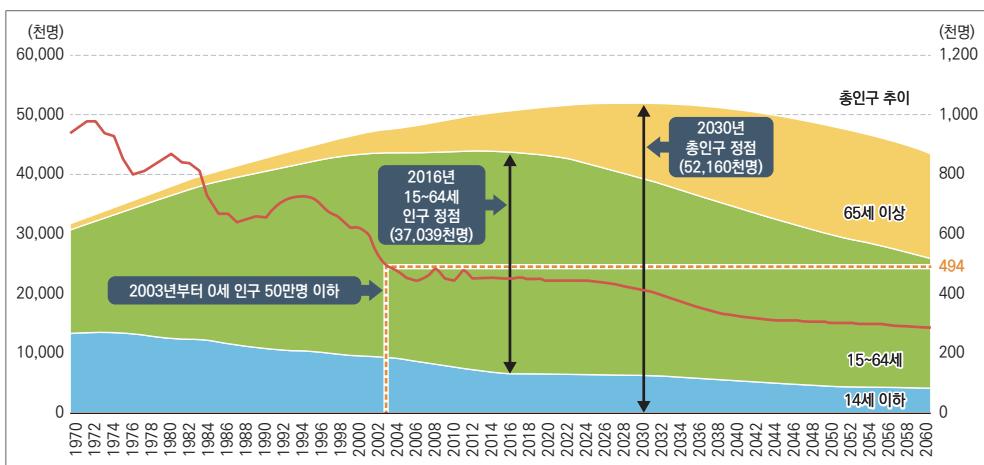
1. 인구 동향

● 총 인구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062만명으로 1970년과 비교하여 57.0%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2030년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4세 이하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0세의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줄었다. 15~64세의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연령별 인구추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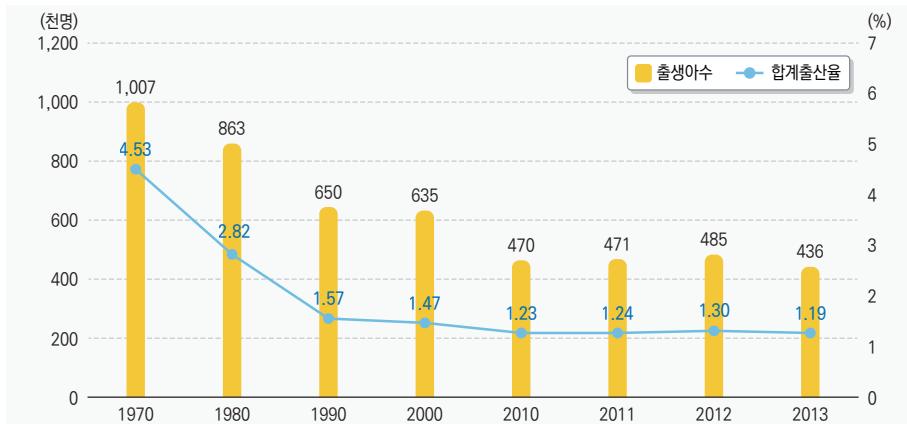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	32,240 (100.0)	38,124 (118.2)	42,870 (133.0)	47,008 (145.8)	49,410 (153.3)	50,617 (157.0)	51,435 (159.5)	52,159 (161.8)	51,092 (158.5)	48,121 (149.3)	43,960 (136.3)
0세	950	870	656	622	449	454	451	417	329	307	288
14세 이하	13,709	12,951	10,974	9,911	7,975	7,040	6,788	6,575	5,718	4,783	4,47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95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452	6,624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 '70년 대비 비율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14년 출생아수는 435천명으로 1970년(1,007천명)의 43.2% 수준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로 1970년(4.53%)보다 3.34%p 낮아졌음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생아수	1,007	863	650	635	470	471	485	436	435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23	1.24	1.30	1.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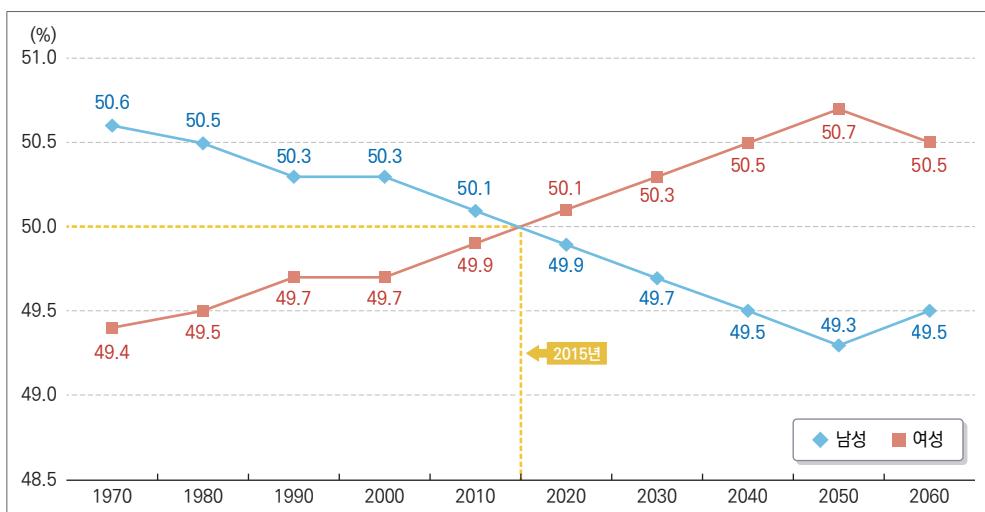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성별 연령별 인구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남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반대로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5년 현재 남성과 여성은 50:50이나 향후 여성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별 인구〉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전연령	남성	50.6	50.5	50.3	50.3	50.1	50.0	49.9	49.7	49.5	49.3	49.5
	여성	49.4	49.5	49.7	49.7	49.9	50.0	50.1	50.3	50.5	50.7	50.5
14세 이하	남성	51.9	51.8	52.0	52.9	52.0	51.7	51.5	51.4	51.3	51.3	51.3
	여성	48.1	48.2	48.0	47.1	48.0	48.3	48.5	48.6	48.7	48.7	48.7
15~64세	남성	50.1	50.5	50.6	50.8	51.1	51.1	51.1	51.2	51.5	51.8	51.6
	여성	49.9	49.5	49.4	49.2	48.9	48.9	48.9	48.8	48.5	48.2	48.4
65세 이상	남성	41.2	37.4	37.4	38.3	40.8	41.8	42.7	44.8	45.2	45.3	46.5
	여성	58.8	62.6	62.6	61.7	59.2	58.2	57.3	55.2	54.8	54.7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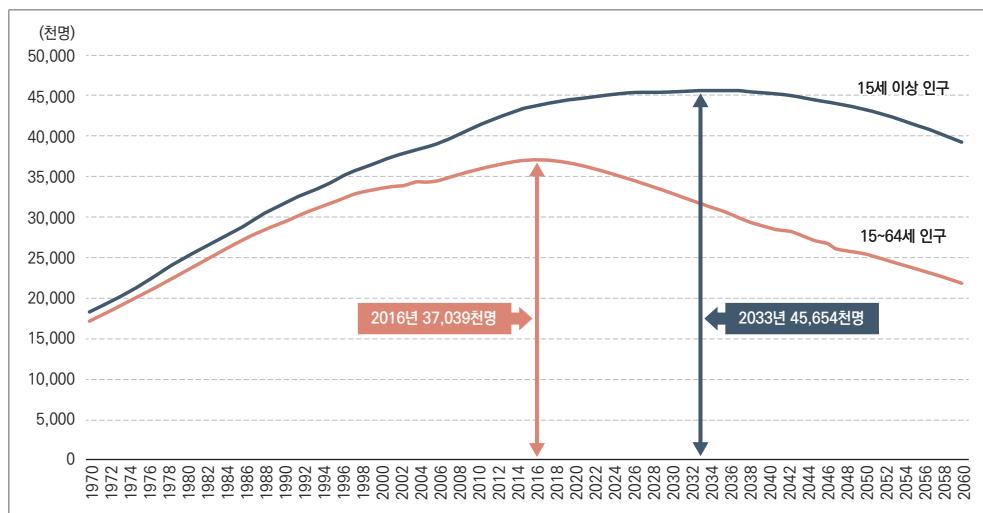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1. 인구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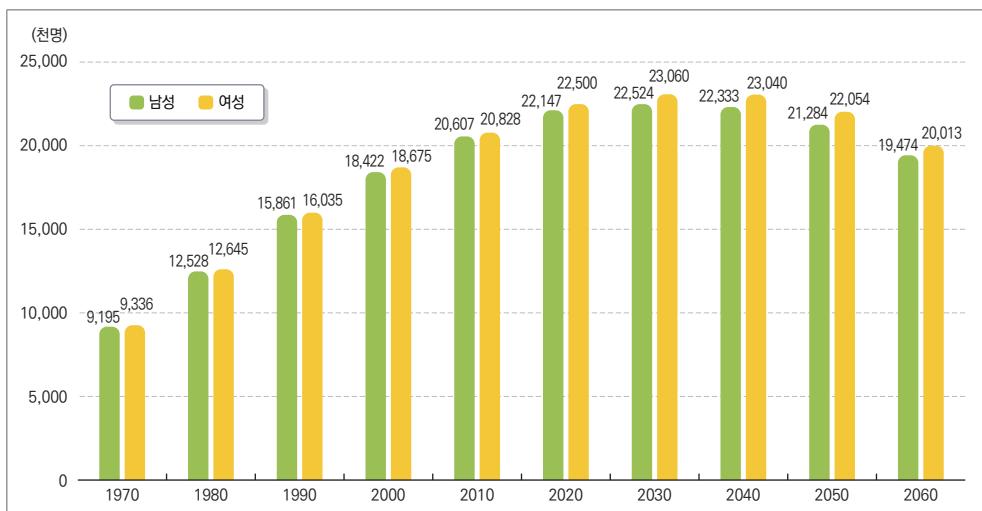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15세 이상	18,531	25,173	31,896	37,097	41,435	43,577	44,647	45,585	45,374	43,338	39,487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95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또는 15~64세 인구로 정의됨, 여기서는 15세 이상 인구로 봄

● 성별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성별로는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가 남성의 생산가능인구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64세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 생산가능인구〉



(단위: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15세 이상	합계	18,531	25,173	31,896	37,097	41,435	43,577	44,647	45,585	45,374	43,338	39,487
	남성	9,195	12,528	15,861	18,422	20,607	21,664	22,147	22,524	22,333	21,284	19,474
	여성	9,336	12,645	16,035	18,675	20,828	21,914	22,500	23,060	23,040	22,054	20,013
15~64세	합계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95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380	18,897	18,696	16,843	14,873	13,134	11,277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03	18,057	17,867	16,051	13,999	12,213	10,588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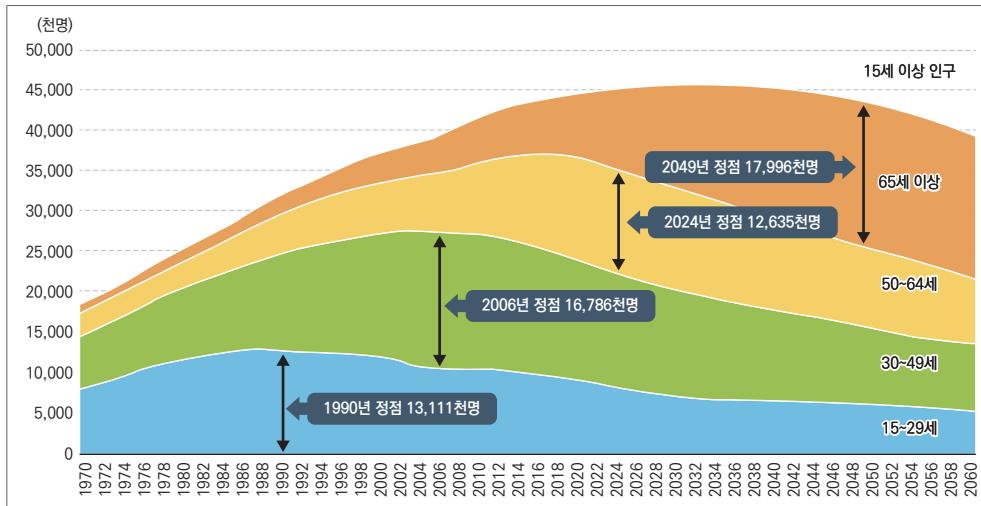
1. 인구

● 연령별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장년층은 2024년을 정점으로, 노년층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연령별 비중을 보면, 청년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년층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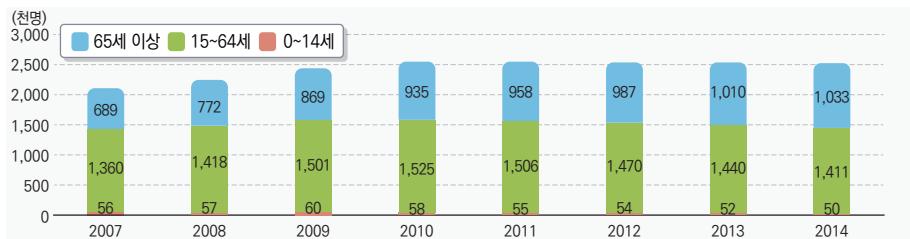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15세 이상	18,531 (100.0)	25,173 (100.0)	31,896 (100.0)	37,097 (100.0)	41,435 (100.0)	43,577 (100.0)	44,647 (100.0)	45,585 (100.0)	45,374 (100.0)	43,338 (100.0)	39,487 (100.0)
청년 (15~29세)	8,174 (44.1)	11,686 (46.4)	13,111 (41.1)	12,050 (32.5)	10,469 (25.3)	9,980 (22.9)	9,256 (20.7)	7,022 (15.4)	6,697 (14.8)	6,199 (14.3)	5,124 (13.0)
중년 (30~49세)	6,843 (36.9)	8,739 (34.7)	11,821 (37.1)	15,463 (41.7)	16,636 (40.1)	16,119 (37.0)	15,073 (33.8)	13,716 (30.1)	11,457 (25.3)	9,225 (21.3)	8,775 (22.2)
장년 (50~64세)	2,522 (13.6)	3,292 (13.1)	4,768 (14.9)	6,189 (16.7)	8,878 (21.4)	10,854 (24.9)	12,234 (27.4)	12,156 (26.7)	10,718 (23.6)	9,923 (22.9)	7,966 (20.2)
노년 (65세이상)	991 (5.3)	1,456 (5.8)	2,195 (6.9)	3,395 (9.2)	5,452 (13.2)	6,624 (15.2)	8,084 (18.1)	12,691 (27.8)	16,501 (36.4)	17,991 (41.5)	17,622 (44.6)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 장애인수

2014년 등록장애인수는 2,494천명이며, 0~14세는 50천명, 15~64세는 1,411천명, 65세 이상은 1,033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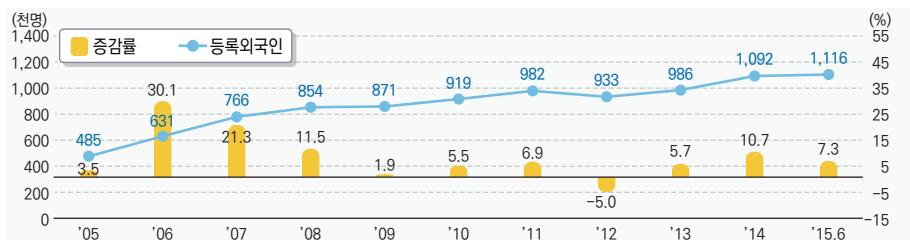
(단위: 천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연령	2,105	2,247	2,430	2,518	2,519	2,511	2,502	2,494
0 ~ 14세	56	57	60	58	55	54	52	50
15 ~ 64세	1,360	1,418	1,501	1,525	1,506	1,470	1,440	1,411
65세이상	689	772	869	935	958	987	1,010	1,033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 외국인수

2015.6월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전체 1,757천명이며, 이 중 등록외국인은 1,116천명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단위: 천명,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등록외국인	469	485	631	766	854	871	919	982	933	986	1,092	1,116
증감률												

자료 | 법무부 외국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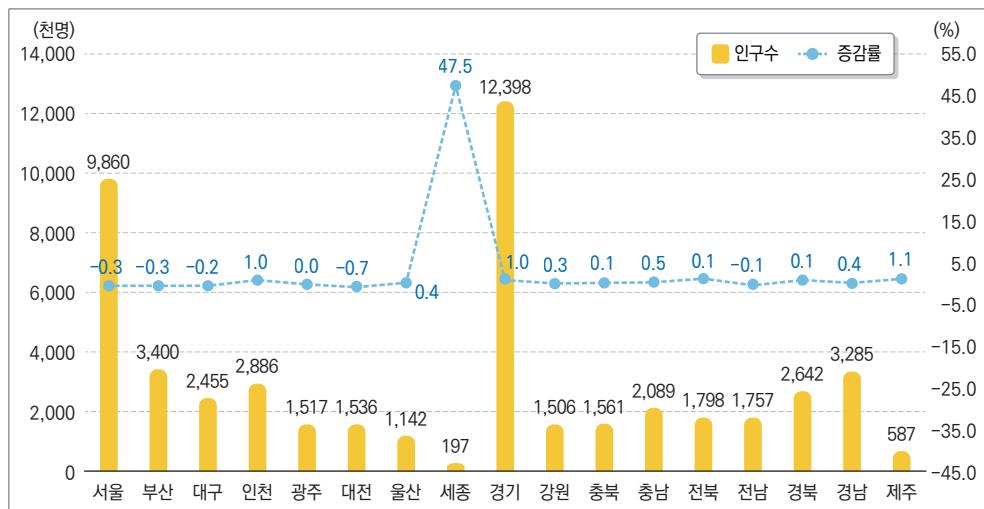
2. 지역별 인구 동향

● 시 · 도별 인구

'15년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해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증가율은 신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높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은 감소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1% 내외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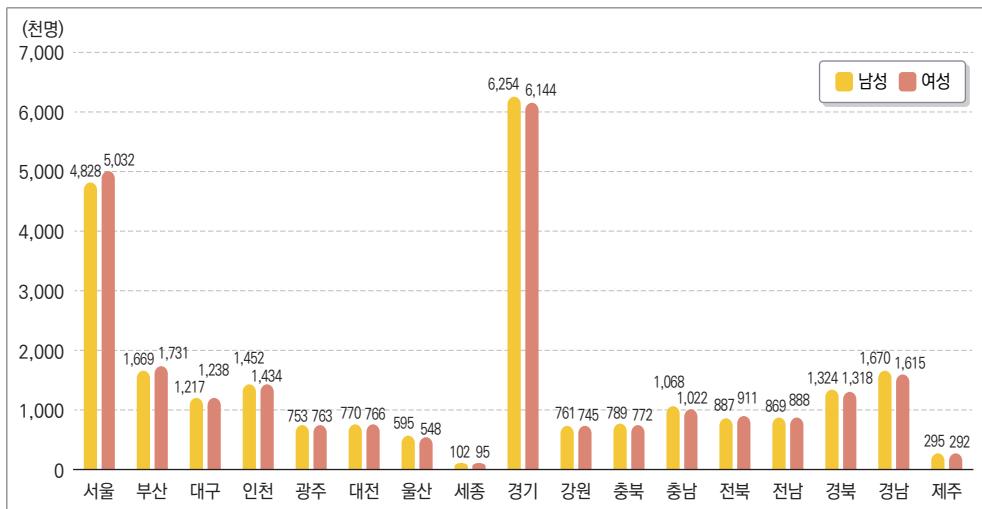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0,617 (100.0) [0.4]	9,860 (19.5) [-0.3]	3,400 (6.7) [-0.3]	2,455 (4.8) [-0.2]	2,886 (5.7) [1.0]	1,517 (3.0) [0.0]	1,536 (3.0) [-0.7]	1,142 (2.3) [0.4]	197 (0.4) [47.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398 (24.5) [1.0]	1,506 (3.0) [0.3]	1,561 (3.1) [0.1]	2,089 (4.1) [0.5]	1,798 (3.6) [0.1]	1,757 (3.5) [-0.1]	2,642 (5.2) [0.1]	3,285 (6.5) [0.4]	587 (1.2) [1.1]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2015년 기준), () 전체인구 대비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 시·도별 성별 인구

'15년 시·도별 성별 비중은 대부분 50:50에서 1%p 이내의 수준으로 차이가 거의 없지만 대체로 특별·광역시는 여성 비중이 높고, 도지역은 남성 비중이 높다. 다만, 울산·세종은 남성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성별 인구〉



(단위: 천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50,617	9,860	3,400	2,455	2,886	1,517	1,536	1,142	197
남성	25,303 (50.0)	4,828 (49.0)	1,669 (49.1)	1,217 (49.6)	1,452 (50.3)	753 (49.7)	770 (50.1)	595 (52.1)	102 (51.9)
여성	25,315 (50.0)	5,032 (51.0)	1,731 (50.9)	1,238 (50.4)	1,434 (49.7)	763 (50.3)	766 (49.9)	548 (47.9)	95 (48.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2,398	1,506	1,561	2,089	1,798	1,757	2,642	3,285	587
남성	6,254 (50.4)	761 (50.5)	789 (50.5)	1,068 (51.1)	887 (49.3)	869 (49.4)	1,324 (50.1)	1,670 (50.8)	295 (50.2)
여성	6,144 (49.6)	745 (49.5)	772 (49.5)	1,022 (48.9)	911 (50.7)	888 (50.6)	1,318 (49.9)	1,615 (49.2)	292 (49.8)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2015년 기준), () 전체인구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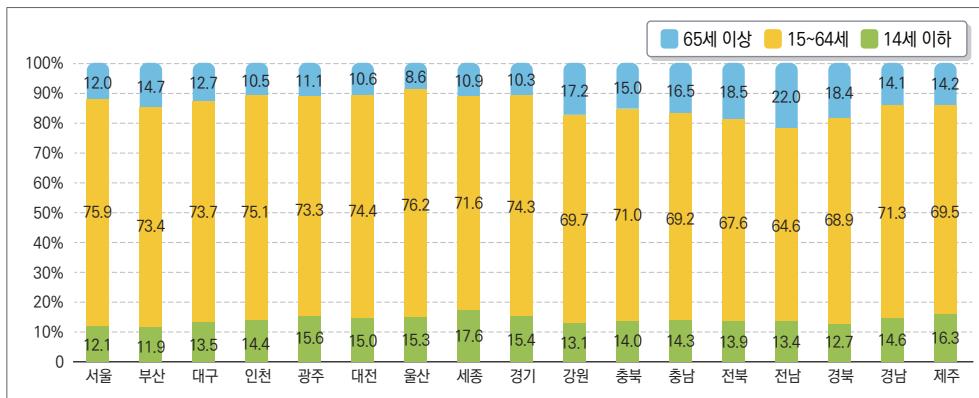
● 시 · 도별 연령별 인구

'15년 시·도별 14세 이하의 비중은 대체로 12~15% 수준인데, 세종·제주는 좀 더 높은 모습이다. 세종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5~64세 인구의 비중은 특·광역시가 73~75%, 도지역은 64~71% 수준인데, 예외적으로 세종은 낮고(71.6%), 경기도는 높다(74.3%). 반면 65세 이상의 비중은 도지역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

한편, 울산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높고(76.2%), 65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낮은(8.6%) 반면, 전남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낮고(64.6%),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높은(22.0%) 특징을 보인다.

〈시·도별 연령별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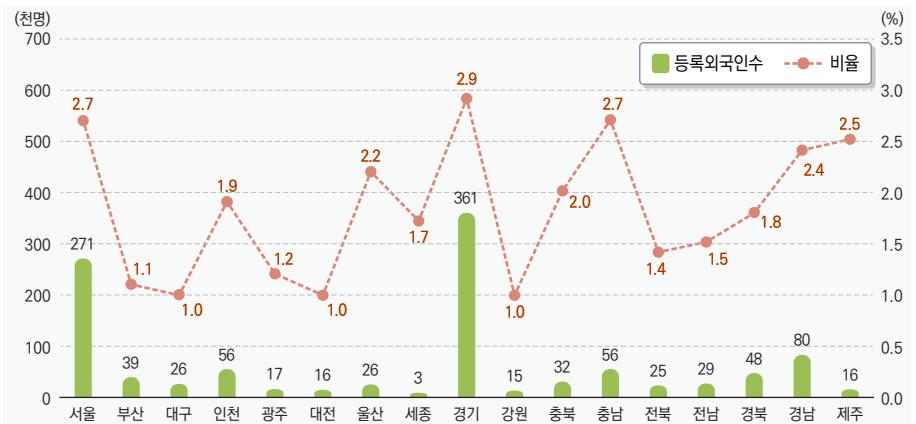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 연령	50,617	9,860	3,400	2,455	2,886	1,517	1,536	1,142	197
14세 이하	7,040 (13.9)	1,190 (12.1)	403 (11.9)	332 (13.5)	415 (14.4)	236 (15.6)	231 (15.0)	174 (15.3)	35 (17.6)
15~64세	36,953 (73.0)	7,483 (73.4)	2,496 (73.7)	1,810 (73.7)	2,168 (75.1)	1,112 (73.3)	1,143 (74.4)	870 (76.2)	141 (71.6)
65세 이상	6,624 (13.1)	1,187 (12.0)	501 (14.7)	312 (12.7)	303 (10.5)	169 (11.1)	163 (10.6)	98 (8.6)	21 (10.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연령	12,398	1,506	1,561	2,089	1,798	1,757	2,642	3,285	587
14세 이하	1,910 (15.4)	197 (13.1)	219 (14.0)	300 (14.3)	250 (13.9)	235 (13.4)	337 (12.7)	481 (14.6)	96 (16.3)
15~64세	9,208 (74.3)	1,050 (69.7)	1,108 (71.0)	1,445 (69.2)	1,216 (67.6)	1,135 (64.6)	1,819 (68.9)	2,341 (71.3)	408 (69.5)
65세 이상	1,280 (10.3)	259 (17.2)	234 (15.0)	345 (16.5)	332 (18.5)	387 (22.0)	486 (18.4)	463 (14.1)	84 (14.2)

자료 1 통계청 인구추계(2015년 기준), () 전체인구대비 비중

▶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2015.6월말 등록외국인은 경기(361천명), 서울(271천명), 경남(80천명) 순으로 많으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경기(2.9%), 충남(2.7%), 서울(2.7%) 순으로 높음



	(단위: 천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민 등록 인구	51,431	10,079	3,517	2,491	2,914	1,477	1,526	1,170	185	12,432	1,547	1,582	2,068	1,870	1,903	2,698	3,357	615
등록 외국인 수	1,116	271	39	26	56	17	16	26	3	361	15	32	56	25	29	48	80	16
(비율)	(2.2)	(2.7)	(1.1)	(1.0)	(1.9)	(1.2)	(1.0)	(2.2)	(1.7)	(2.9)	(1.0)	(2.0)	(2.7)	(1.4)	(1.5)	(1.8)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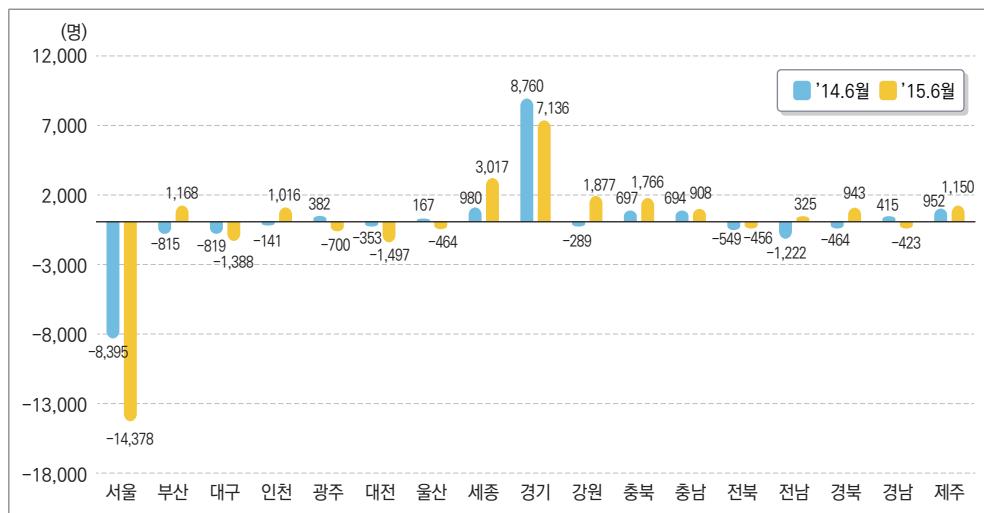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15.6월말), 법무부 외국인 통계('15.6월말)

3.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 시 · 도 간 인구 순이동

'15.6월 인구 이동은 서울의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가장 많으며, 경기 지역은 순전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간 인구 이동〉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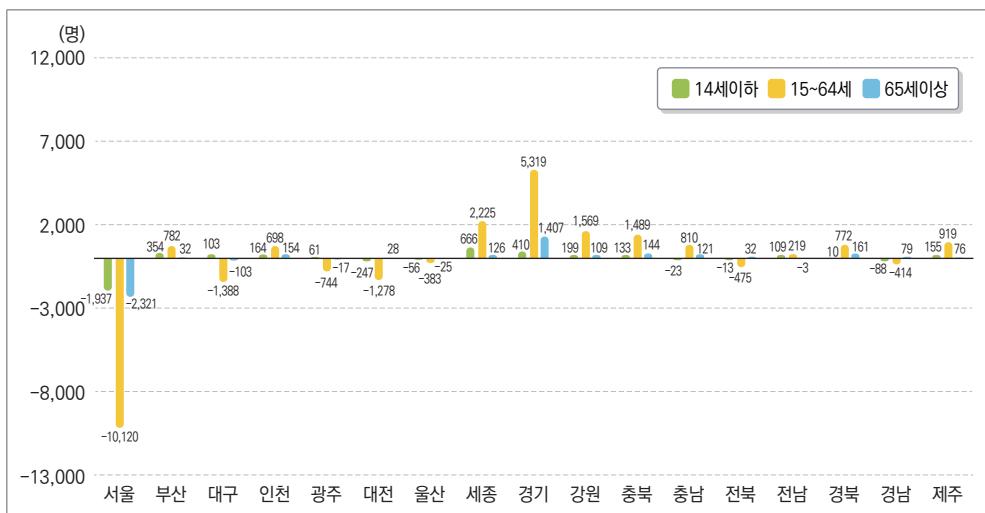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6월	-8,395	-815	-819	-141	382	-353	167	980
'15.6월	-14,378	1,168	-1,388	1,016	-700	-1,497	-464	3,0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760	-289	697	694	-549	-1,222	-464	415	952
7,136	1,877	1,766	908	-456	325	943	-423	1,150

자료 |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 시·도 간 연령별 인구 순이동

'15.6월 서울 지역은 전 연령층에서 전출이 많은데, 특히 15~64세의 전출이 많았고, 순전입이 많았던 경기 지역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전입이 많았으나, 특히 15~64세의 전입이 많았다.

〈시·도별 연령별 인구 이동〉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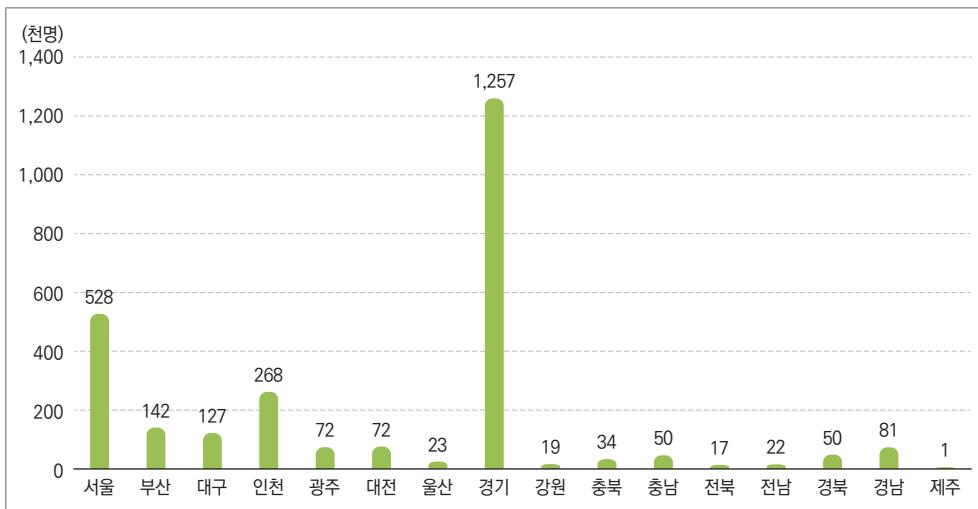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세이하	-1,937	354	103	164	61	-247	-56	666
15~64세	-10,120	782	-1,388	698	-744	-1,278	-383	2,225
65세이상	-2,321	32	-103	154	-17	28	-25	12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0	199	133	-23	-13	109	10	-88	155
5,319	1,569	1,489	810	-475	219	772	-414	919
1,407	109	144	121	32	-3	161	79	76

자료 |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15.6월)

● 시 · 도 간 통근자

‘10년 기준 현 거주지에서 다른 시·도 지역으로 통근하는 통근자 수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 서울, 인천 순으로 전체 통근자의 74.3%가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이 하나의 노동시장 권역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시·도 별 통근자〉



(단위: 천명, %)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763	528	142	127	268	72	72	23	-
(100.0)	(19.1)	(5.1)	(4.6)	(9.7)	(2.6)	(2.6)	(0.8)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57	19	34	50	17	22	50	81	1
(45.5)	(0.7)	(1.2)	(1.8)	(0.6)	(0.8)	(1.8)	(2.9)	(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 전체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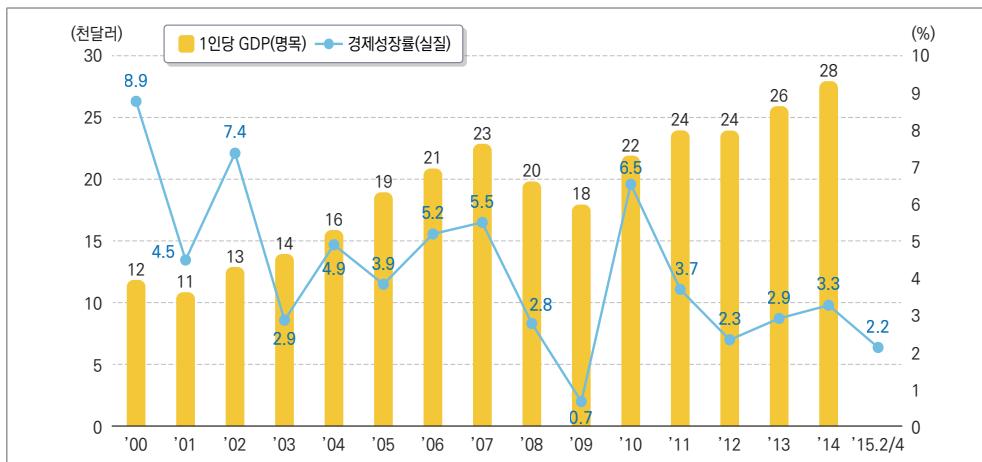
II. 경제

1.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년(3.3%)보다 1.1%p 감소했으며, '14년 1인당 GDP는 28천 달러로 '13년 26천달러보다 2천달러 증가했다.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4
경제성장률(실질)	8.9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2
1인당 GDP (명목)	12	11	13	14	16	19	21	23	20	18	22	24	24	26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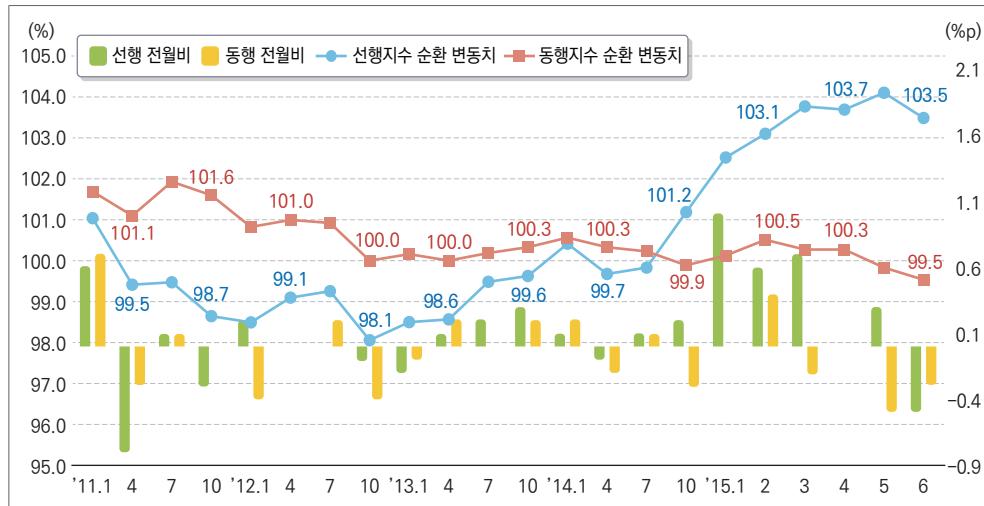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인당 GDP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꾸준히 100보다 높게 나타나 호경기 신호로 해석되어지나, 최근에는 100보다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최근 들어 급속히 상승하여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단위: 불경기 < 100 < 호경기.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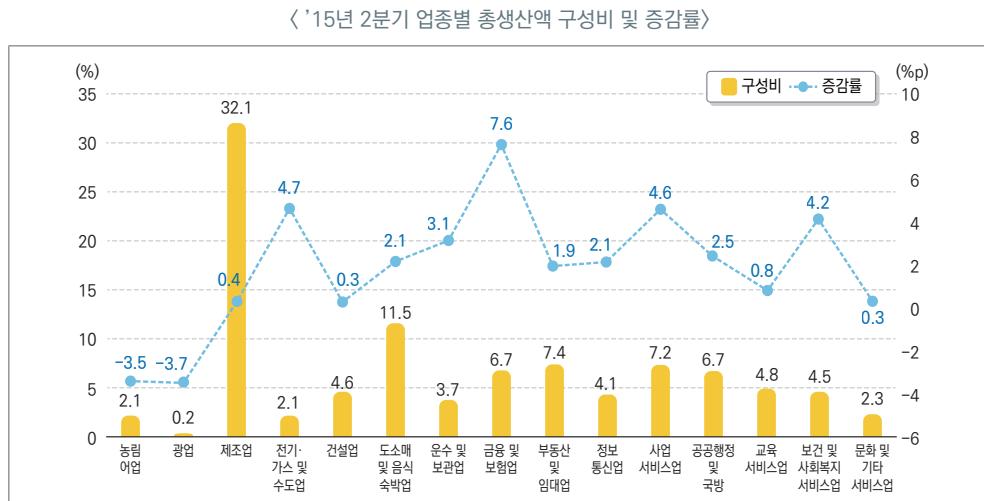
시점	'11.1	4	7	10	'12.1	4	7	10	'13.1	4	7	10	'14.1	4	7	10	'15.1	2	3	4	5	6
선행	101.0	99.5	99.5	98.7	98.5	99.1	99.3	98.1	98.5	98.6	99.5	99.6	100.4	99.7	99.8	101.2	102.5	103.1	103.8	103.7	104.0	103.5
동행	101.7	101.1	101.9	101.6	100.8	101.0	100.9	100.0	100.2	100.0	100.2	100.3	100.5	100.3	100.2	99.9	100.1	100.5	100.3	100.3	99.8	99.5
선행 전월비	0.6	-0.8	0.1	-0.3	0.2	0.0	0.0	-0.1	-0.2	0.1	0.2	0.3	0.1	-0.1	0.1	0.2	1.0	0.6	0.7	-0.1	0.3	-0.5
동행 전월비	0.7	-0.3	0.1	0.0	-0.4	0.0	0.2	-0.4	-0.1	0.2	0.0	0.2	0.2	-0.2	0.1	-0.3	0.0	0.4	-0.2	0.0	-0.5	-0.3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2. 산업 동향

● 업종별 총생산액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제조업 생산액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증감률로 보면 서비스업의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조,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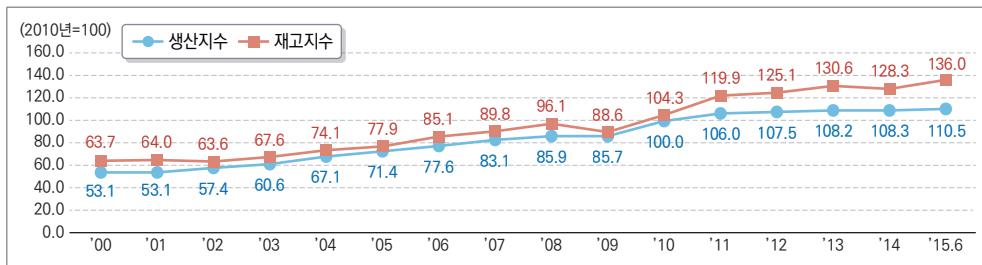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생산액	7.0	0.7	106.2	7.0	15.1	38.1	12.3
구성비	2.1	0.2	32.1	2.1	4.6	11.5	3.7
증감률	-3.5	-3.7	0.4	4.7	0.3	2.1	3.1
금융 및 보험업	22.3	24.5	13.6	23.7	22.2	15.9	14.8
	6.7	7.4	4.1	7.2	6.7	4.8	4.5
	7.6	1.9	2.1	4.6	2.5	0.8	4.2
							0.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15년 2분기)

● 제조업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제조업의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의 증감률은 '09년 금융위기 시의 기저효과로 인하여 '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다가 '15.6월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단위: 2010년=100,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제조업 생산지수	53.1 (17.2)	53.1 (0.2)	57.4 (8.1)	60.6 (5.6)	67.1 (10.8)	71.4 (6.3)	77.6 (8.7)	83.1 (7.1)	85.9 (3.3)	85.7 (-0.2)	100.0 (16.7)	106.0 (6.0)	107.5 (1.4)	108.2 (0.7)	108.3 (0.1)	110.5 (1.5)
제조업 재고지수	63.7 (12.8)	64.0 (0.4)	63.6 (-0.6)	67.6 (6.3)	74.1 (9.6)	77.9 (5.2)	85.1 (9.3)	89.8 (5.6)	96.1 (7.0)	88.6 (-7.8)	104.3 (17.7)	119.9 (15.0)	125.1 (4.3)	130.6 (4.4)	128.3 (-1.8)	136.0 (5.6)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년대비 증감률

● 제조업 평균가동률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크게 감소한 상태로, 제조업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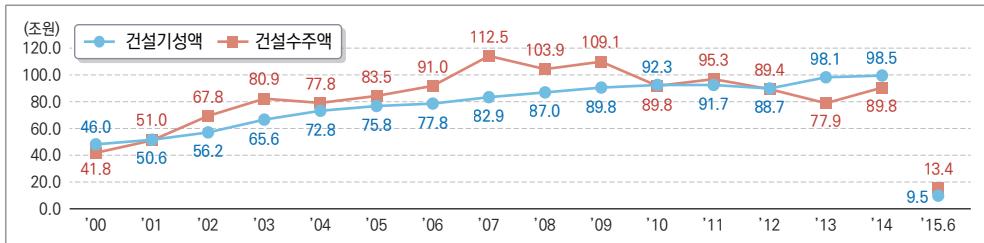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제조업 평균가동률	78.3	74.9	78.0	77.9	79.9	79.3	80.0	80.1	77.6	74.4	80.3	80.5	78.6	76.5	76.1	75.2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건설

건설기성액은 '13년, '14년 모두 증가했으나 '15.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4년에 이어 '15.6월에도 크게 증가하여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건설기성액 및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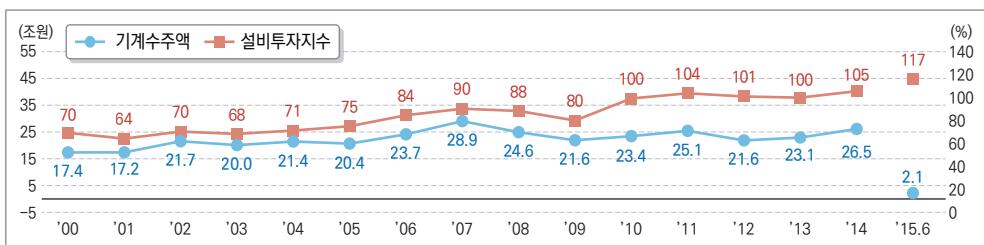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건설기성액	46.0 (-3.1)	50.6 (10.0)	56.2 (11.2)	65.6 (16.6)	72.8 (11.1)	75.8 (4.1)	77.8 (2.6)	82.9 (6.6)	87.0 (4.9)	89.8 (3.2)	92.3 (2.7)	91.7 (-0.6)	88.7 (-3.3)	98.1 (10.6)	98.5 (0.4)	9.5 (-0.2)
건설수주액	41.8 (15.1)	51.0 (22.1)	67.8 (33.0)	80.9 (19.3)	77.8 (-3.9)	83.5 (7.3)	91.0 (9.0)	112.5 (23.6)	103.9 (-7.6)	109.1 (5.0)	89.8 (-17.7)	95.3 (6.1)	89.4 (-6.2)	77.9 (-12.9)	89.8 (15.3)	13.4 (45.5)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년대비 증감률

● 기계

'15.6월 기계수주액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설비투자지수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기계수주액 및 설비투자지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기계 수주액	17.4 (18.4)	17.2 (-1.4)	21.7 (26.4)	20.0 (-7.8)	21.4 (-6.8)	20.4 (-4.5)	23.7 (16.1)	28.9 (21.8)	24.6 (-14.9)	21.6 (-12.0)	23.4 (8.0)	25.1 (7.6)	21.6 (-13.9)	23.1 (6.6)	26.5 (14.8)	2.1 (6.6)
설비 투자지수	70 (29.9)	64 (-8.2)	70 (8.6)	68 (-2.3)	71 (3.7)	75 (5.8)	84 (12.7)	90 (6.9)	88 (-2.3)	80 (-9.6)	100 (25.8)	104 (3.5)	101 (-2.8)	100 (-0.8)	105 (5.2)	11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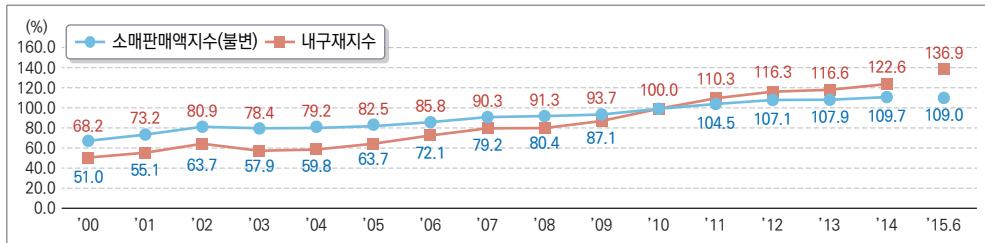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년대비 증감률

3. 소비 및 물가 동향

● 소비

‘15.6월 소매판매액 총지수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내구재지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소비동향〉



(단위: 2010년=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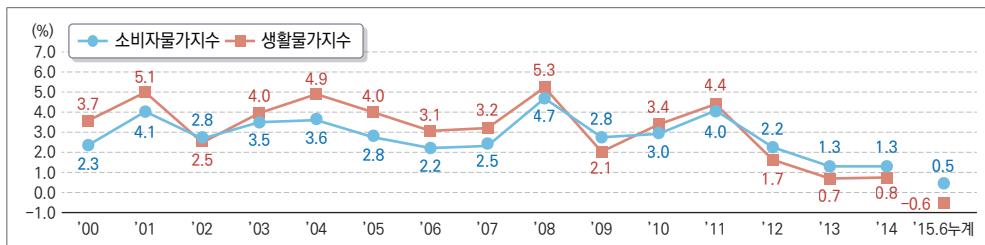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소매판매액지수 (불변)	68.2 (12.9)	73.2 (7.3)	80.9 (10.5)	78.4 (-3.1)	79.2 (1.0)	82.5 (4.2)	85.8 (4.0)	90.3 (5.2)	91.3 (1.1)	93.7 (2.6)	100.0 (6.7)	104.5 (4.5)	107.1 (2.5)	107.9 (0.7)	109.7 (1.7)	109.0 (0.8)
내구재지수	51.0 (25.0)	55.1 (8.0)	63.7 (15.6)	57.9 (-9.1)	59.8 (3.3)	63.7 (6.5)	72.1 (13.2)	79.2 (9.8)	80.4 (1.5)	87.1 (8.3)	100.0 (14.8)	110.3 (10.3)	116.3 (5.4)	116.6 (0.3)	122.6 (5.1)	136.9 (7.4)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년대비 증감률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가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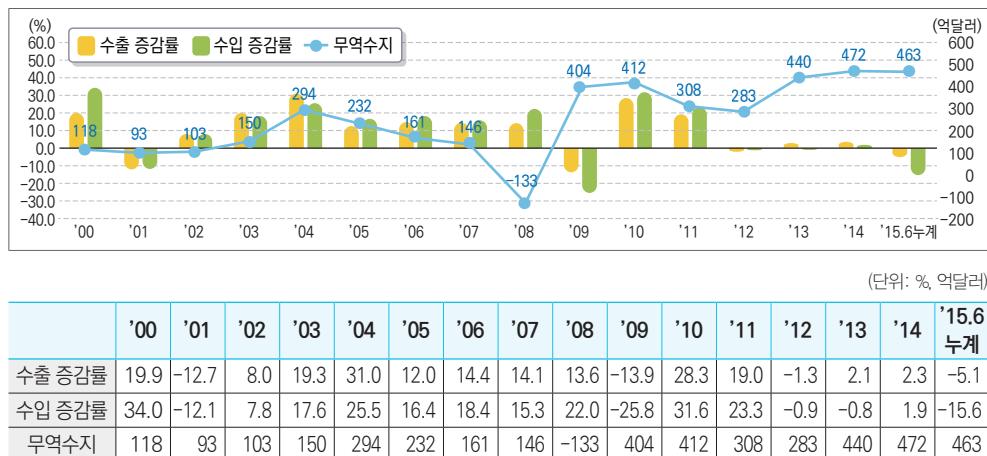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누계
소비자물가지수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1.3	0.5
생활물가지수	3.7	5.1	2.5	4.0	4.9	4.0	3.1	3.2	5.3	2.1	3.4	4.4	1.7	0.7	0.8	-0.6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4. 수출·입 동향

최근 수출액 및 수입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수출 - 수입)는 '15년 상반기 463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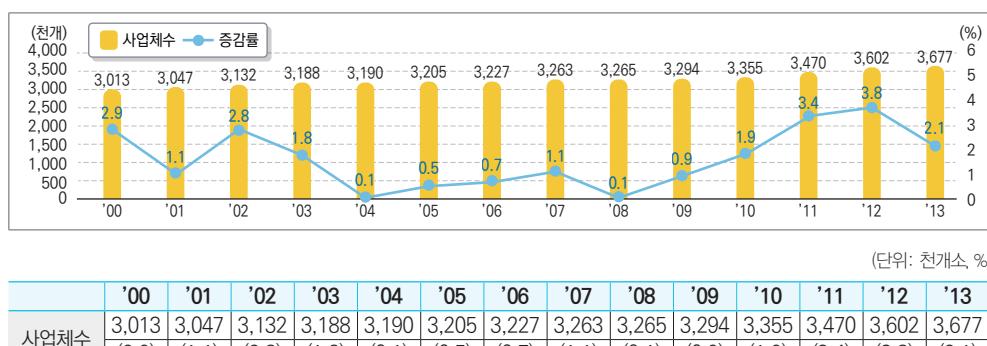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5. 사업체 동향

● 사업체수

'13년 전국의 사업체수는 3,677천개소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08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다가 '13년에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다.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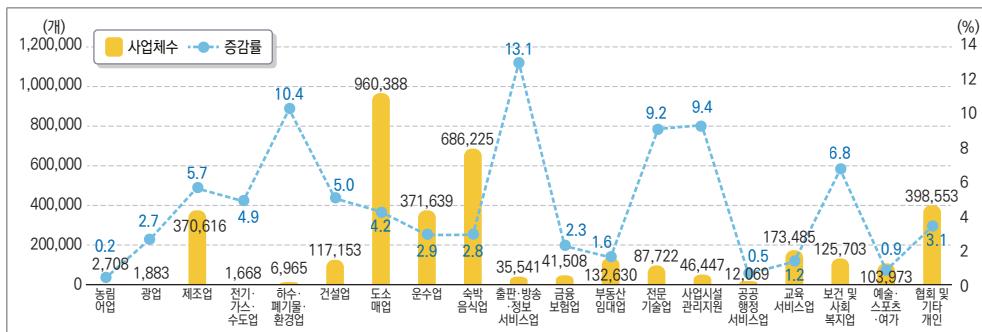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수

'13년 사업체수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6.1%), 숙박음식점업(18.7%),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10.8%), 운수업(10.1%), 제조업(10.1%) 순으로 많으며, 증가율은 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13.1%), 하수·폐기물·환경업(10.4%), 사업시설관리지원업(9.4%) 순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수가 3,673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48개로 전체 사업체의 0.1%이다.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개, %)

	합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전 업종	3,676,876	[100.0, 2.1]	(100.0)	3,673,428	(99.9)
농림어업	2,708	[0.1, 0.2]	(100.0)	2,706	(99.9)
광업	1,883	[0.1, 2.7]	(100.0)	1,878	(99.7)
제조업	370,616	[10.1, 5.7]	(100.0)	369,916	(99.8)
전기·가스·수도업	1,668	[0.0, 4.9]	(100.0)	1,639	(98.3)
하수·폐기물·환경업	6,965	[0.2, 10.4]	(100.0)	6,964	(99.9)
건설업	117,153	[3.2, 5.0]	(100.0)	116,911	(99.8)
도소매업	960,388	[26.1, 4.2]	(100.0)	960,266	(99.9)
운수업	371,639	[10.1, 2.9]	(100.0)	371,502	(99.9)
숙박음식점업	686,225	[18.7, 2.8]	(100.0)	686,185	(99.9)
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35,541	[1.0, 13.1]	(100.0)	35,375	(99.5)
금융보험업	41,508	[1.1, 2.3]	(100.0)	41,367	(99.7)
부동산임대업	132,630	[3.6, 1.6]	(100.0)	132,606	(99.9)
전문기술업	87,722	[2.4, 9.2]	(100.0)	87,433	(99.7)
사업시설지원업	46,447	[1.3, 9.4]	(100.0)	45,880	(98.8)
공공행정서비스업	12,069	[0.3, 0.5]	(100.0)	11,591	(96.0)
교육서비스업	173,485	[4.7, 1.2]	(100.0)	173,238	(99.9)
보건·사회복지업	125,703	[3.4, 6.8]	(100.0)	125,494	(99.8)
예술·스포츠·여가	103,973	[2.8, 0.9]	(100.0)	103,941	(99.9)
협회 및 기타 개인	398,553	[10.8, 3.1]	(100.0)	398,536	(99.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3년), [] 업종별 비중 및 전년대비 증감률, () 업종내 규모별 비중

▶ 중소기업의 기업체 및 종사자 비중

• 통계현황

-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중 99%(대기업 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88%(대기업 12%)를 차지한다고 발표
- 전경련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중 99.9%(대기업 0.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76%(대기업 24%)를 차지한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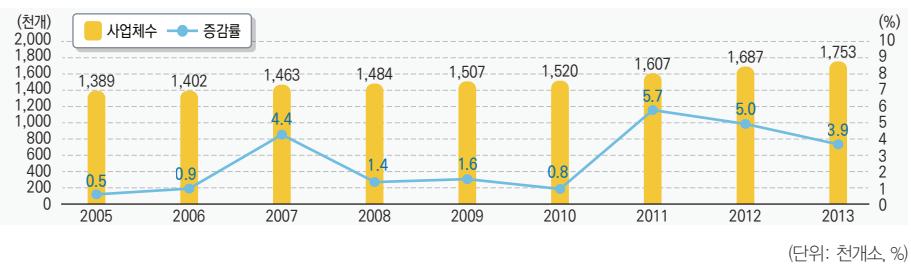
• 산출방법 및 한계점

- 중기중앙회는 “사업장”단위 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업”단위로 묶어 산출하므로, 묶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
 - 전경련이 활용한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장 및 종사자를 이용한 것으로 미신고(미등록)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조사통계보다 약 1,327천명 적음
- * ('13년)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19,173천명, 기업생멸행정통계 종사자수 17,846천명

• 두 통계 모두 한계가 있어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있는 사업체 현황

- ‘13년 임금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3,677천개 중 1,753천개 (47.7%),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영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는 전체의 52.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수	1,389	1,402	1,463	1,484	1,507	1,520	1,607	1,687	1,753
증감률	(0.5)	(0.9)	(4.4)	(1.4)	(1.6)	(0.8)	(5.7)	(5.0)	(3.9)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실태현황

	전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하수· 폐기물· 환경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업
전규모	1,752,503	2,419	1,031	241,670	1,187	5,901	84,677	402,469	38,214	330,809
1~4인	1,107,398	859	442	105,408	365	2,201	39,498	294,445	18,246	250,801
5~9인	379,332	674	231	70,873	194	1,601	24,780	72,795	8,317	63,567
10~29인	193,398	667	277	44,527	186	1,552	15,641	29,120	6,779	14,322
30~99인	57,642	198	73	16,631	341	514	3,684	5,032	3,466	1,923
100~299인	11,827	19	3	3,531	71	32	832	955	1,268	156
300인이상	2,906	2	5	700	30	1	242	122	138	40
	출판· 방송· 정보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기술업	사업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예술·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규모	26,974	37,922	66,818	67,809	35,618	85,109	118,499	41,713	163,664	
1~4인	12,547	8,008	44,603	36,513	18,078	54,473	54,675	32,509	133,727	
5~9인	6,134	10,280	13,522	18,448	6,216	17,363	40,058	6,025	18,254	
10~29인	5,252	13,993	7,438	9,051	5,869	9,339	17,926	2,176	9,283	
30~99인	2,333	5,127	1,092	2,867	3,592	3,260	4,636	672	2,201	
100~299인	560	373	139	645	1,296	464	998	304	181	
300인이상	148	141	24	285	567	210	206	27	18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실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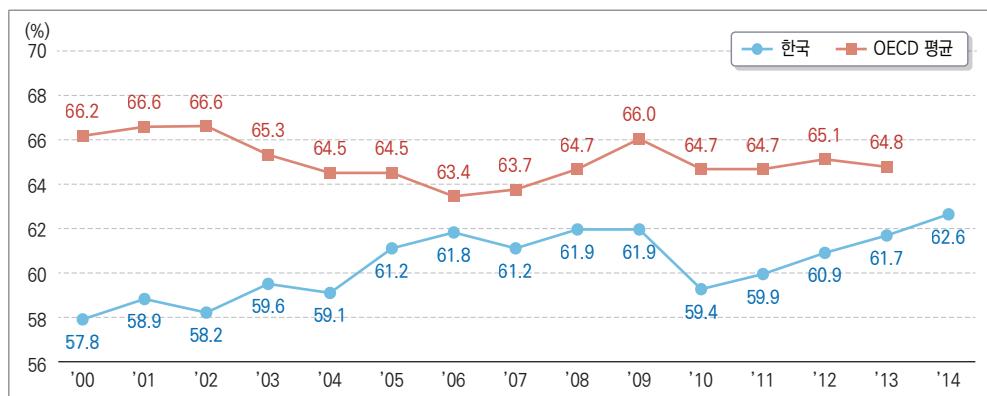
6. 분배 동향

● 노동소득분배율

'14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2.6%로 전년(61.7%)보다 0.9%p 증가했고,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득은 영업잉여로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서 분모에만 포함됨)

-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NI)
- (요소비용국민소득(NI) = 피용자보수 + 총영업잉여 - 국외순수취재산소득 - 고정자본소모)
- 2013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율 27.4%로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음
 - 그리스 36.9%(가장 높음), 독일 11.2%, 영국 14.4%, 미국 6.6%(가장 낮음)
- 2013년 기준 노동소득분배율은 61.7%로 OECD 26개국 중 19번째로 높음
 - 슬로베니아 79.3%(가장 높음), 영국 69.5%, 독일 68.0%, 미국 65.6%, 멕시코 33.9%(가장 낮음)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하여 단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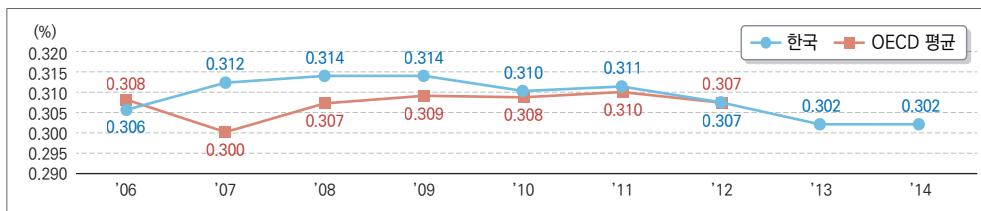
● 지니계수

'14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과 동일하며 '09년(0.314)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기준 지니계수는 0.307로 OECD 32개국 중 19번째로 낮음

- 덴마크 0.249(가장 낮음), 독일 0.289, 영국 0.351, 미국 0.390, 멕시코 0.457(가장 높음)

〈지니계수〉



(단위: 0~1, 0=완전평등)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한국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OECD 평균	0.308	0.300	0.307	0.309	0.308	0.310	0.307	-	-

자료 ¹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처분가능소득),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

●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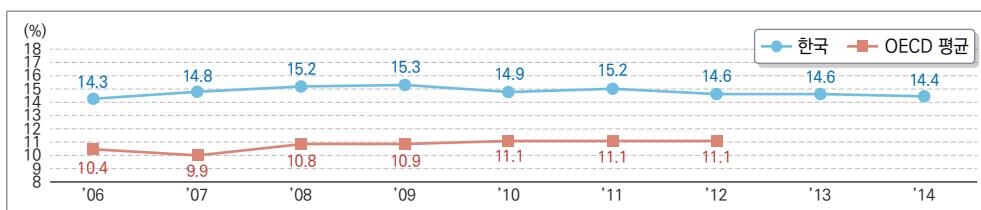
'14년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전년보다 0.2%p 하락하였으며, '09년 이후 소폭 하락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자의 비중

- 2012년 기준 상대적빈곤율은 14.6%로 OECD 34개국 중 6번째로 높음

- 멕시코 18.9%(가장 높음), 미국 17.9%, 영국 10.5%, 독일 8.4%, 체코 5.3%(가장 낮음)

〈상대적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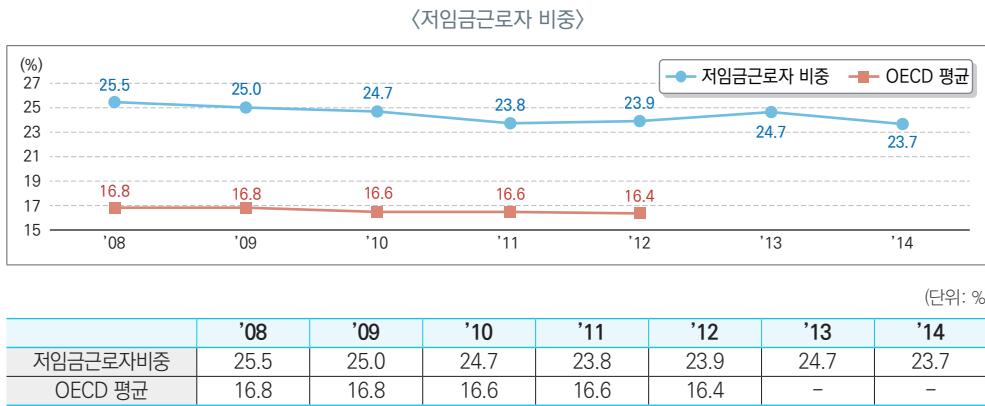
	'06	'07	'08	'09	'10	'11	'12	'13	'14
상대적빈곤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OECD 평균	10.4	9.9	10.8	10.9	11.1	11.1	11.1	-	-

자료 ¹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처분가능소득),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

● 저임금근로자 비중

'14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7%로 전년(24.7%)보다 1.0%p 줄어들었고, 연도별로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자의 비중
- 2012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9%로 OECD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음
 - 미국 25.3%(가장 높음), 영국 20.5%, 독일 18.3%, 벨기에 6.0%(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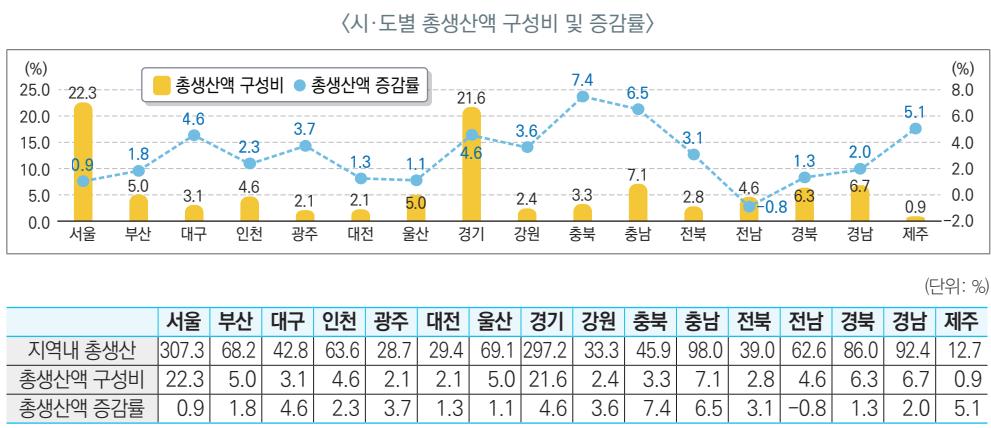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

7. 지역별 경제 동향

● 시·도별 총생산액

'13년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전체 총생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는 각각 2%대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시 · 도별 사업체수

'13년 사업체수는 수도권에 47.2%가 집중되어 있고,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27.2%로 두 권역이 전체 사업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시 · 도별 사업체〉



(단위: 천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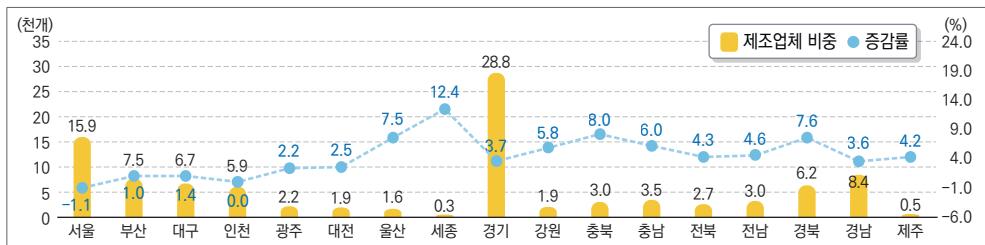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677 (100)	785 (21.4)	272 (7.4)	196 (5.3)	178 (4.8)	109 (3.0)	106 (2.9)	77 (2.1)	7 (0.2)	773 (21.0)	129 (3.5)	116 (3.1)	146 (4.0)	140 (3.8)	137 (3.7)	206 (5.6)	249 (6.8)	52 (1.4)
증감률	2.1	0.5	0.7	1.6	0.4	2.7	1.0	3.2	12.5	2.9	3.4	2.6	3.4	2.7	3.0	3.1	2.8	5.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체대비 비중

● 시 · 도별 제조업 사업체

'13년 제조업체는 수도권에 50.6%가 집중되어 있으며, 영남권의 비중이 30.5%로 두 권역의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 · 도별 제조업 사업체〉



(단위: 천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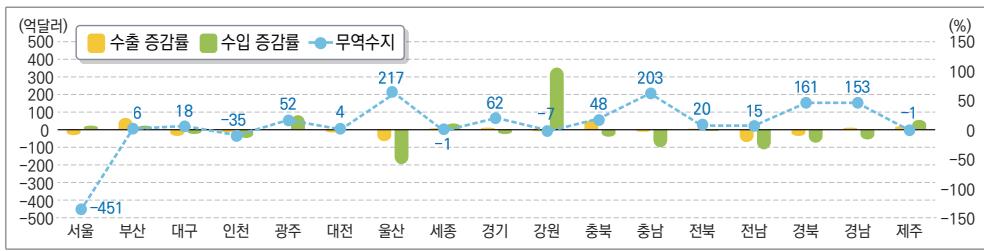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사업체수	371 (100)	59 (15.9)	28 (7.5)	25 (6.7)	22 (5.9)	8 (2.2)	7 (1.9)	6 (1.6)	1 (0.3)	107 (28.8)	7 (1.9)	11 (3.0)	13 (3.5)	10 (2.7)	11 (3.0)	23 (6.2)	31 (8.4)	2 (0.5)
증감률	2.8	-1.1	1.0	1.4	0.0	2.2	2.5	7.5	12.4	3.7	5.8	8.0	6.0	4.3	4.6	7.6	3.6	4.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체대비 비중

● 시·도별 수출·입

'15년 상반기 서울·인천 지역은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울산·충남·경북·경남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되었다.

〈시·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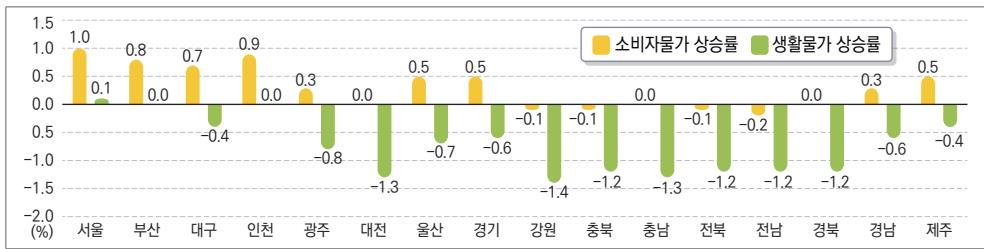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출 증감률	-8.4	19.2	-10.5	-4.5	0.6	-4.8	-19.3	2.7	4.6	-3.2	15.6	0.1	0.8	-21.1	-12.1	3.7	6.1
수입 증감률	7.4	3.4	-8.3	-14.6	24.9	0.5	-59.0	8.5	-6.8	106.5	-12.2	-29.4	-1.6	-33.6	-22.7	-16.4	16.4
무역수지	-451	6	18	-35	52	4	-217	-1	62	-7	48	203	20	15	161	153	-1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15년 상반기)

● 시·도별 물가

'1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 미만이며, 생활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물가 동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0.8	0.7	0.9	0.3	0.0	0.5	0.5	-0.1	-0.1	0.0	-0.1	-0.2	0.0	0.3	0.5
생활물가 상승률	0.1	0.0	-0.4	0.0	-0.8	-1.3	-0.7	-0.6	-1.4	-1.2	-1.3	-1.2	-1.2	-1.2	-0.6	-0.4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15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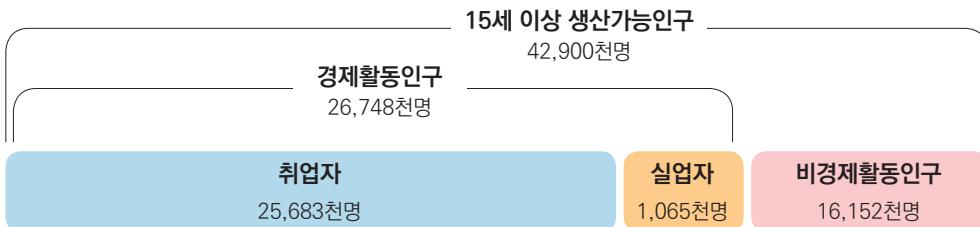
III. 고용

1. 노동력 현황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¹⁾

'15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2,900천명으로, 남성 20,996천명, 여성 21,904천명이다. 연령별로는 청년(15~29세) 9,493천명, 중년(30~49세) 16,104천명, 장년(50~64세) 10,700천명, 노년(65세 이상) 6,603천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6,748천명으로 취업자 25,683천명, 실업자 1,065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2천명이다. 고용률은 59.9%(15~64세 65.4%)이며, 실업률은 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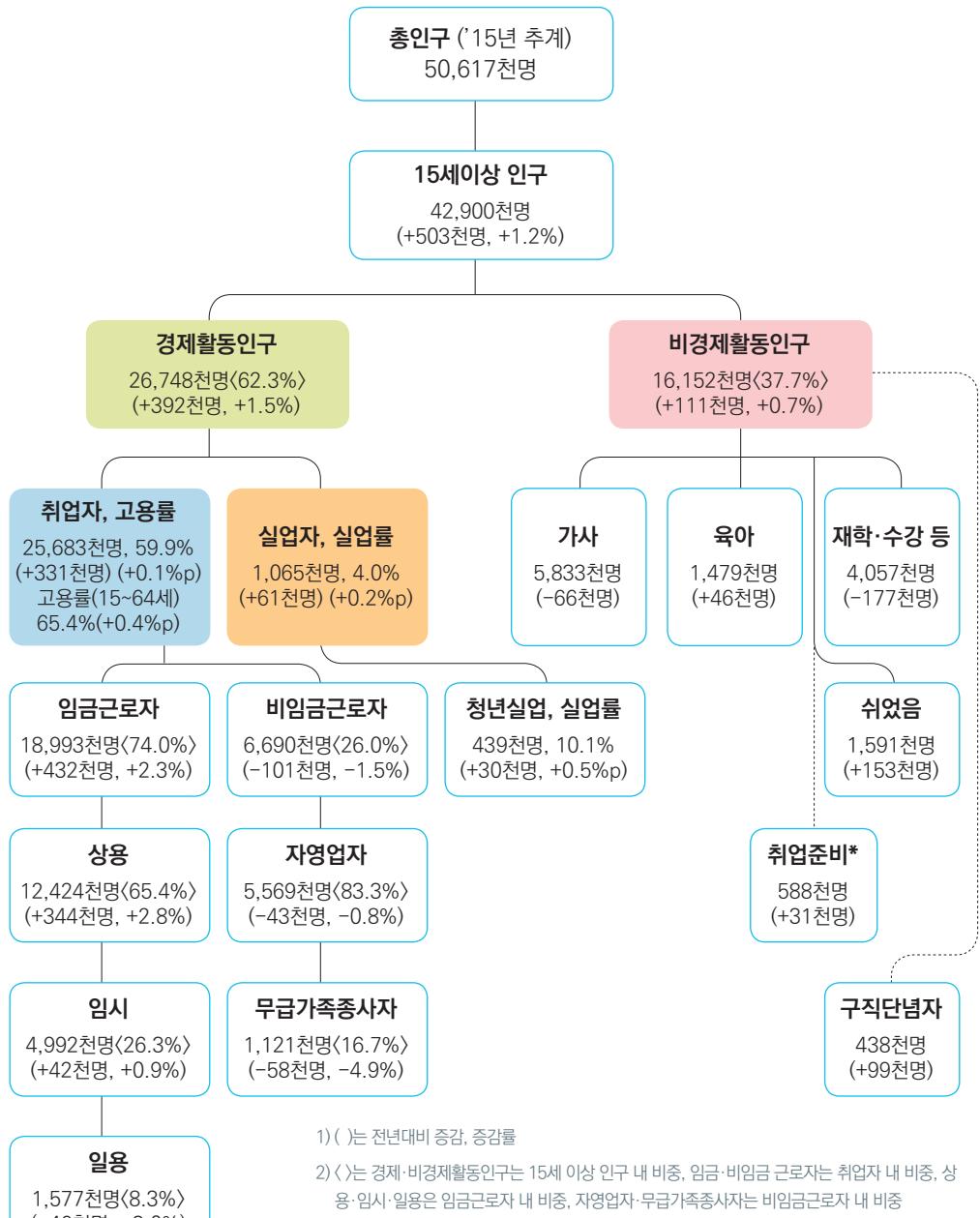
(단위: 천명, %)

	합계		
		남성	여성
15세이상 인구	42,900	20,996	21,904
경제활동 인구	26,748	15,483	11,265
비경제활동 인구	16,152	5,513	10,639
경제활동 참가율	62.3	73.7	51.4
취업자	25,683	14,873	10,810
실업자	1,065	610	455
실업률	4.0	3.9	4.0
고용률	59.9(65.4)	70.8(75.5)	49.4(5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5~64세 고용률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인구총계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15년 상반기 고용동향〉 (15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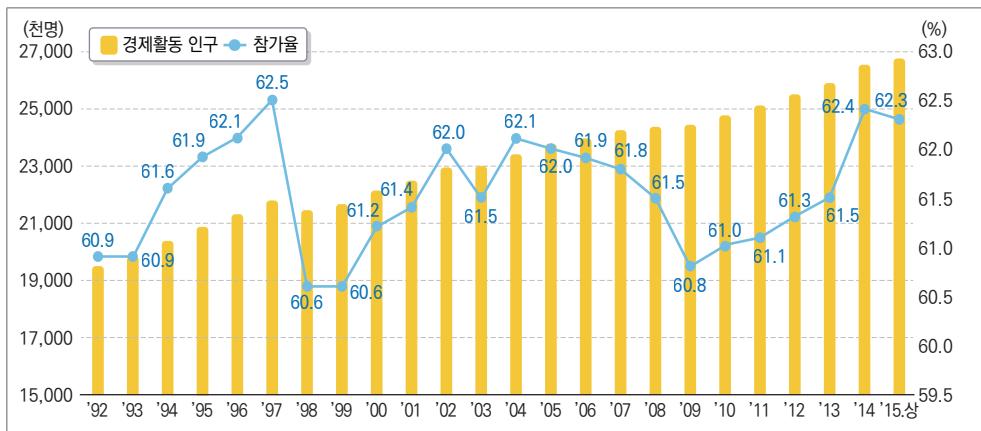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인구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도 '98~'99년 외환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98년 외환위기 시 크게 감소하였고 '09년 금융위기 시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14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15년 상반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22.3%p 높지만, 남성의 경우 90년 대 이후 소폭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p)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경활인구	19,499 (390)	19,806 (307)	20,353 (547)	20,845 (492)	21,288 (443)	21,782 (494)	21,428 (-354)	21,666 (238)	22,134 (468)	22,471 (337)	22,921 (450)	22,957 (36)
남성	11,694	11,881	12,174	12,435	12,650	12,843	12,852	12,880	13,034	13,172	13,435	13,539
여성	7,805	7,924	8,179	8,410	8,638	8,938	8,576	8,785	9,101	9,299	9,486	9,418
참가율	60.9 (0.3)	60.9 (0.0)	61.6 (0.7)	61.9 (0.3)	62.1 (0.2)	62.5 (0.4)	60.6 (-1.9)	60.6 (0.0)	61.2 (0.6)	61.4 (0.2)	62.0 (0.6)	61.5 (-0.5)
남성	75.7	75.7	76.3	76.4	76.2	76.1	75.1	74.4	74.4	74.3	75.0	74.7
여성	47.1	47.1	47.8	48.4	48.9	49.8	47.1	47.6	48.8	49.3	49.8	49.0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경활인구	23,417 (461)	23,743 (326)	23,978 (235)	24,216 (238)	24,347 (131)	24,394 (48)	24,748 (354)	25,099 (351)	25,501 (402)	25,873 (373)	26,536 (663)	26,748 (392)
남성	13,727	13,883	13,978	14,124	14,208	14,319	14,492	14,683	14,891	15,071	15,387	15,483
여성	9,690	9,860	10,001	10,092	10,139	10,076	10,256	10,416	10,609	10,802	11,149	11,265
참가율	62.1 (0.6)	62.0 (-0.1)	61.9 (-0.1)	61.8 (-0.1)	61.5 (-0.3)	60.8 (-0.7)	61.0 (0.2)	61.1 (0.1)	61.3 (0.2)	61.5 (0.2)	62.4 (0.9)	62.3 (0.1)
남성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73.7
여성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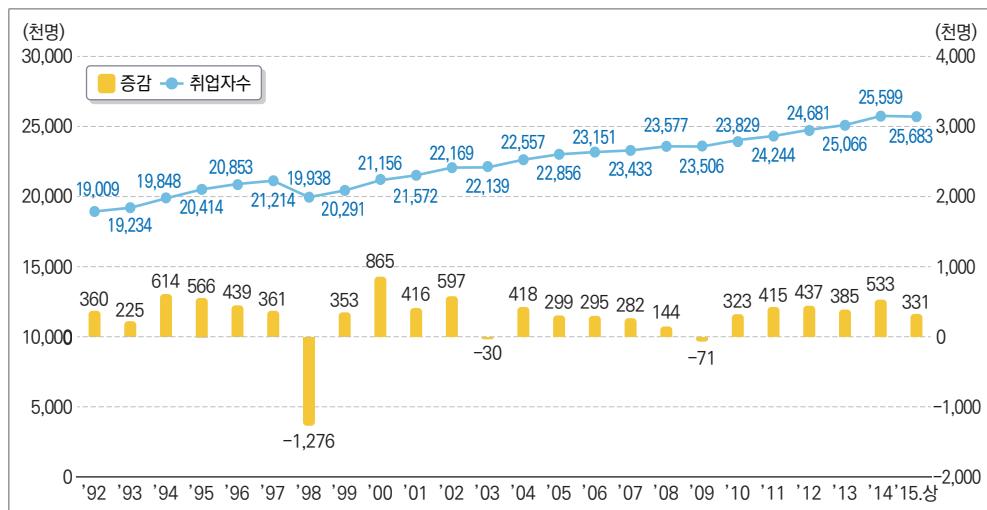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1999년 까지는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2. 취업자 및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5세 이상 취업자는 25,683천명으로 전년대비 331천명 증가하였다. '09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는 매년 30~40만명대 내외로 증가하다 '14년에는 50만명대로 크게 증가했으나, '15년 상반기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다.

〈취업자수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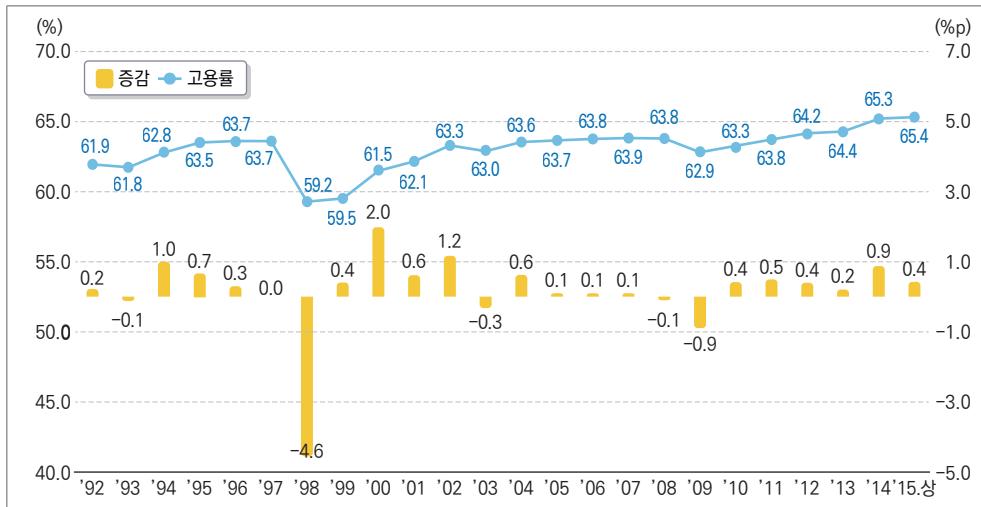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취업자	19,009	19,234	19,848	20,414	20,853	21,214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360)	(225)	(614)	(566)	(439)	(361)	(-1,276)	(353)	(865)	(416)	(597)	(-3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683
	(418)	(299)	(295)	(282)	(144)	(-71)	(323)	(415)	(437)	(385)	(533)	(3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전년(동기)대비 증감

● 고용률(15~64세)

고용률은 '98년 외환위기 시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되어 '02년부터 '11년까지 약 10여년간 대체로 63%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2년과 '13년에는 기존의 추세치를 넘어서는 고용률 증가가 있었고, '14년과 '15년 상반기에는 더욱 큰 폭의 고용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 및 증감〉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고용률	15세 이상	59.1	59.4	59.1	60.1	60.6	60.8	60.9	56.4	56.7	58.5	59.0	59.3
	15~64세	61.9 (0.2)	61.8 (-0.1)	62.8 (1.0)	63.5 (0.7)	63.7 (0.3)	63.7 (0.0)	59.2 (-4.6)	59.5 (0.4)	61.5 (2.0)	62.1 (0.6)	63.3 (1.2)	63.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고용률	15세 이상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59.9
	15~64세	63.6 (0.6)	63.7 (0.1)	63.8 (0.1)	63.9 (0.1)	63.8 (-0.1)	62.9 (-0.9)	63.3 (0.4)	63.8 (0.5)	64.2 (0.4)	64.4 (0.2)	65.3 (0.9)	65.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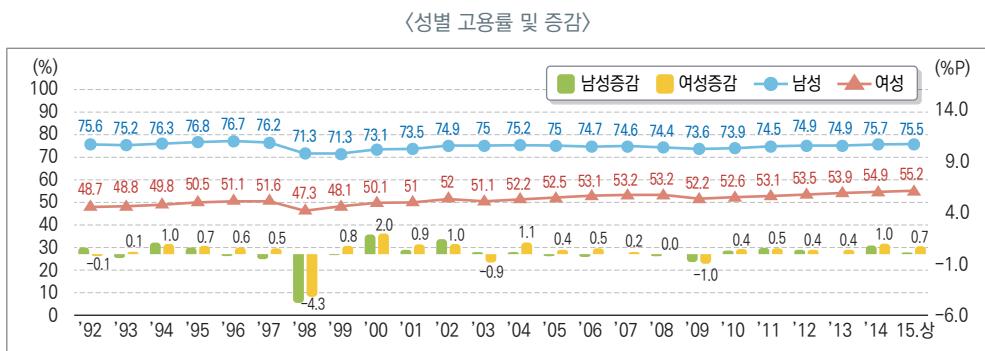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13년 이후 여성 취업자 증가가 남성 취업자 증가를 상회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15~64세 기준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 보다 약 20%p 낮지만 남성 고용률이 장기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4편 대상별 현황」 참조



		(단위: 천명, %, %p)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남성	취업자	11,370	11,490	11,829	12,147	12,351	12,483	11,847	11,954	12,387	12,581	12,944	13,031	
	고용률	(250)	(120)	(339)	(318)	(204)	(132)	(-636)	(107)	(433)	(194)	(363)	(87)	
여성	취업자	75.6	75.2	76.3	76.8	76.7	76.2	76.2	71.3	71.3	73.1	73.5	75.0	
	고용률	(0.6)	(-0.4)	(1.1)	(0.6)	(-0.2)	(-0.5)	(-4.8)	(-0.1)	(1.9)	(0.4)	(1.4)	(0.1)	
남성	취업자	7,640	7,745	8,020	8,267	8,502	8,731	8,090	8,337	8,769	8,991	9,225	9,108	
	고용률	(111)	(105)	(275)	(247)	(235)	(229)	(-641)	(247)	(432)	(222)	(234)	(-117)	
여성	취업자	48.7	48.8	49.8	50.5	51.1	51.6	47.3	48.1	50.1	51.0	52.0	51.1	
	고용률	(-0.1)	(0.1)	(1.0)	(0.7)	(0.6)	(0.5)	(-4.3)	(0.8)	(2.0)	(0.9)	(1.0)	(-0.9)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남성	취업자	13,193	13,330	13,444	13,607	13,703	13,734	13,915	14,153	14,387	14,573	14,839	14,873	
	고용률	(163)	(137)	(114)	(163)	(96)	(31)	(181)	(238)	(234)	(186)	(266)	(143)	
여성	취업자	75.2	75.0	74.7	74.6	74.4	73.6	73.9	74.5	74.9	75.7	75.5	75.5	
	고용률	(0.2)	(-0.2)	(-0.3)	(-0.0)	(-0.2)	(-0.8)	(0.3)	(0.6)	(0.4)	(-0.0)	(0.8)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취업자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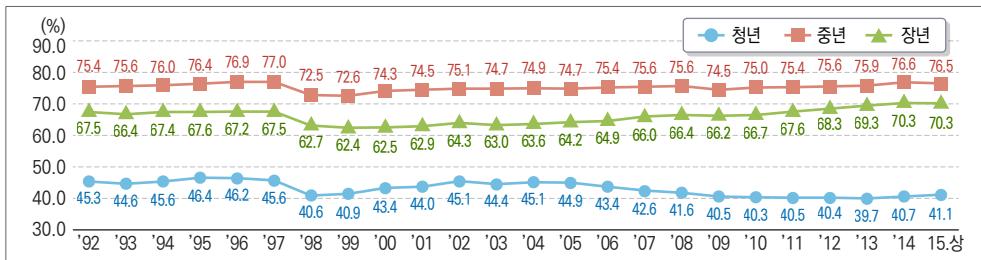
청년(15~29세) 고용률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03년 카드 사태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3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년(30~49세) 고용률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하다가, '09년 금융위기 시 주춤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년(50~64세) 고용률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가 '09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해 왔다. 다만, '15년 상반기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 청년 및 장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4편 대상별 현황」 참조

〈연령별 고용률〉



(단위: 천명, %, %p)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취업자	청년	5,420 (-76)	5,279 (-141)	5,349 (70)	5,443 (94)	5,420 (-23)	5,349 (-71)	4,733 (-616)	4,691 (-42)	4,879 (188)	4,815 (-64)	4,799 (-16)	4,606 (-193)
	중년	9,495 (235)	9,809 (314)	10,171 (362)	10,510 (339)	10,857 (347)	11,109 (252)	10,662 (-447)	10,906 (244)	11,414 (508)	11,728 (314)	12,068 (340)	12,217 (149)
	장년	3,456 (159)	3,500 (44)	3,635 (135)	3,722	3,780 (87)	3,891 (58)	3,711 (111)	3,776 (-180)	3,862 (65)	3,959 (86)	4,147 (97)	4,175 (188)
고용률	청년	45.3 (-0.0)	44.6 (-0.7)	45.6 (1.0)	46.4 (0.8)	46.2 (-0.2)	45.6 (-0.5)	40.6 (-5.0)	40.9 (0.3)	43.4 (2.5)	44.0 (0.6)	45.1 (1.1)	44.4 (-0.6)
	중년	75.4 (-0.5)	75.6 (0.2)	76.0 (0.5)	76.4 (0.3)	76.9 (0.6)	77.0 (0.1)	72.5 (-4.5)	72.6 (0.1)	72.6 (-0.1)	74.3 (1.6)	74.5 (0.2)	75.1 (-0.4)
	장년	67.5 (0.8)	66.4 (-1.1)	67.4 (1.0)	67.6 (0.2)	67.2 (-0.4)	67.5 (0.2)	62.7 (-4.8)	62.7 (-0.4)	62.4 (0.2)	62.5 (0.2)	62.9 (0.4)	64.3 (1.4)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취업자	청년	4,578 (-28)	4,450 (-128)	4,270 (-180)	4,202 (-68)	4,084 (-118)	3,957 (-127)	3,914 (-43)	3,879 (-35)	3,843 (-36)	3,793 (-50)	3,870 (77)	3,903 (61)
	중년	12,387 (170)	12,427 (40)	12,543 (116)	12,519 (-24)	12,558 (39)	12,361 (-197)	12,386 (25)	12,397 (11)	12,378 (-19)	12,379 (1)	12,396 (17)	12,312 (-59)
	장년	4,348 (173)	4,629 (281)	4,903 (274)	5,197 (294)	5,407 (210)	5,642 (235)	5,979 (337)	6,345 (366)	6,677 (332)	6,996 (319)	7,331 (335)	7,518 (296)
고용률	청년	45.1 (0.7)	44.9 (-0.3)	43.4 (-1.5)	42.6 (-0.7)	41.6 (-1.1)	40.5 (-1.1)	40.3 (-0.1)	40.5 (0.1)	40.4 (-0.1)	39.7 (-0.7)	40.7 (1.0)	41.1 (0.7)
	중년	74.9 (0.2)	74.7 (-0.2)	75.4 (0.7)	75.6 (0.1)	75.6 (0.1)	74.5 (-1.1)	75.0 (0.5)	75.4 (0.4)	75.6 (0.3)	75.9 (0.3)	76.6 (0.7)	76.5 (0.1)
	장년	63.6 (0.5)	64.2 (0.6)	64.9 (0.7)	66.0 (1.1)	66.4 (0.5)	66.2 (-0.2)	66.7 (0.5)	67.6 (0.9)	68.3 (0.8)	69.3 (1.0)	70.3 (0.4)	70.3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장년층 취업자는 50세 이상, 고용률은 50~64세 기준

▶ 고용률 70% 로드맵의 연령 구분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연령별 구분을 청년 15~29세, 중년 30~54세, 장년 55~6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업자 및 고용률은 아래표와 같음(아래표에서 장년 취업자는 55세 이상, 장년 고용률은 55~64세 기준)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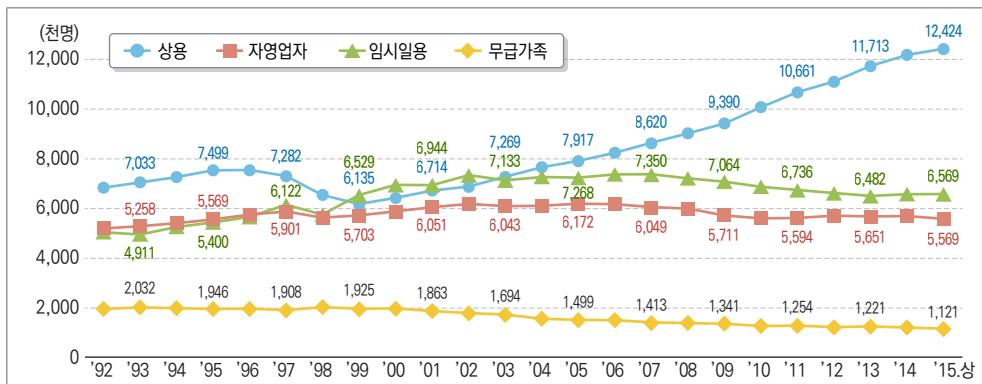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취업자	청년	5,420	5,279	5,349	5,443	5,420	5,349	4,733	4,691	4,879	4,815	4,799	4,606
		(-76)	(-141)	(70)	(94)	(-23)	(-71)	(-616)	(-42)	(188)	(-64)	(-16)	(-193)
	중년	11,075	11,370	11,740	12,062	12,394	12,664	12,172	12,473	13,066	13,431	13,863	14,051
고용률	청년	45.3	44.6	45.6	46.4	46.2	45.6	40.6	40.9	43.4	44.0	45.1	44.4
		(-0.0)	(-0.7)	(1.0)	(0.8)	(-0.2)	(-0.5)	(-5.0)	(0.3)	(2.5)	(0.6)	(1.1)	(-0.6)
	중년	75.4	75.3	75.8	76.1	76.5	76.6	72.1	72.2	73.7	73.9	74.6	74.2
취업자	장년	62.2	61.5	62.9	63.6	63.3	63.8	58.8	58.3	57.8	58.3	59.5	57.8
		(1.0)	(-0.6)	(1.4)	(0.7)	(-0.3)	(0.5)	(-5.0)	(-0.5)	(-0.4)	(0.5)	(1.2)	(-1.7)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고용률	청년	4,578	4,450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3,870	3,903
		(-28)	(-129)	(-180)	(-68)	(-119)	(-127)	(-43)	(-35)	(-36)	(-50)	(77)	(61)
	중년	14,316	14,557	14,856	15,002	15,188	15,117	15,291	15,424	15,507	15,597	15,664	15,601
취업자	장년	(265)	(241)	(299)	(146)	(186)	(-71)	(174)	(133)	(83)	(90)	(67)	(-20)
		3,663	3,850	4,025	4,229	4,306	4,432	4,624	4,942	5,331	5,676	6,065	6,179
		(181)	(187)	(175)	(204)	(77)	(127)	(192)	(318)	(389)	(346)	(389)	(291)
고용률	청년	45.1	44.9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1
		(0.7)	(-0.3)	(-1.5)	(-0.7)	(-1.1)	(-1.1)	(-0.1)	(0.1)	(-0.1)	(-0.7)	(1.0)	(0.7)
	중년	74.4	74.3	75.0	75.1	75.3	74.4	74.8	75.2	75.6	76.0	76.7	76.7
취업자	장년	(0.2)	(-0.1)	(0.7)	(0.2)	(0.2)	(-1.0)	(0.5)	(0.4)	(0.4)	(0.4)	(0.7)	(0.3)
		58.4	58.7	59.3	60.6	60.6	60.4	60.9	62.1	63.1	64.3	65.6	65.4
		(0.7)	(0.3)	(0.6)	(1.3)	(0.0)	(-0.3)	(0.5)	(1.2)	(1.0)	(1.2)	(1.4)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최근 취업자 증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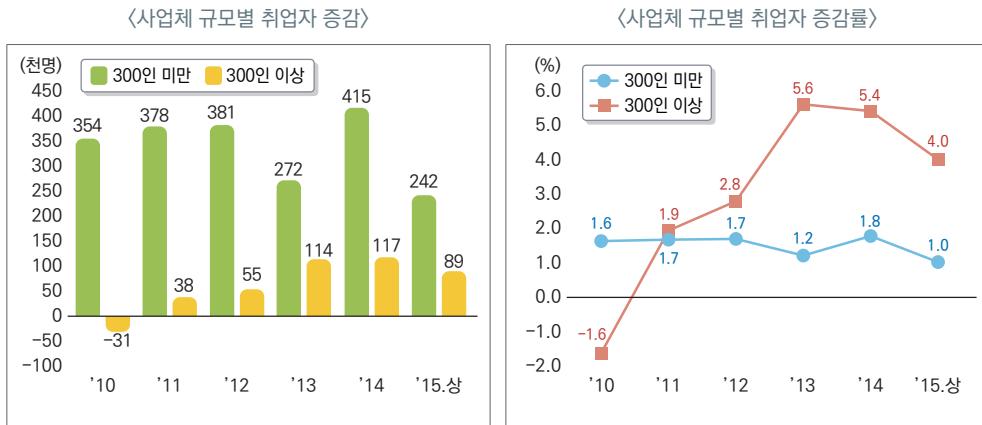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상용	6,838 (341)	7,033 (195)	7,225 (192)	7,499 (274)	7,499 (0)	7,282 (-217)	6,534 (-748)	6,135 (-399)	6,395 (260)	6,714 (319)	6,862 (148)	7,269 (407)
임시일용	5,072 (-130)	4,911 (-161)	5,254 (343)	5,400 (146)	5,701 (301)	6,122 (421)	5,762 (-360)	6,529 (767)	6,965 (436)	6,944 (-21)	7,319 (375)	7,133 (-186)
자영업자	5,171 (194)	5,258 (87)	5,376 (118)	5,569 (193)	5,710 (141)	5,901 (191)	5,616 (-285)	5,703 (87)	5,864 (161)	6,051 (187)	6,190 (139)	6,043 (-147)
무급가족	1,928 (-46)	2,032 (104)	1,994 (-38)	1,946 (-48)	1,943 (-3)	1,908 (-35)	2,025 (117)	1,925 (-100)	1,931 (6)	1,863 (-68)	1,797 (-66)	1,694 (-1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상용	7,625 (356)	7,917 (293)	8,204 (287)	8,620 (416)	9,007 (386)	9,390 (383)	10,086 (383)	10,661 (697)	11,097 (575)	11,713 (436)	12,156 (443)	12,424 (344)
임시일용	7,269 (136)	7,268 (-1)	7,346 (78)	7,350 (4)	7,200 (-150)	7,064 (-136)	6,884 (-180)	6,736 (-148)	6,615 (-121)	6,482 (-133)	6,587 (105)	6,569 (88)
자영업자	6,110 (67)	6,172 (63)	6,135 (-38)	6,049 (-85)	5,970 (-79)	5,711 (-259)	5,592 (-118)	5,594 (1)	5,718 (124)	5,651 (-67)	5,652 (1)	5,569 (-43)
무급가족	1,553 (-141)	1,499 (-55)	1,466 (-33)	1,413 (-52)	1,401 (-13)	1,341 (-60)	1,266 (-76)	1,254 (-12)	1,251 (-3)	1,221 (-30)	1,205 (-16)	1,121 (-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 규모별 취업자

'15년 상반기 취업자 25,683천명은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에 90.9%(23,358천명), 300인 이상에 9.1%(2,324천명) 분포하고 있다.

매년 취업자 증가 규모도 300인 미만이 월등히 크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300인 이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천명)	(천명, %)
'10	23,829 (323, 1.4%)	21,877 (354, 1.6%)	1,952 (-31, -1.6%)
'11	24,245 (416, 1.7%)	22,255 (378, 1.7%)	1,990 (38, 1.9%)
'12	24,681 (436, 1.8%)	22,636 (381, 1.7%)	2,045 (55, 2.8%)
'13	25,067 (386, 1.6%)	22,908 (272, 1.2%)	2,159 (114, 5.6%)
'14	25,599 (532, 2.1%)	23,323 (415, 1.8%)	2,276 (117, 5.4%)
'15.상	25,683 (331, 1.3%)	23,358 (242, 1.0%)	2,324 (8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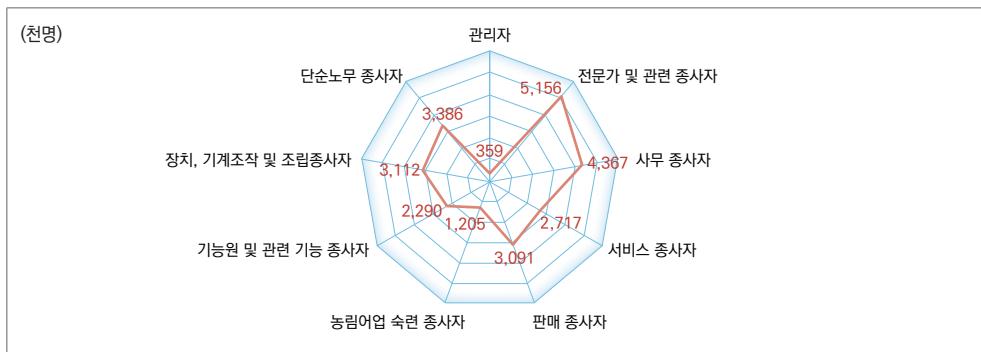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및 증감률

● 직종별 취업자

'15년 상반기 직종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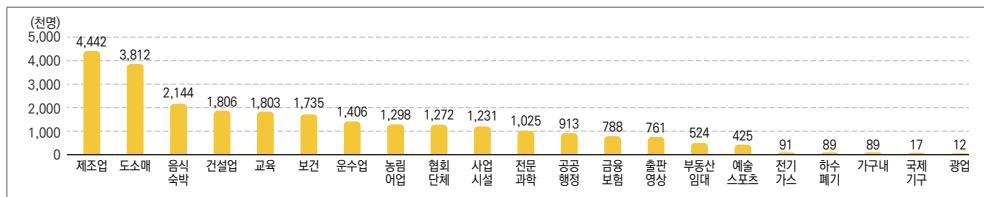
	'10	'11	'12	'13	'14	'15.상
전 직종	23,829 (100.0)	24,244 (100.0)	24,681 (100.0)	25,066 (100.0)	25,599 (100.0)	25,683 (100.0)
관리자	562 (2.4)	515 (2.1)	464 (1.9)	403 (1.6)	397 (1.5)	359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71 (19.2)	4,686 (19.3)	4,791 (19.4)	4,966 (19.8)	5,123 (20.0)	5,156 (20.1)
사무 종사자	3,739 (15.7)	3,992 (16.5)	4,100 (16.6)	4,218 (16.8)	4,311 (16.8)	4,367 (17.0)
서비스 종사자	2,434 (10.2)	2,468 (10.2)	2,546 (10.3)	2,575 (10.3)	2,697 (10.5)	2,717 (10.6)
판매 종사자	2,934 (12.3)	2,895 (11.9)	3,009 (12.2)	3,032 (12.1)	3,107 (12.1)	3,091 (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41 (6.0)	1,419 (5.9)	1,425 (5.8)	1,426 (5.7)	1,363 (5.3)	1,205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38 (9.4)	2,250 (9.3)	2,279 (9.2)	2,221 (8.9)	2,247 (8.8)	2,290 (8.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695 (11.3)	2,764 (11.4)	2,863 (11.6)	2,998 (12.0)	3,061 (12.0)	3,112 (12.1)
단순노무 종사자	3,215 (13.5)	3,257 (13.4)	3,204 (13.0)	3,227 (12.9)	3,295 (12.9)	3,386 (1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중

업종별 취업자

제조업(C)과 도소매업(G) 취업자가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나,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0	'11	'12	'13	'14	'15.상
전 업종	23,829 (100.0)	24,244 (100.0)	24,681 (100.0)	25,066 (100.0)	25,599 (100.0)	25,683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566 (6.6)	1,542 (6.4)	1,528 (6.2)	1,520 (6.1)	1,452 (5.7)	1,298 (5.1)
광업	21 (0.1)	17 (0.1)	15 (0.1)	16 (0.1)	13 (0.1)	12 (0.0)
제조업	4,028 (16.9)	4,091 (16.9)	4,105 (16.6)	4,184 (16.7)	4,330 (16.9)	4,442 (1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8 (0.3)	76 (0.3)	76 (0.3)	90 (0.4)	83 (0.3)	91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65 (0.3)	71 (0.3)	73 (0.3)	73 (0.3)	87 (0.3)	89 (0.3)
건설업	1,753 (7.4)	1,751 (7.2)	1,773 (7.2)	1,754 (7.0)	1,796 (7.0)	1,806 (7.0)
도매 및 소매업	3,580 (15.0)	3,638 (15.0)	3,689 (14.9)	3,660 (14.6)	3,792 (14.8)	3,812 (14.8)
운수업	1,280 (5.4)	1,332 (5.5)	1,380 (5.6)	1,413 (5.6)	1,407 (5.5)	1,406 (5.5)
숙박 및 음식점업	1,889 (7.9)	1,854 (7.6)	1,906 (7.7)	1,971 (7.9)	2,098 (8.2)	2,144 (8.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8 (2.8)	703 (2.9)	700 (2.8)	692 (2.8)	714 (2.8)	761 (3.0)
금융 및 보험업	808 (3.4)	846 (3.5)	842 (3.4)	864 (3.4)	837 (3.3)	788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7 (2.2)	486 (2.0)	486 (2.0)	485 (1.9)	508 (2.0)	524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3 (3.7)	961 (4.0)	1,028 (4.2)	1,022 (4.1)	1,025 (4.0)	1,025 (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3 (4.3)	1,086 (4.5)	1,116 (4.5)	1,173 (4.7)	1,180 (4.6)	1,231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0 (4.0)	951 (3.9)	951 (3.9)	966 (3.9)	957 (3.7)	913 (3.6)
교육 서비스업	1,799 (7.5)	1,686 (7.0)	1,744 (7.1)	1,748 (7.0)	1,807 (7.1)	1,803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3 (4.8)	1,311 (5.4)	1,399 (5.7)	1,554 (6.2)	1,693 (6.6)	1,735 (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 (1.6)	417 (1.7)	409 (1.7)	392 (1.6)	394 (1.5)	425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16 (5.1)	1,261 (5.2)	1,286 (5.2)	1,312 (5.1)	1,299 (5.0)	1,272 (5.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150 (0.6)	153 (0.6)	166 (0.7)	172 (0.7)	116 (0.5)	89 (0.3)
국제 및 외국기관	13 (0.1)	13 (0.1)	9 (0.0)	7 (0.0)	14 (0.1)	1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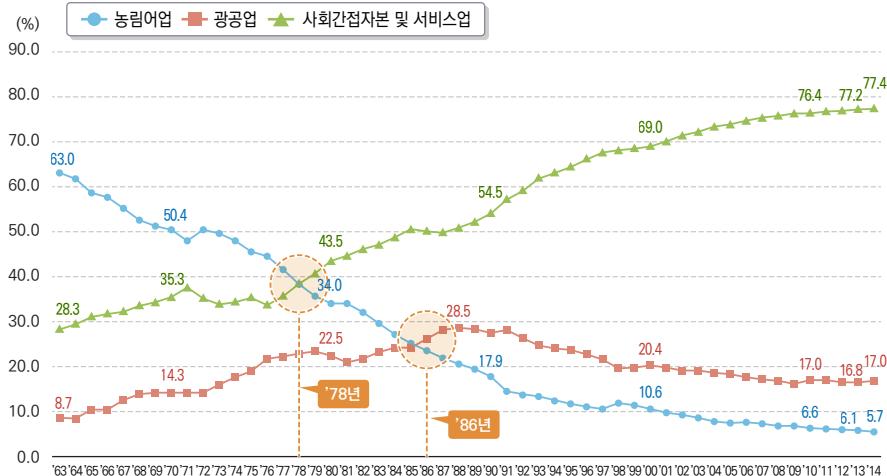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중

▶ 60년대 이후 업종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

60년대 초반에는 생산가능인구의 6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했으나, '78년에 서비스업에 역전되고, '86년에는 다시 광공업에 역전되면서, '14년 현재 5.7%까지 축소

반면, 서비스업(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 현재 77.4%를 차지하고, 광공업은 '88년 28.5%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14년 현재 17.0%의 비율을 차지(제조업은 16.7%)

〈업종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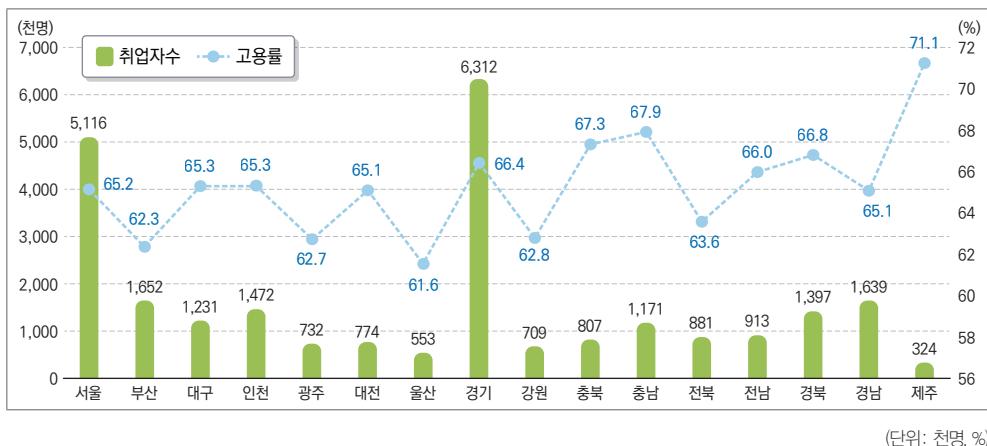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 취업자 및 고용률

'15년 상반기 취업자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으며, 서울·인천 지역을 포함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률은 제주 지역이 70%대로 가장 높으며, 부산·울산 지역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가 고용률이 낮으며, 도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특·광역시의 경우, 청년·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지역은 남성·고령자 그리고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업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25,683 (100.0)	3,903 (15.2)	12,312 (47.9)	7,517 (29.3)	1,951 (7.6)	1,298 (5.1)	4,454 (17.3)	1,806 (7.0)	18,125 (70.6)
서울특별시	5,116 (100.0)	882 (17.2)	2,481 (48.5)	1,455 (28.4)	300 (5.9)	3 (0.1)	498 (9.7)	326 (6.4)	4,289 (83.8)
부산광역시	1,652 (100.0)	245 (14.8)	740 (44.8)	551 (33.3)	118 (7.1)	5 (0.3)	294 (17.8)	122 (7.4)	1,232 (74.5)
대구광역시	1,231 (100.0)	184 (14.9)	590 (47.9)	385 (31.3)	73 (5.9)	20 (1.6)	238 (19.4)	87 (7.0)	887 (72.0)
인천광역시	1,472 (100.0)	228 (15.5)	736 (50.0)	430 (29.2)	79 (5.3)	19 (1.3)	327 (22.2)	99 (6.7)	1,027 (69.8)
광주광역시	732 (100.0)	116 (15.8)	375 (51.1)	198 (27.0)	45 (6.1)	18 (2.5)	110 (15.1)	67 (9.2)	538 (73.4)
대전광역시	774 (100.0)	136 (17.5)	380 (49.0)	222 (28.6)	38 (4.9)	8 (1.1)	79 (10.2)	64 (8.3)	624 (80.6)
울산광역시	553 (100.0)	74 (13.3)	286 (51.6)	167 (30.1)	28 (5.1)	6 (1.1)	209 (37.7)	41 (7.4)	298 (53.8)
경기도	6,312 (100.0)	1,019 (16.1)	3,268 (51.8)	1,717 (27.2)	310 (4.9)	114 (1.8)	1,269 (20.1)	475 (7.5)	4,454 (70.6)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업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강원도	709 (100.0)	84 (11.9)	312 (44.0)	237 (33.5)	76 (10.7)	83 (11.7)	55 (7.7)	52 (7.3)	520 (73.3)
충청북도	807 (100.0)	122 (15.1)	366 (45.3)	247 (30.5)	74 (9.1)	81 (10.1)	169 (20.9)	54 (6.6)	504 (62.4)
충청남도	1,171 (100.0)	194 (16.5)	520 (44.4)	328 (28.0)	130 (11.1)	142 (12.1)	259 (22.1)	79 (6.7)	692 (59.1)
전라북도	881 (100.0)	115 (13.0)	372 (42.2)	273 (30.9)	122 (13.8)	127 (14.4)	118 (13.4)	69 (7.8)	568 (64.5)
전라남도	913 (100.0)	90 (9.9)	362 (39.6)	282 (30.8)	180 (19.7)	227 (24.8)	96 (10.6)	76 (8.4)	514 (56.3)
경상북도	1,397 (100.0)	184 (13.1)	568 (40.6)	444 (31.8)	202 (14.5)	238 (17.0)	278 (19.9)	86 (6.2)	795 (56.9)
경상남도	1,639 (100.0)	191 (11.6)	812 (49.5)	497 (30.3)	141 (8.6)	154 (9.4)	444 (27.1)	85 (5.2)	956 (58.3)
제주도	324 (100.0)	42 (12.9)	153 (47.0)	92 (28.4)	38 (11.7)	54 (16.6)	13 (4.0)	27 (8.2)	231 (7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년 상반기), ()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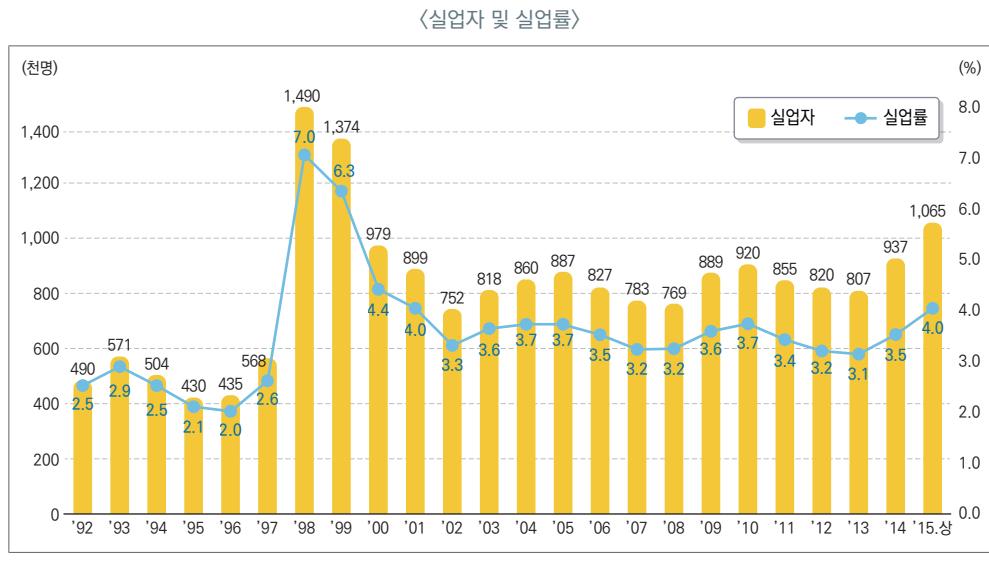
고용률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전국	63.7	63.8	63.9	63.8	62.9	63.3	63.8	64.2	64.4	65.3	65.4
서울특별시	64.3	64.3	64.5	64.1	62.5	63.4	64.6	64.6	64.9	65.5	65.2
부산광역시	60.3	60.7	60.8	60.5	59.5	60.0	60.5	61.7	61.6	62.5	62.3
대구광역시	62.1	61.9	61.9	61.5	61.2	62.0	61.7	63.3	63.1	64.2	65.3
인천광역시	62.8	63.2	63.6	62.9	63.1	63.7	64.8	65.5	65.1	65.2	65.3
광주광역시	59.6	59.4	60.4	60.6	60.7	61.1	60.9	60.8	61.5	63.4	62.7
대전광역시	59.9	60.4	61.2	62.1	61.6	61.5	61.8	62.1	62.3	64.6	65.1
울산광역시	61.0	60.1	61.6	62.1	60.7	61.4	62.6	62.9	61.8	61.1	61.6
경기도	63.8	64.1	63.9	64.2	63.1	63.5	63.7	64.2	64.6	66.2	66.4
강원도	62.6	63.2	62.8	62.8	63.2	61.7	62.2	62.9	62.4	62.6	62.8
충청북도	62.4	62.4	63.1	64.4	64.6	65.0	64.8	63.7	65.2	67.5	67.3
충청남도	67.3	67.8	68.3	66.3	65.5	66.3	66.7	66.7	67.7	67.7	67.9
전라북도	62.4	62.6	63.2	63.0	62.7	61.9	62.6	62.5	63.6	63.1	63.6
전라남도	68.3	68.1	67.8	67.2	67.2	66.9	67.1	67.5	66.6	65.8	66.0
경상북도	68.2	68.0	67.2	66.8	66.0	66.3	66.0	66.6	66.3	67.9	66.8
경상남도	64.5	64.3	64.2	64.5	63.5	63.2	64.6	64.2	64.8	65.1	65.1
제주도	71.4	71.8	71.1	71.2	70.0	68.4	70.2	70.8	70.2	71.1	7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실업자 현황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15년 상반기 실업자는 1,06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1천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0%로 0.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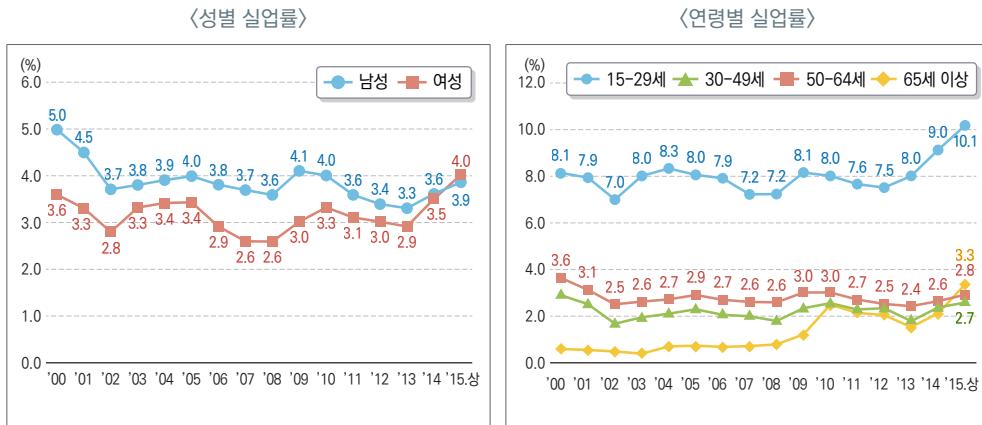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실업자	490	571	504	430	435	568	1,490	1,374	979	899	752	818
	(29)	(81)	(-67)	(-74)	(5)	(133)	(922)	(-116)	(-395)	(-80)	(-147)	(66)
실업률	2.5	2.9	2.5	2.1	2.0	2.6	7.0	6.3	4.4	4.0	3.3	3.6
	(0.1)	(0.4)	(-0.4)	(-0.4)	(-0.1)	(0.6)	(4.4)	(-0.7)	(-1.9)	(-0.4)	(-0.7)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실업자	860	887	827	783	769	889	920	855	820	807	937	1,065
	(42)	(27)	(-59)	(-44)	(-14)	(119)	(31)	(-65)	(-35)	(-13)	(130)	(61)
실업률	3.7	3.7	3.5	3.2	3.2	3.6	3.7	3.4	3.2	3.1	3.5	4.0
	(0.1)	(0.0)	(-0.2)	(-0.3)	(0.0)	(0.4)	(0.1)	(-0.3)	(-0.2)	(-0.1)	(0.4)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99년까지는 구직활동 1주 기준, '00년부터는 구직활동 4주 기준

● 성별 ·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그동안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에 비해 높았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 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져 '15년 상반기 현재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소폭 높은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중·장년 실업률이 노년에 비해 높았으나 '15년 상반기는 노년의 실업률이 중·장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00	647	5.0	332	3.6	430	8.1	422	3.6	120	3.0	6	0.6
'01	591	4.5	308	3.3	413	7.9	376	3.1	106	2.6	5	0.5
'02	491	3.7	261	2.8	361	7.0	305	2.5	78	1.8	6	0.5
'03	508	3.8	310	3.3	401	8.0	325	2.6	87	2.0	5	0.4
'04	534	3.9	326	3.4	412	8.3	343	2.7	96	2.2	9	0.7
'05	553	4.0	334	3.4	387	8.0	375	2.9	115	2.4	10	0.7
'06	533	3.8	294	2.9	364	7.9	343	2.7	110	2.2	10	0.7
'07	517	3.7	266	2.6	328	7.2	333	2.6	113	2.1	10	0.7
'08	505	3.6	265	2.6	315	7.2	336	2.6	107	1.9	12	0.8
'09	584	4.1	304	3.0	347	8.1	383	3.0	140	2.4	19	1.2
'10	577	4.0	342	3.3	340	8.0	379	3.0	161	2.6	39	2.5
'11	530	3.6	325	3.1	320	7.6	347	2.7	150	2.3	37	2.2
'12	504	3.4	316	3.0	313	7.5	315	2.5	154	2.3	38	2.1
'13	498	3.3	309	2.9	331	8.0	309	2.4	139	1.9	29	1.5
'14	548	3.6	389	3.5	385	9.0	336	2.6	173	2.3	42	2.1
'15.상	610	3.9	455	4.0	439	10.1	356	2.8	205	2.7	6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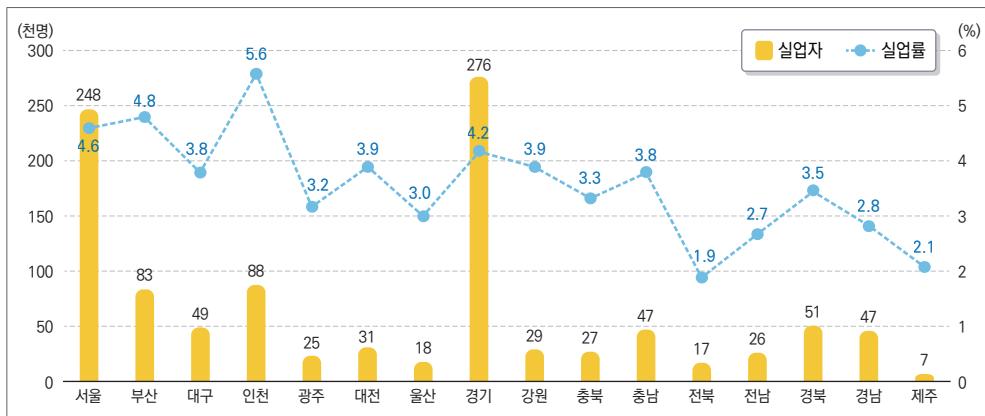
자료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년 상반기 실업자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으며, 서울·인천 지역을 포함할 경우 전체 실업자의 약 5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실업률은 인천이 5.6%로 가장 높으며, 제주 지역이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가 실업률이 높으며, 도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실업자(률)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합계	1,065(4.0)	610(3.9)	455(4.0)	439(10.1)	356(2.8)	206(2.7)	66(3.3)
서울특별시	248(4.6)	141(4.7)	107(4.5)	97(9.9)	88(3.5)	54(3.6)	9(2.7)
부산광역시	83(4.8)	47(4.8)	36(4.8)	32(11.4)	31(4.0)	16(2.7)	6(4.3)
대구광역시	49(3.8)	27(3.8)	22(3.9)	23(10.9)	15(2.4)	8(1.9)	4(5.5)
인천광역시	88(5.6)	53(5.8)	34(5.3)	36(13.8)	28(3.7)	16(3.5)	8(8.3)
광주광역시	25(3.2)	14(3.1)	11(3.4)	10(7.9)	10(2.6)	3(1.3)	2(4.1)
대전광역시	31(3.9)	19(4.0)	12(3.6)	16(10.2)	9(2.2)	5(2.0)	3(6.3)
울산광역시	18(3.0)	10(2.7)	7(3.7)	9(10.7)	4(1.5)	3(1.7)	2(4.3)
경기도	276(4.2)	157(4.1)	119(4.4)	108(9.5)	95(2.9)	60(3.3)	13(3.9)
강원도	29(3.9)	17(4.0)	12(3.7)	15(14.7)	8(2.1)	4(1.7)	4(4.6)
충청북도	27(3.3)	16(3.4)	11(3.1)	13(9.6)	6(1.6)	6(2.2)	3(3.5)
충청남도	47(3.8)	28(3.8)	19(3.9)	23(10.5)	14(2.6)	8(2.3)	3(1.9)
전라북도	17(1.9)	8(1.6)	9(2.3)	6(5.0)	6(1.5)	3(1.0)	3(1.9)
전라남도	26(2.7)	15(2.8)	11(2.6)	9(9.0)	8(2.1)	5(1.7)	4(2.1)
경상북도	51(3.5)	30(3.5)	21(3.6)	23(10.9)	18(3.1)	6(1.3)	5(2.1)
경상남도	47(2.8)	25(2.5)	22(3.3)	21(9.6)	14(1.7)	11(2.2)	2(1.4)
제주도	7(2.1)	4(2.1)	3(2.0)	3(5.1)	3(1.3)	1(1.5)	2(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년 상반기), () 실업률

▶ 고용보조지표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포괄 범위에 따라 고용보조지표 1~3으로 구분됨

(단위: %, 천명)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잠재구직자				
'14.5	4.5	241	9.4	1,727	37	1,690	10.3	
6	4.7	318	9.3	1,702	49	1,653	10.4	
7	4.7	350	9.4	1,797	44	1,752	10.7	
8	4.6	333	9.5	1,813	36	1,777	10.6	
9	4.4	332	9.3	1,793	54	1,739	10.4	
10	4.4	313	9.0	1,704	43	1,661	10.1	
11	4.3	346	9.0	1,752	44	1,708	10.2	
12	4.8	379	9.9	1,890	43	1,847	11.2	
'15.1	5.5	454	10.3	1,903	36	1,867	11.9	
2	6.4	493	10.8	1,832	39	1,793	12.5	
3	5.9	505	10.0	1,773	30	1,743	11.8	
4	5.9	527	9.5	1,662	30	1,633	11.3	
5	5.6	491	9.3	1,659	29	1,630	11.0	
6	5.8	530	9.5	1,696	33	1,663	11.3	
7	5.7	546	9.5	1,748	23	1,725	11.3	
8	5.4	550	9.6	1,849	30	1,819	1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음

| 지표 및 용어설명 |

$$\text{고용보조지표1}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① +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2} =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②}{\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3}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취업가능성 없는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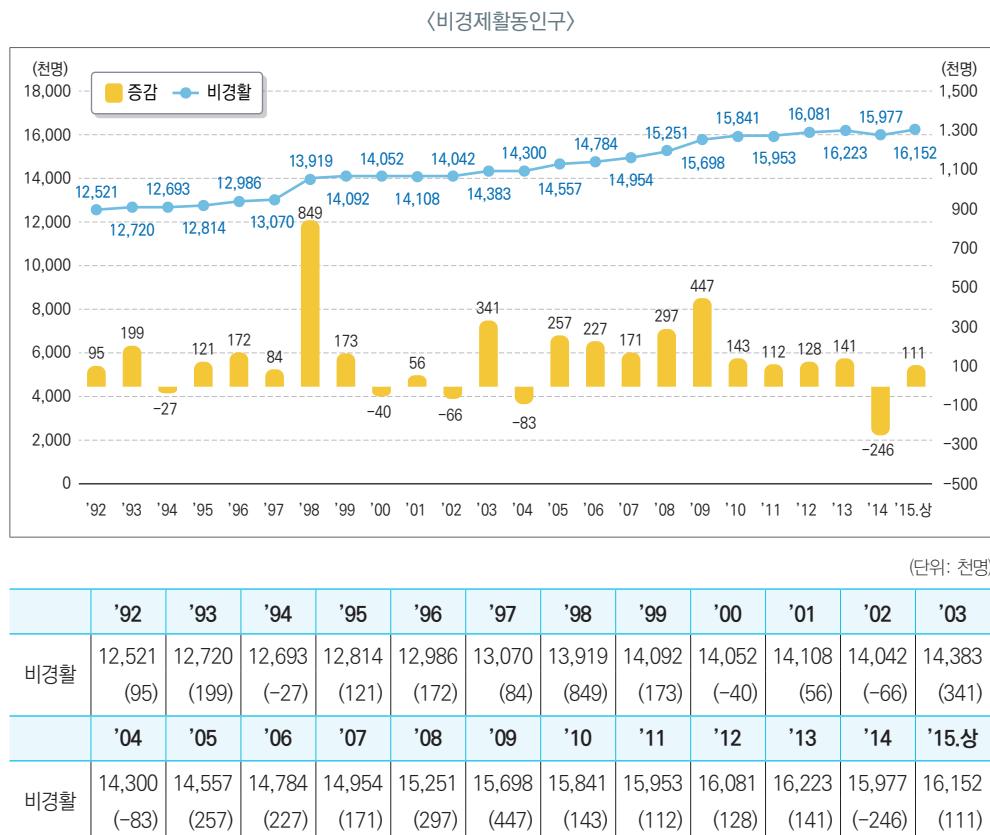
- 잠재구직자(취업가능성 있는 비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4.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비경제활동인구는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98년 외환위기와 '08~'09년 금융위기 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05년부터 '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14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15년 상반기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14년의 감소 규모는 '66년 통계작성 이후 유래가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14년에는 취업자(고용률)와 실업자(실업률)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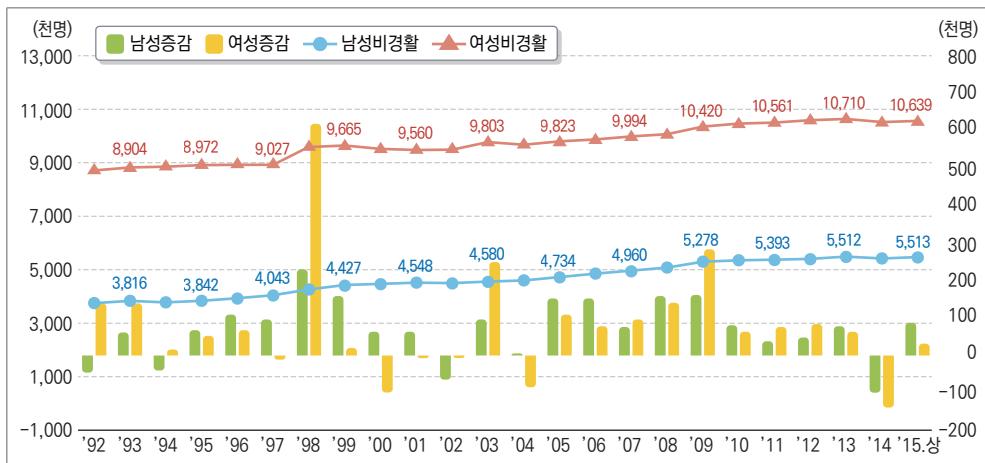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사태, '09년 금융위기 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마다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비경활	12,521 (95)	12,720 (199)	12,693 (-27)	12,814 (121)	12,986 (172)	13,070 (84)	13,919 (849)	14,092 (173)	14,052 (-40)	14,108 (56)	14,042 (-66)	14,383 (341)
남성	3,757 (-46)	3,816 (59)	3,774 (-42)	3,842 (68)	3,948 (106)	4,043 (95)	4,272 (229)	4,427 (155)	4,488 (61)	4,548 (60)	4,486 (-62)	4,580 (94)
여성	8,764 (141)	8,904 (140)	8,919 (15)	8,972 (53)	9,037 (65)	9,027 (-10)	9,647 (620)	9,665 (18)	9,564 (-101)	9,560 (-4)	9,556 (-4)	9,803 (247)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비경활	14,300 (-83)	14,557 (257)	14,784 (227)	14,954 (171)	15,251 (297)	15,698 (447)	15,841 (143)	15,953 (112)	16,081 (128)	16,223 (141)	15,977 (-246)	16,152 (111)
남성	4,584 (4)	4,734 (149)	4,885 (152)	4,960 (75)	5,117 (157)	5,278 (161)	5,356 (78)	5,393 (36)	5,437 (44)	5,512 (75)	5,409 (-104)	5,513 (84)
여성	9,716 (-87)	9,823 (108)	9,898 (75)	9,994 (96)	10,134 (140)	10,420 (286)	10,485 (65)	10,561 (75)	10,645 (84)	10,710 (66)	10,568 (-142)	10,63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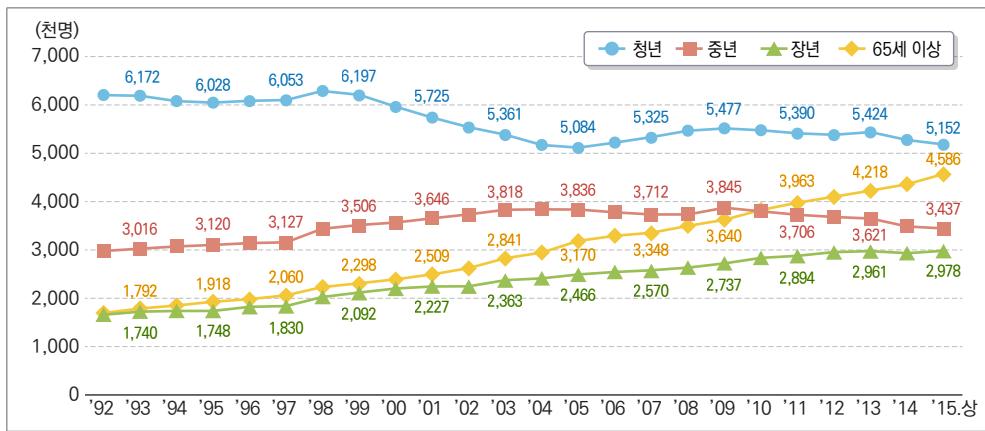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후 '09년까지 소폭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다. 중년(30~49세)은 '05년까지 증가한 후 횡보하다가, '09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고 있다.

장년(50~64세)과 노년(65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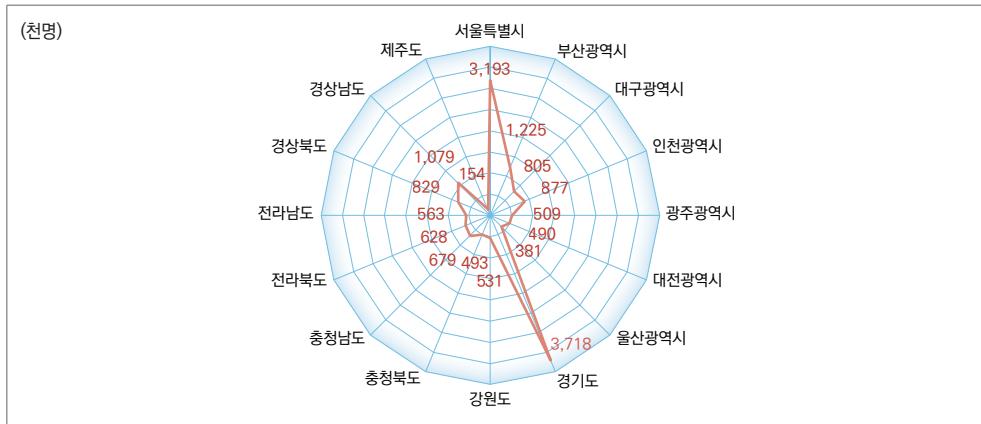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청년	6,201 (-110)	6,172 (-29)	6,063 (-109)	6,028 (-35)	6,059 (31)	6,053 (-6)	6,264 (211)	6,197 (-67)	5,934 (-263)	5,725 (-209)	5,491 (-234)	5,361 (-130)
중년	2,972 (146)	3,016 (44)	3,053 (37)	3,120 (67)	3,118 (-2)	3,127 (9)	3,409 (282)	3,506 (97)	3,534 (28)	3,646 (112)	3,704 (58)	3,818 (114)
장년	1,638 (20)	1,740 (102)	1,729 (-11)	1,748 (19)	1,811 (63)	1,830 (19)	2,022 (192)	2,092 (70)	2,195 (103)	2,227 (32)	2,226 (-1)	2,363 (137)
노년	1,710 (39)	1,792 (82)	1,848 (56)	1,918 (70)	1,997 (79)	2,060 (63)	2,225 (165)	2,298 (73)	2,389 (91)	2,509 (120)	2,621 (112)	2,841 (22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청년	5,151 (-210)	5,084 (-67)	5,209 (125)	5,325 (116)	5,423 (98)	5,477 (54)	5,452 (-25)	5,390 (-62)	5,361 (-29)	5,424 (63)	5,248 (-176)	5,152 (-114)
중년	3,811 (-7)	3,836 (25)	3,743 (-93)	3,712 (-31)	3,708 (-4)	3,845 (137)	3,754 (-91)	3,706 (-48)	3,673 (-33)	3,621 (-52)	3,449 (-172)	3,437 (-44)
장년	2,396 (33)	2,466 (70)	2,542 (76)	2,570 (28)	2,622 (52)	2,737 (115)	2,826 (89)	2,894 (68)	2,940 (46)	2,961 (21)	2,920 (-41)	2,978 (47)
노년	2,943 (102)	3,170 (227)	3,291 (121)	3,348 (57)	3,497 (149)	3,640 (143)	3,811 (171)	3,963 (152)	4,109 (146)	4,218 (109)	4,360 (142)	4,586 (222)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 '99년까지는 구직활동 1주 기준, '00년부터는 구직활동 4주 기준

●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15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서울·인천을 포함하면 7,788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8.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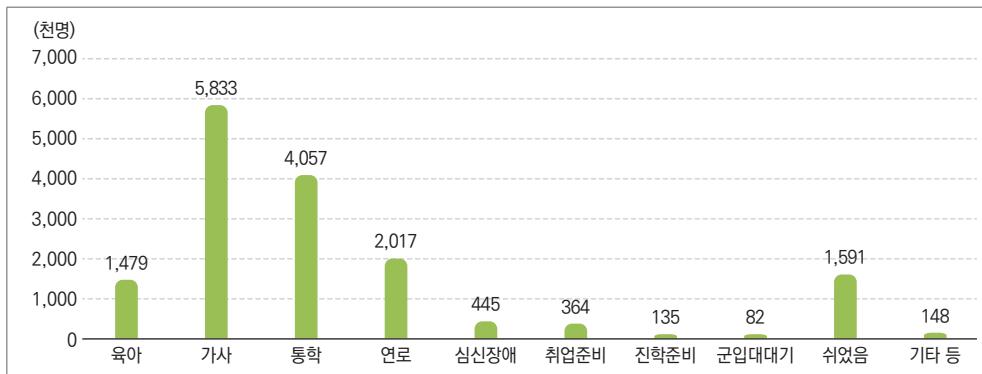
	'10	'11	'12	'13	'14	'15. 상
전국	15,841	15,953	16,081	16,223	15,977	16,152
서울특별시	3,205	3,147	3,184	3,213	3,132	3,193
부산광역시	1,268	1,262	1,232	1,236	1,224	1,225
대구광역시	832	845	825	837	817	805
인천광역시	834	829	827	859	866	877
광주광역시	478	492	514	513	498	509
대전광역시	504	505	509	517	496	490
울산광역시	361	363	362	372	382	381
경기도	3,706	3,829	3,826	3,816	3,717	3,718
강원도	504	508	512	533	525	531
충청북도	482	487	513	506	476	493
충청남도	610	618	637	641	657	679
전라북도	592	587	612	614	620	628
전라남도	521	524	529	548	555	563
경상북도	779	798	808	816	800	829
경상남도	1,018	1,013	1,048	1,050	1,061	1,079
제주도	149	146	146	152	152	15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 사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로 가사와 통학이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타난다. 반면, 비중은 높지 않으나 연로, 쉬었음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육아와 심신장애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천명, %)

	합계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 등
'10	15,841 (100.0)	1,474 (9.3)	5,753 (36.3)	4,305 (27.2)	1,686 (10.6)	441 (2.8)	2,184	359	178 (1.1)	55 (0.3)	1,418 (9.0)	173 (1.1)
'11	15,953 (100.0)	1,469 (9.2)	5,854 (36.7)	4,254 (26.7)	1,641 (10.3)	415 (2.6)	2,321	346	173 (1.1)	56 (0.3)	1,600 (10.0)	147 (0.9)
'12	16,081 (100.0)	1,467 (9.1)	5,977 (37.2)	4,242 (26.4)	1,788 (11.1)	393 (2.4)	2,215	368	142 (2.3)	59 (0.9)	1,547 (9.6)	99 (0.6)
'13	16,223 (100.0)	1,469 (9.1)	5,973 (36.8)	4,319 (26.6)	1,842 (11.4)	403 (2.5)	2,216	383	137 (2.4)	59 (0.8)	1,540 (9.5)	98 (0.6)
'14	15,977 (100.0)	1,429 (8.9)	5,843 (36.6)	4,238 (26.5)	1,935 (12.1)	424 (2.7)	2,108	371	119 (2.3)	68 (0.7)	1,448 (9.1)	102 (0.6)
'15.상	16,152 (100.0)	1,479 (9.2)	5,833 (36.1)	4,057 (25.1)	2,017 (12.5)	445 (2.8)	2,321	364	135 (2.3)	82 (0.8)	1,591 (9.9)	148 (0.9)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중

IV.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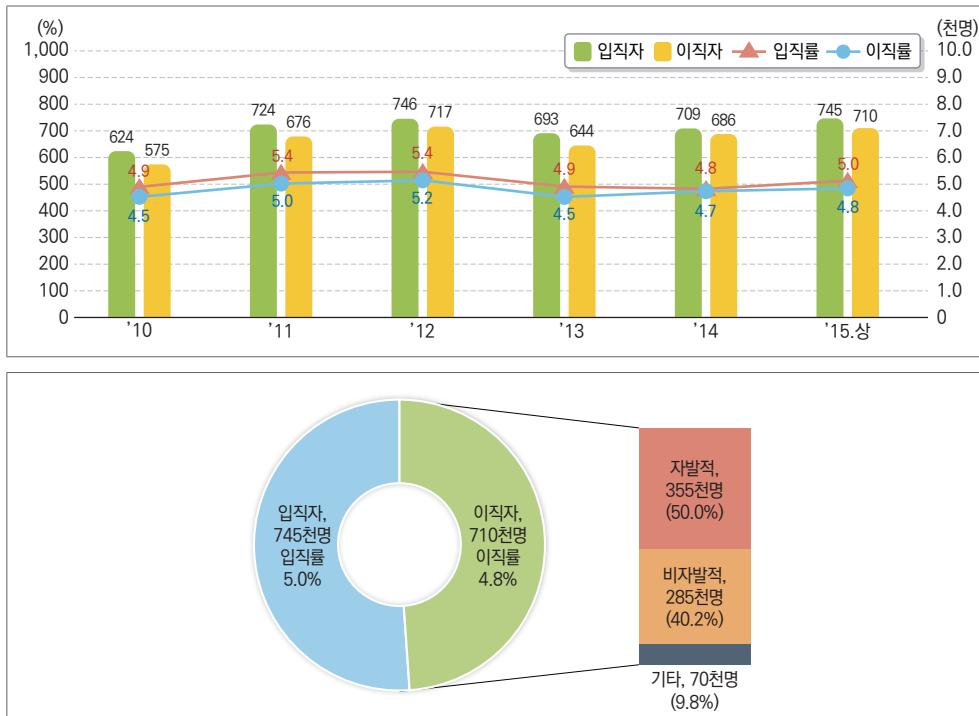
1. 입·이직 현황

● 입·이직 및 자발성 여부

'15년 상반기 월평균 노동이동을 보면, 입직자는 745천명, 이직자는 710천명으로 입직자가 소폭 많다. 또한,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12년까지 입·이직이 증가하다 '13년 잠시 주춤하였고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입·이직 현황〉



	'10	'11	'12	'13	'14p	'15.상반기p
입직자	624 (4.9)	724 (5.4)	746 (5.4)	693 (4.9)	709 (4.8)	745 (5.0)
이직자	575 (4.5)	676 (5.0)	717 (5.2)	644 (4.5)	686 (4.7)	710 (4.8)
자발적	291 [50.5]	318 [47.0]	310 [43.3]	315 [49.0]	354 [51.5]	355 [50.0]
비자발적	241 [42.0]	309 [45.7]	356 [49.6]	277 [43.0]	276 [40.3]	285 [40.2]
기타	43 [7.5]	49 [7.3]	51 [7.1]	52 [8.1]	56 [8.2]	70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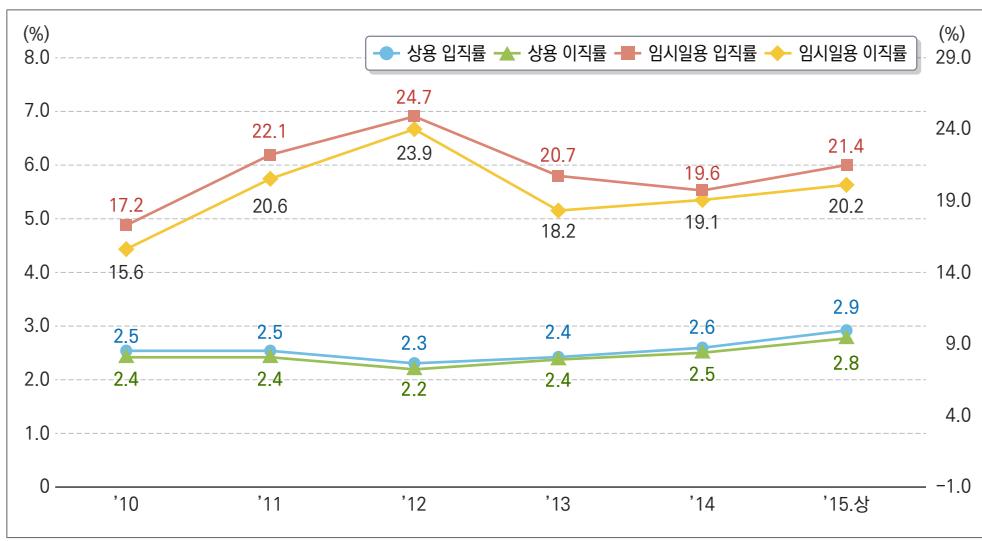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p 잠정치

●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의 입·이직률은 2%대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입·이직률은 20% 수준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60%를 넘는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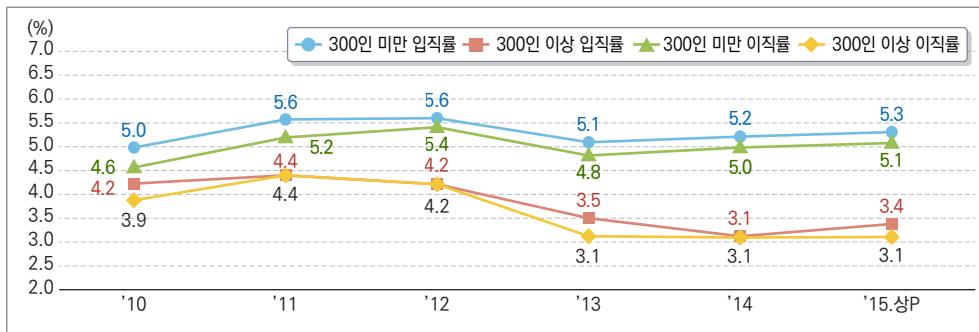
		(단위: 천명, %)					
		'10	'11	'12	'13	'14p	'15.상반기p
상용	입직	275 (2.5)	290 (2.5)	275 (2.3)	292 (2.4)	337 (2.6)	377 (2.9)
	이직	259 (2.4)	271 (2.4)	260 (2.2)	291 (2.4)	323 (2.5)	362 (2.8)
	자발적	189 [73.0]	192 [71.1]	184 [70.6]	192 [65.9]	214 [66.3]	232 [64.0]
	비자발적	41 [15.7]	38 [14.1]	36 [13.7]	55 [19.0]	61 [19.0]	72 [19.9]
	기타	29 [11.3]	40 [14.8]	41 [15.7]	44 [15.0]	47 [14.7]	58 [16.1]
임시 일용	입직	349 (17.2)	435 (22.1)	471 (24.7)	401 (20.7)	372 (19.6)	369 (21.4)
	이직	316 (15.6)	405 (20.6)	457 (23.9)	353 (18.2)	364 (19.1)	348 (20.2)
	자발적	102 [32.1]	126 [31.0]	127 [27.7]	123 [34.9]	140 [38.4]	123 [35.4]
	비자발적	201 [63.5]	271 [66.7]	320 [70.1]	221 [62.8]	215 [59.1]	213 [61.3]
	기타	14 [4.4]	9 [2.3]	10 [2.3]	8 [2.3]	9 [2.5]	11 [3.3]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p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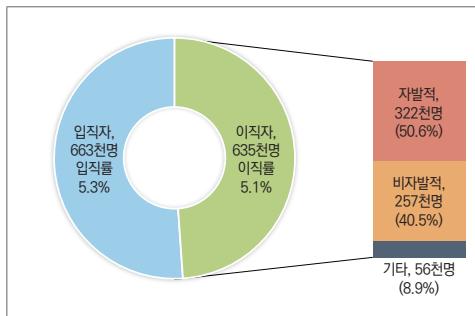
● 규모별 입·이직

입·이직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15년 상반기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입·이직률은 5%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대로 나타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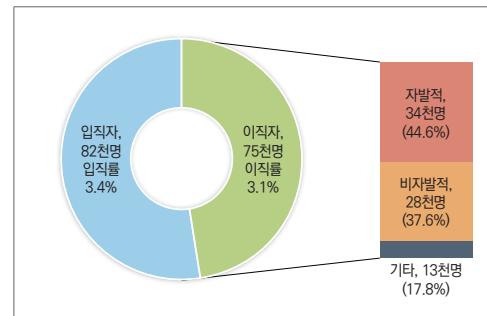
〈규모별 입·이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단위: 천명, %)

		'10	'11	'12	'13	'14p	'15.상반기p
300인 미만	입직	530(5.0)	624(5.6)	649(5.6)	611(5.1)	633(5.2)	663(5.3)
	이직	487(4.6)	577(5.2)	620(5.4)	572(4.8)	613(5.0)	635(5.1)
	자발적	264[54.1]	288[49.8]	279[45.0]	284[49.7]	321[52.4]	322[50.6]
	비자발적	189[38.8]	250[43.3]	299[48.2]	247[43.2]	248[40.4]	257[40.5]
	기타	35[7.1]	39[6.8]	42[6.7]	41[7.1]	44[7.2]	56[8.9]
300인 이상	입직	94(4.2)	101(4.4)	97(4.2)	82(3.5)	76(3.1)	82(3.4)
	이직	88(3.9)	99(4.4)	97(4.2)	73(3.1)	74(3.1)	75(3.1)
	자발적	27[30.8]	30[30.7]	31[31.9]	31[43.2]	33[44.5]	34[44.6]
	비자발적	52[59.6]	59[59.2]	57[58.3]	30[41.4]	29[39.0]	28[37.6]
	기타	8[9.6]	10[10.2]	10[9.8]	11[15.4]	12[16.5]	13[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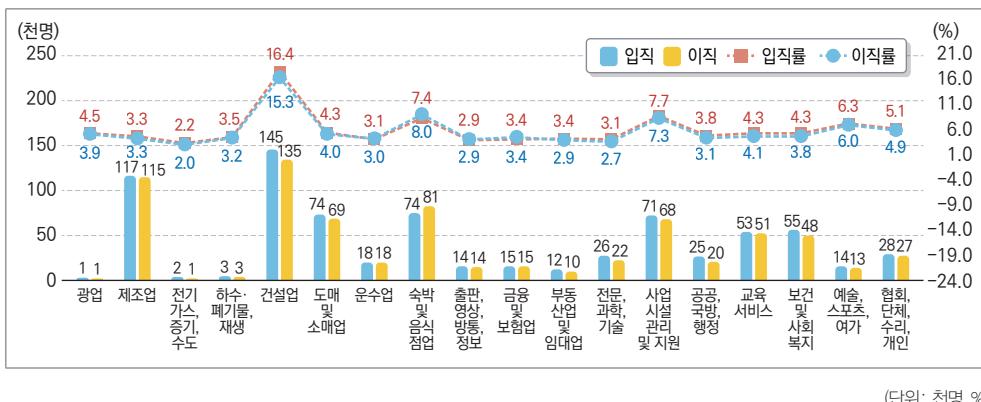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p 잠정치

● 업종별 입·이직

노동이동이 빈번한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15년 상반기 두 업종 모두 10만명을 상회하는 입·이직자가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자수가 적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직자의 자발성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이 자발적 이직이 많은 반면, 건설업은 비자발적 이직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입·이직〉



(단위: 천명, %)

업종	입직	이직	이직률 (%)	
			자발적	비자발적
전업종	745 (5.0)	710 (4.8)	355 [50.0]	285 [40.2]
광업	1 (4.5)	1 (3.9)	0 [42.1]	0 [53.4]
제조업	117 (3.3)	115 (3.3)	75 [65.0]	32 [27.7]
전기, 가스, 증기, 수도	2 (2.2)	1 (2.0)	0 [8.5]	0 [12.0]
하수·폐기물, 재생	3 (3.5)	3 (3.2)	1 [45.2]	1 [43.4]
건설업	145 (16.4)	135 (15.3)	28 [20.6]	104 [77.2]
도매 및 소매업	74 (4.3)	69 (4.0)	46 [66.5]	17 [25.1]
운수업	18 (3.1)	18 (3.0)	10 [58.9]	5 [28.7]
숙박 및 음식점업	74 (7.4)	81 (8.0)	59 [72.7]	19 [23.2]
출판, 영상, 방송, 정보	14 (2.9)	14 (2.9)	9 [63.4]	3 [22.4]
금융 및 보험업	15 (3.4)	15 (3.4)	3 [22.1]	5 [3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3.4)	10 (2.9)	6 [56.6]	4 [36.1]
전문, 과학, 기술	26 (3.1)	22 (2.7)	12 [56.0]	7 [29.5]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71 (7.7)	68 (7.3)	38 [56.0]	28 [41.9]
공공, 국방, 행정	25 (3.8)	20 (3.1)	2 [11.7]	6 [30.8]
교육 서비스	53 (4.3)	51 (4.1)	12 [24.7]	27 [52.9]
보건 및 사회복지	55 (4.3)	48 (3.8)	32 [65.7]	11 [22.1]
예술, 스포츠, 여가	14 (6.3)	13 (6.0)	6 [45.9]	6 [45.7]
협회, 단체, 수리, 개인	28 (5.1)	27 (4.9)	15 [56.6]	10 [37.3]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p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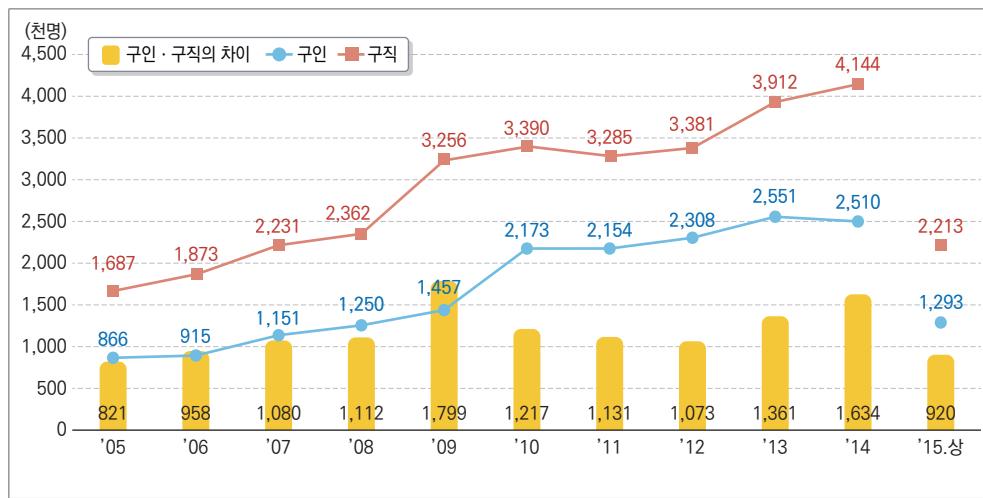
2. 구인·구직 현황

● 구인 · 구직 추이

연간 구인자 대비 구직자의 배율은 '09년 이전에는 2배 수준이었으나 최근 축소되어 1.7배로 구직자가 구인자에 비해 약 7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차이는 '09년 금융위기 시 가장 커졌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다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인·구직〉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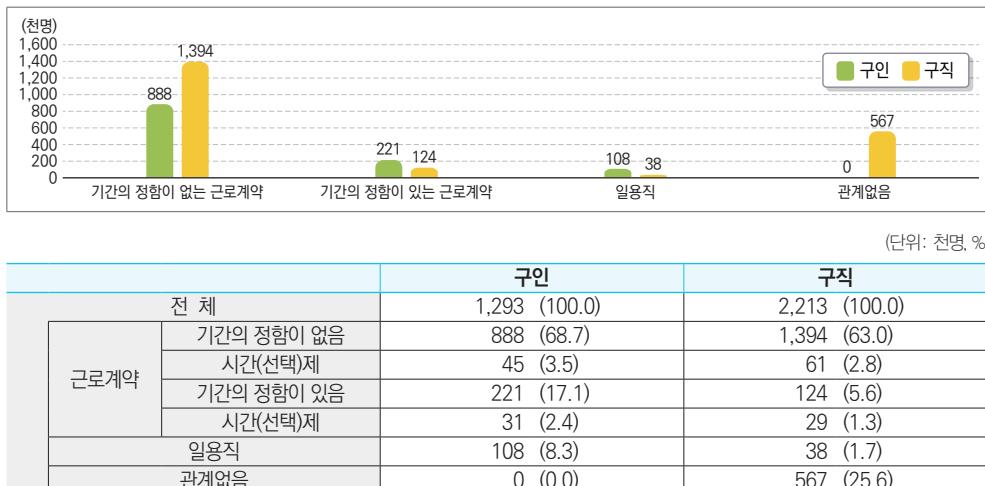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반기
구인	866	915	1,151	1,250	1,457	2,173	2,154	2,308	2,551	2,510	1,293
구직	1,687	1,873	2,231	2,362	3,256	3,390	3,285	3,381	3,912	4,144	2,213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DB, () 구인자 대비 구직자 배율

● 구인·구직 유형

'15년 상반기를 보면, 구인·구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구직자의 경우에는 기간 정함 유무와 관계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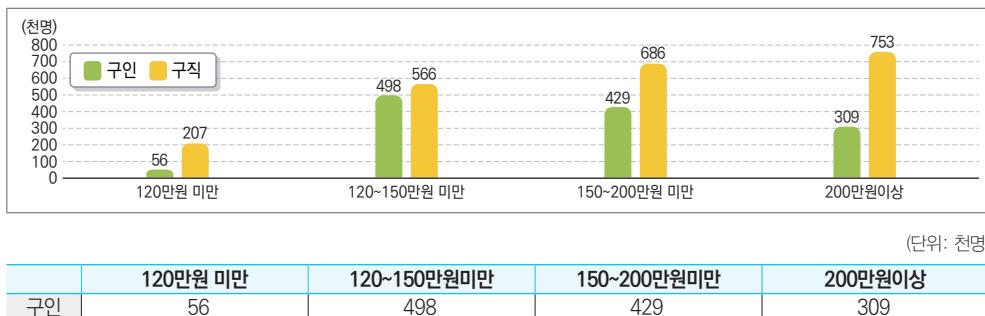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비중

● 구인·구직자의 희망 임금

'15년 상반기 구인의 경우는 희망 임금 수준이 120~1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나, 구직자의 경우는 2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많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임금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인·구직자 희망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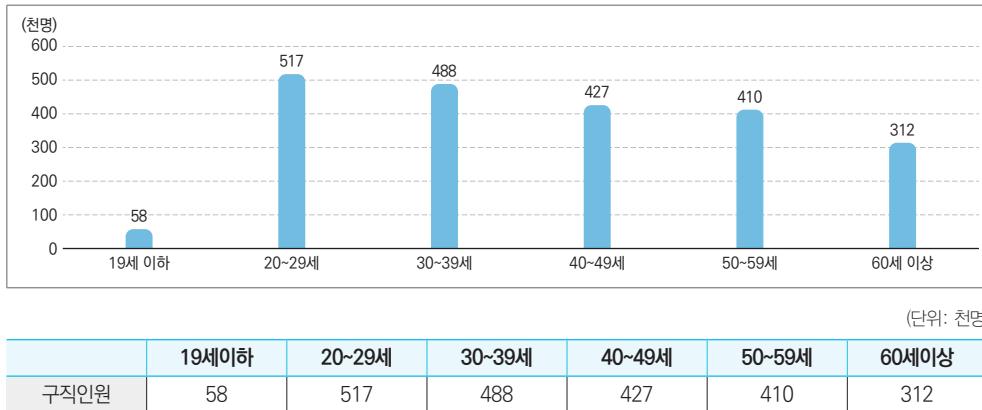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연령별 구직인원

'15년 상반기 연령별로 구직인원은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이하도 5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직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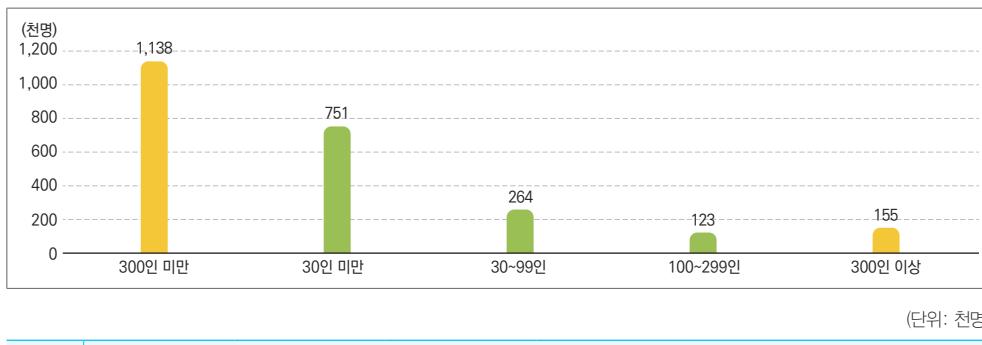


자료 1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규모별 구인인원

'15년 상반기 사업체 규모별 구인인원은 300인 이상 규모보다 300인 미만 규모가 많았으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규모별 구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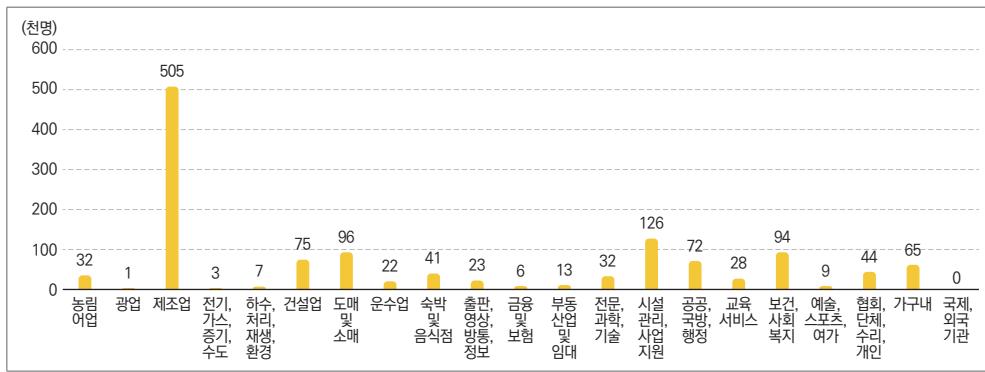


자료 1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업종별 구인인원

'15년 상반기 업종별 구인인원은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사회복지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구인인원〉



(단위: 천명)

업종	구인인원	업종	구인인원
농림어업	32	부동산업 및 임대	13
광업	1	전문, 과학, 기술	32
제조업	505	시설관리, 사업지원	126
전기, 가스, 증기, 수도	3	공공, 국방, 행정	72
하수, 처리, 재생, 환경	7	교육서비스	28
건설업	75	보건, 사회복지	94
도매 및 소매	96	예술, 스포츠, 여가	9
운수업	22	협회, 단체, 수리, 개인	44
숙박 및 음식점	41	기구내	65
출판, 영상, 방송, 정보	23	국제, 외국기관	0
금융 및 보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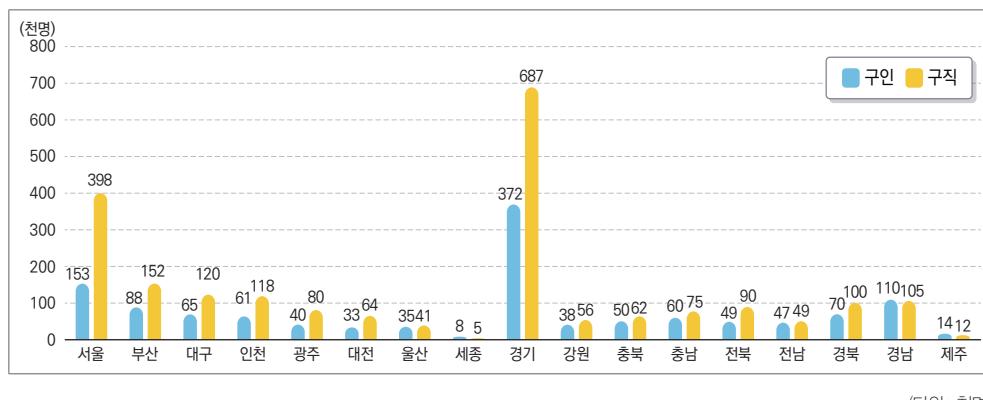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지역별 구인 · 구직

‘15년 상반기 지역별로는 구인·구직 모두 서울, 경기 지역이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 대비 구직자의 배율은 대체로 특·광역시 지역이 높고 도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인천·광주·대전이 특별히 높다. 한편 세종·경남·제주는 오히려 구직보다 구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인·구직〉



(단위: 천명)

	구인	구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	153	398	(2.6)	173	225
부산	88	152	(1.7)	72	80
대구	65	120	(1.9)	54	66
인천	61	118	(2.0)	53	66
광주	40	80	(2.0)	35	45
대전	33	64	(2.0)	27	37
울산	35	41	(1.2)	19	21
세종	8	5	(0.6)	2	3
경기	372	687	(1.8)	299	387
강원	38	56	(1.5)	26	29
충북	50	62	(1.2)	27	35
충남	60	75	(1.2)	34	41
전북	49	90	(1.8)	40	50
전남	47	49	(1.1)	21	29
경북	70	100	(1.4)	47	53
경남	110	105	(1.0)	48	57
제주	14	12	(0.8)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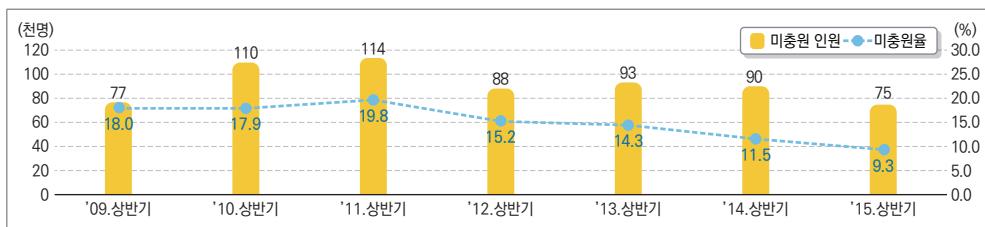
자료 1 고용노동부 워크넷DB(‘15년 상반기), () 구인자 대비 구직자 배율

3. 미충원 인원

● 미충원 인원 추이

3개월간 구인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의 추이는 '12년 감소한 후 횡보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한 상태이고, 미충원율은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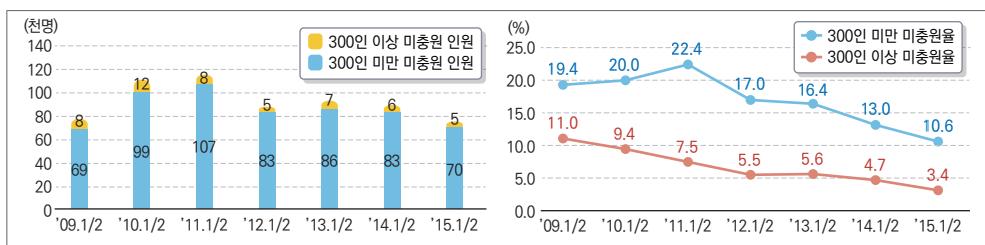
	'09.상반기	'10.상반기	'11.상반기	'12.상반기	'13.상반기	'14.상반기	'15.상반기
미충원인원	77	110	114	88	93	90	75
미충원율	18.0	17.9	19.8	15.2	14.3	11.5	9.3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규모별 미충원 인원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이 훨씬 높은데, 연도별로는 미충원율이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10년과 '15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300인 미만에서는 10명 중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300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에서 0.3명으로 줄었다.

〈규모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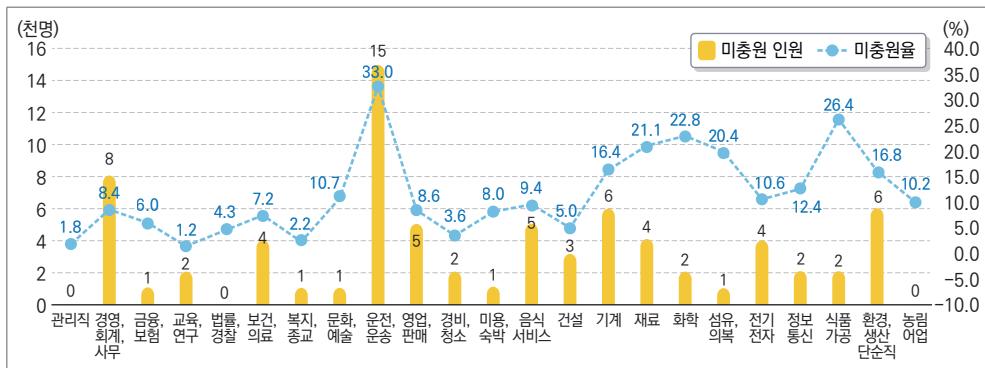
연기	규모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300인 미만 미충원 인원	300인 미만 미충원율 (%)	300인 이상 미충원 인원	300인 이상 미충원율 (%)	300인 미만 미충원 인원	300인 미만 미충원율 (%)	300인 이상 미충원 인원	300인 이상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	300인 미만	69	99	107	83	86	83	70
	300인 이상	8	12	8	5	7	6	5
미충원율	300인 미만	19.4	20.0	22.4	17.0	16.4	13.0	10.6
	300인 이상	11.0	9.4	7.5	5.5	5.6	4.7	3.4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직종별 미충원 인원

'15년 상반기 운전·운송관련직이 10명중 3명을 충원하지 못했고, 관리직, 교육·연구, 복지·종교, 경비·청소 등의 직종은 미충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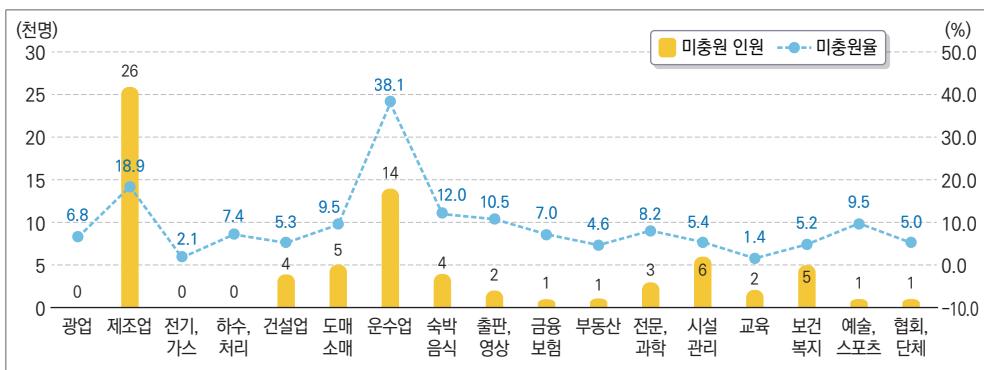
전 직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75	70	5	9.3
관리직	0	0	0	1.8
경영, 회계, 사무	8	7	1	8.4
금융, 보험	1	1	0	6.0
교육, 연구	2	1	0	1.2
법률, 경찰, 소방, 교도	0	0	0	4.3
보건, 의료	4	3	1	7.2
복지, 종교	1	1	0	2.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1	1	0	10.7
운전, 운송	15	15	1	33.0
영업, 판매	5	4	1	8.6
경비, 청소	2	2	0	3.6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	1	0	8.0
음식서비스	5	4	0	9.4
건설	3	3	0	5.0
기계	6	6	0	16.4
재료	4	4	0	21.1
화학	2	2	0	22.8
섬유, 의복	1	1	0	20.4
전기전자	4	3	0	10.6
정보통신	2	2	0	12.4
식품가공	2	2	0	26.4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6	6	0	16.8
농림어업	0	0	0	10.2
			11.3	1.1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업종별 미충원 인원

'15년 상반기 운수업은 10명중 4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구인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미충원율이 1~2%수준으로 나타나 구인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전 업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업종	75	70	5	9.3
광업	0	0	0	6.8
제조업	26	26	1	18.9
전기, 가스, 증기, 수도	0	0	0	2.1
하수, 처리, 재생, 환경	0	0	7.4	7.4
건설업	4	4	0	5.3
도매 및 소매	5	5	0	9.5
운수업	14	14	1	38.1
숙박 및 음식점	4	4	0	12.0
출판, 영상, 방송, 정보	2	2	0	10.5
금융 및 보험	1	1	0	7.0
부동산업 및 임대	1	1	0	4.6
전문, 과학, 기술	3	3	0	8.2
시설관리, 사업지원	6	4	2	5.4
교육서비스	2	2	0	1.4
보건, 사회복지	5	4	1	5.2
예술, 스포츠, 여가	1	1	0	9.5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	1	0	5.0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 지역별 미충원 인원

'15년 상반기 서울·경기·경남 등에서 미충원 인원이 많았으며, 미충원율은 경남·경북·제주 등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전국	75	9.3	강원	1	4.8
서울	15	6.9	충북	3	11.9
부산	6	12.5	충남	3	8.0
대구	3	10.8	전북	1	3.8
인천	2	6.1	전남	3	10.6
광주	2	7.0	경북	5	14.1
대전	2	9.2	경남	8	16.1
울산	2	10.9	제주	1	13.5
경기	17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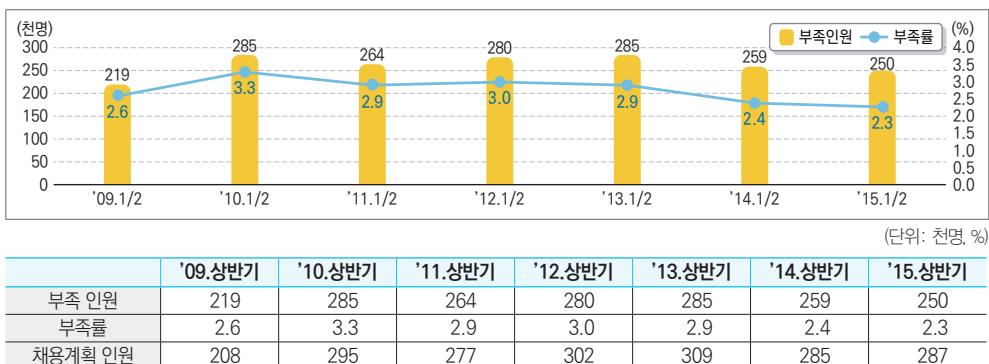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추이

사업체에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현재 인원보다 더 필요한 인원(부족 인원)은 '10년 상반기부터 횡보수준을 보이다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력부족률은 '10년 상반기 3.3%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15년 상반기 2.3%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취업자 및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력부족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족 인원 및 부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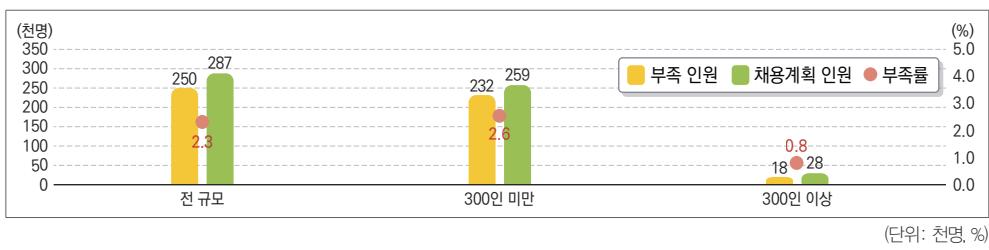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규모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5년 상반기 부족 인원·부족률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족률은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의 3.3배이다. 향후 6개월간의 채용계획 인원도 300인 미만이 259천명으로 300인 이상(28천명)의 9배 수준이다.

〈규모별 부족 인원,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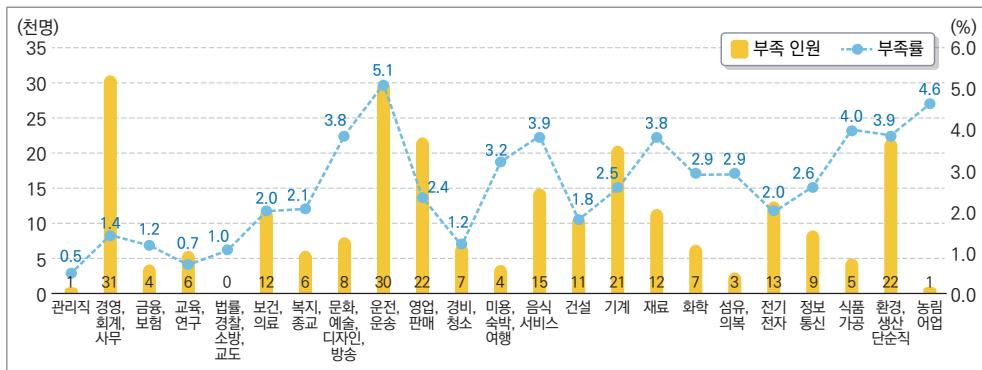
	전 규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부족 인원	250	232	18
부족률	2.3	2.6	0.8
채용계획 인원	287	259	28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직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5년 상반기 부족 인원은 경영·회계·사무직, 운전·운송관련직이 많은 반면, 부족률은 운전·운송관련직(5.1%), 농림어업(4.6%), 식품가공(4.0%)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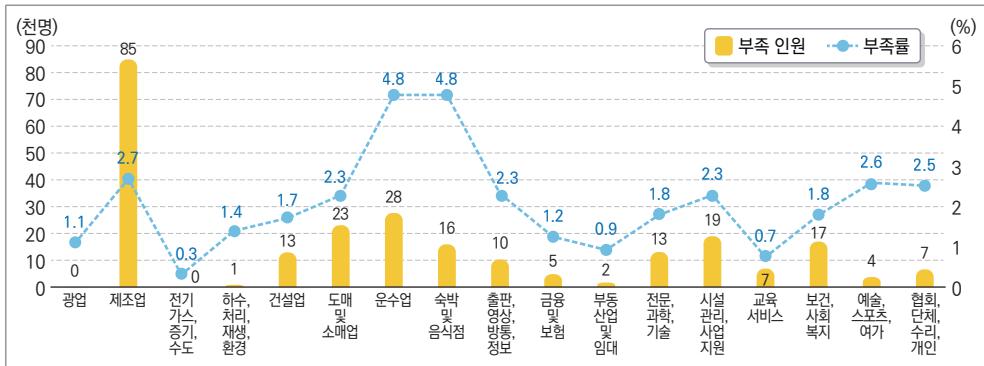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250	232	18	2.3	2.6	0.8	287	259	28
관리직	1	1	0	0.5	0.6	0.2	1	1	0
경영, 회계, 사무	31	28	4	1.4	1.5	0.9	34	29	5
금융, 보험	4	3	1	1.2	1.1	1.9	4	3	1
교육, 연구	6	6	0	0.7	0.8	0.3	23	17	6
법률, 경찰, 소방, 교도	0	0	0	1.0	1.1	0.9	0	0	0
보건, 의료	12	11	2	2.0	2.4	0.9	14	11	2
복지, 종교	6	6	0	2.1	2.1	0.2	6	6	0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8	7	0	3.8	4.3	1.0	7	7	0
운전, 운송	30	28	2	5.1	5.4	2.5	30	28	2
영업, 판매	22	20	1	2.4	2.6	1.1	23	21	2
경비, 청소	7	5	1	1.2	1.3	0.9	8	6	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4	4	1	3.2	3.5	1.9	4	4	1
음식서비스	15	15	0	3.9	4.1	1.9	17	16	1
건설	11	11	0	1.8	1.9	0.7	18	18	0
기계	21	20	1	2.5	3.5	0.4	21	20	1
재료	12	12	0	3.8	4.7	0.3	13	13	0
화학	7	6	0	2.9	3.6	0.7	7	6	0
섬유, 의복	3	3	0	2.9	3.1	0.4	3	3	0
전기전자	13	12	1	2.0	2.9	0.5	14	12	2
정보통신	9	8	1	2.6	3.3	0.8	10	9	1
식품가공	5	5	0	4.0	4.4	1.3	6	5	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및 생산단순직	22	21	1	3.9	4.3	1.5	23	22	1
농림어업	1	1	0	4.6	4.8	1.8	1	1	0

자료 1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 업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5년 상반기 부족 인원은 제조업이 뚜렷하게 많고, 그 다음이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다. 부족률은 운수업(4.8%), 숙박음식업(4.8%) 등이 뚜렷하게 높고 제조업은 2.7%로 나타났다.

〈업종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



(단위: 천명, %)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업종	250	232	18	2.3	2.6
광업	0	0	0	1.1	1.4
제조업	85	82	3	2.7	3.4
전기, 가스, 증기, 수도	0	0	0	0.3	0.4
하수, 처리, 재생, 환경	1	1	0	1.4	1.4
건설업	13	13	0	1.7	1.8
도매 및 소매	23	23	1	2.3	2.4
운수업	28	26	2	4.8	5.2
숙박 및 음식점	16	15	0	4.8	5.0
출판, 영상, 방송, 정보	10	9	1	2.3	2.8
금융 및 보험	5	4	1	1.2	1.1
부동산업 및 임대	2	2	0	0.9	0.9
전문, 과학, 기술	13	10	3	1.8	2.1
시설 관리, 사업지원	19	14	5	2.3	2.7
교육 서비스	7	7	1	0.7	0.8
보건, 사회복지	17	16	2	1.8	2.1
예술, 스포츠, 여가	4	3	0	2.6	2.7
협회, 단체, 수리, 개인	7	7	0	2.5	2.5

자료 1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 지역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15년 상반기 부족 인원은 서울·경기·경남 지역이 많은 반면, 부족률은 제주(3.6%), 경남(2.8%), 경기(2.5%), 대구(2.5%)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충북, 충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6개월간의 채용계획 인원은 서울·경기 지역이 뚜렷하게 많아 전체 채용계획 인원(287천명)의 46.3%(133천명)를 차지했다.

〈지역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



(단위: 천명, %)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전국	250	2.3	287	강원	6	2.3	12
서울	62	2.1	66	충북	6	1.9	7
부산	13	1.9	17	충남	9	1.8	10
대구	11	2.5	12	전북	6	2.0	13
인천	11	2.1	11	전남	7	2.4	8
광주	6	2.1	6	경북	12	2.1	20
대전	6	2.0	6	경남	21	2.8	22
울산	7	2.1	7	제주	4	3.6	4
경기	63	2.5	67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5년 상반기)

V. 직업훈련 2)

1. 직업훈련 현황

● 훈련별 성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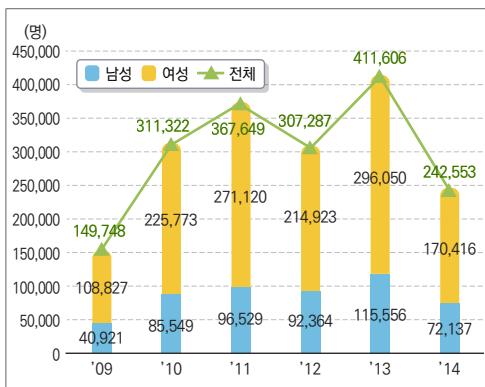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14년도 실시인원은 41,141명이며, 남성 30,241명, 여성 10,900명으로 남성이 약 3배 정도 많다. 연도별로는 '09년 대비 '10년에 감소한 후 '14년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14년도 실시인원은 242,553명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으며, '0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4년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

〈성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성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실시인원	전체	17,042 (100.0)	14,026 (100.0)	25,169 (100.0)	28,878 (100.0)	38,070 (100.0)	41,141 (100.0)
	남성	13,005 (76.3)	10,431 (74.4)	19,172 (76.2)	22,513 (78.0)	28,305 (74.3)	30,241 (73.5)
	여성	4,037 (23.7)	3,595 (25.6)	5,997 (23.8)	6,365 (22.0)	9,765 (25.7)	10,900 (26.5)
내일배움 카드제 실시인원	전체	149,748 (100.0)	311,322 (100.0)	367,649 (100.0)	307,287 (100.0)	411,606 (100.0)	242,553 (100.0)
	남성	40,921 (27.3)	85,549 (27.5)	96,529 (26.3)	92,364 (30.1)	115,556 (28.1)	72,137 (29.7)
	여성	108,827 (72.7)	225,773 (72.5)	271,120 (73.7)	214,923 (69.9)	296,050 (71.9)	170,416 (70.3)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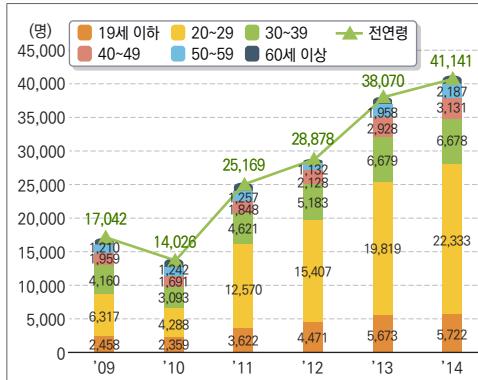
2) 여기에서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제시함

● 훈련별 연령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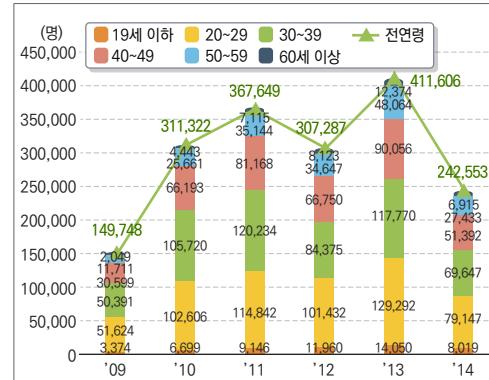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20대가 가장 많으며, 또한 20대의 비중이 '09년 37.1%에서 '14년 54.3%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한편, 30대 이상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20대와 30대의 참여 비중이 높다. 특히 20대는 약 31~34% 정도의 참여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30대 비중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50대 이상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연령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연령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실시 인원	전연령	17,042(100.0)	14,026(100.0)	25,169(100.0)	28,878(100.0)	38,070(100.0)	41,141(100.0)
	19세이하	2,458(14.4)	2,359(16.8)	3,622(14.4)	4,471(15.5)	5,673(14.9)	5,722(13.9)
	20~29	6,317(37.1)	4,288(30.6)	12,570(49.9)	15,407(53.4)	19,819(52.1)	22,333(54.3)
	30~39	4,160(24.4)	3,093(22.1)	4,621(18.4)	5,183(17.9)	6,679(17.5)	6,678(16.2)
	40~49	1,959(11.5)	1,691(12.1)	1,848(7.3)	2,128(7.4)	2,928(7.7)	3,131(7.6)
	50~59	1,210(7.1)	1,242(8.9)	1,257(5.0)	1,132(3.9)	1,958(5.1)	2,187(5.3)
	60세이상	938(5.5)	1,353(9.6)	1,251(5.0)	557(1.9)	1,013(2.7)	1,090(2.6)
내일배움 카드제 실시인원	전연령	149,748(100.0)	311,322(100.0)	367,649(100.0)	307,287(100.0)	411,606(100.0)	242,553(100.0)
	19세이하	3,374(2.3)	6,699(2.2)	9,146(2.5)	11,960(3.9)	14,050(3.4)	8,019(3.3)
	20~29	51,624(34.5)	102,606(33.0)	114,842(31.2)	101,432(33.0)	129,292(31.4)	79,147(32.6)
	30~39	50,391(33.7)	105,720(34.0)	120,234(32.7)	84,375(27.5)	117,770(28.6)	69,647(28.7)
	40~49	30,599(20.4)	66,193(21.3)	81,168(22.1)	66,750(21.7)	90,056(21.9)	51,392(21.2)
	50~59	11,711(7.8)	25,661(8.2)	35,144(9.6)	34,647(11.3)	48,064(11.7)	27,433(11.3)
	60세이상	2,049(1.4)	4,443(1.4)	7,115(1.9)	8,123(2.6)	12,374(3.0)	6,91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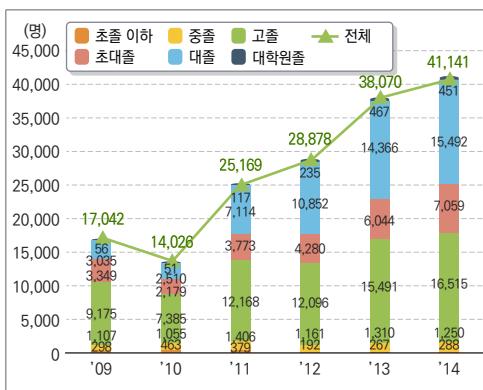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증감률

● 훈련별 학력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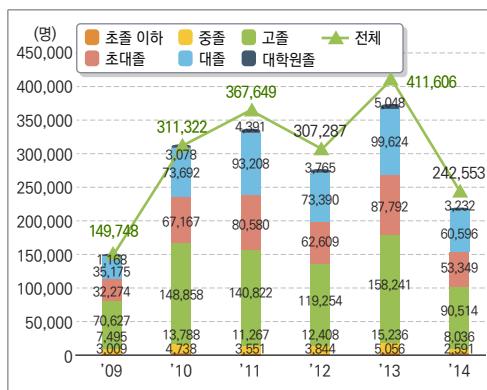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고졸과 대졸의 비중이 높은데, 고졸의 비중은 감소 추세, 대졸의 비중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연도별로 학력별 실시인원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학력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학력별 내일배움카드제훈련 실시인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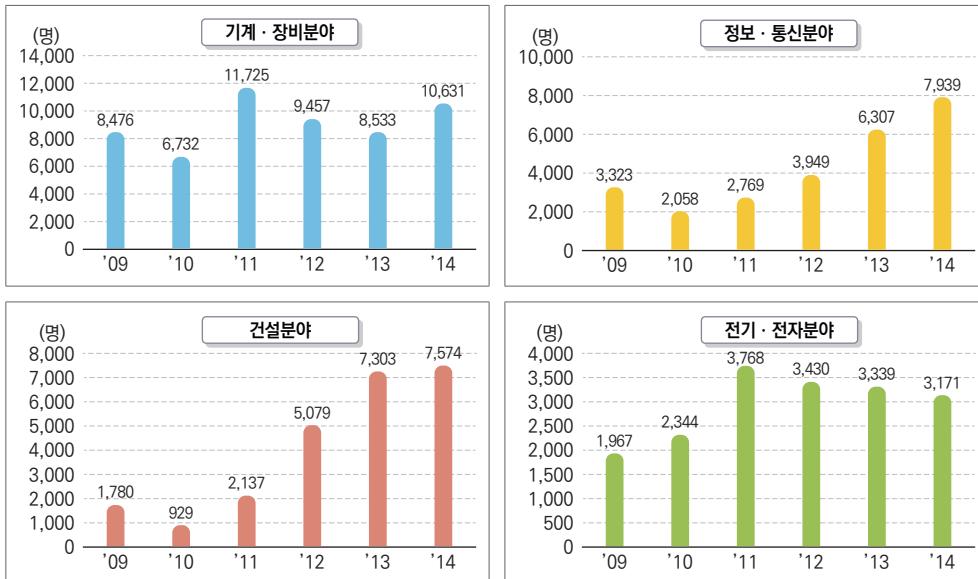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	전체	17,042(100.0)	14,026(100.0)	25,169(100.0)	28,878(100.0)	38,070(100.0)	41,141(100.0)
	초졸	298(1.7)	463(3.3)	379(1.5)	192(0.7)	267(0.7)	288(0.7)
	중졸	1,107(6.5)	1,055(7.5)	1,406(5.6)	1,161(4.0)	1,310(3.4)	1,250(3.0)
	고졸	9,175(53.5)	7,385(52.7)	12,168(48.3)	12,096(41.9)	15,491(40.7)	16,515(40.1)
	초대졸	3,349(19.7)	2,179(15.5)	3,773(15.0)	4,280(14.8)	6,044(15.9)	7,059(17.2)
	대졸	3,035(17.8)	2,510(17.9)	7,114(28.3)	10,852(37.6)	14,366(37.7)	15,492(37.7)
	대학원졸	56(0.3)	51(0.4)	117(0.5)	235(0.8)	467(1.2)	451(1.1)
내일배움 카드제 실시인원	전체	149,748(100.0)	311,322(100.0)	367,649(100.0)	307,287(100.0)	411,606(100.0)	242,553(100.0)
	초졸	3,009(2.0)	4,738(1.5)	3,551(1.0)	3,844(1.3)	5,056(1.2)	2,591(1.1)
	중졸	7,495(5.0)	13,788(4.4)	11,267(3.1)	12,408(4.0)	15,236(3.7)	8,036(3.3)
	고졸	70,627(47.2)	148,858(47.8)	140,822(38.3)	119,254(38.8)	158,241(38.4)	90,514(37.3)
	초대졸	32,274(21.6)	67,167(21.6)	80,580(21.9)	62,609(20.4)	87,792(21.3)	53,349(22.0)
	대졸	35,175(23.5)	73,692(23.7)	93,208(25.4)	73,390(23.9)	99,624(24.2)	60,596(25.0)
	대학원졸	1,168(0.8)	3,078(1.0)	4,391(1.2)	3,765(1.2)	5,048(1.2)	3,232(1.3)
	결측	(0.0)	1(0.0)	33,830(9.2)	32,017(10.4)	40,609(9.9)	24,235(10.0)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증감률

● 훈련별 직종별 직업훈련

14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은 기계·장비 분야, 정보·통신 분야, 건설 분야, 전기·전자 분야가 가장 많으며, 정보·통신 분야와 건설 분야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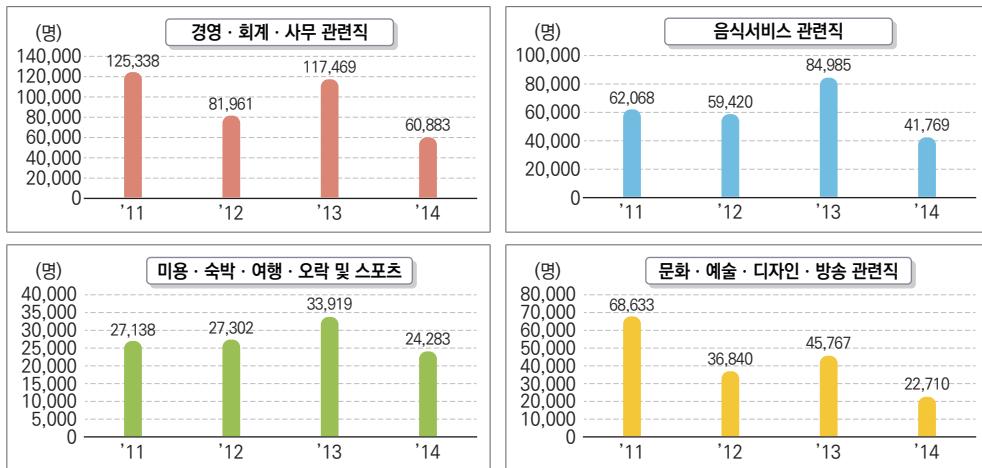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직종	17,042(100.0)	14,026(100.0)	25,169(100.0)	28,878(100.0)	38,070(100.2)	41,141(100.0)
섬유분야	100(0.6)	190(1.4)	490(1.9)	428(1.5)	224(0.6)	838(2.0)
금속분야	263(1.5)	196(1.4)	128(0.5)	102(0.4)	1,925(5.1)	1,959(4.8)
기계·장비분야	8,476(49.7)	6,732(48.0)	11,725(46.6)	9,457(32.7)	8,533(22.4)	10,631(25.8)
건설분야	1,780(10.4)	929(6.6)	2,137(8.5)	5,079(17.6)	7,303(19.2)	7,574(18.4)
전기·전자분야	1,967(11.5)	2,344(16.7)	3,768(15.0)	3,430(11.9)	3,339(8.8)	3,171(7.7)
정보·통신분야	3,323(19.5)	2,058(14.7)	2,769(11.0)	3,949(13.7)	6,307(16.6)	7,939(19.3)
운송장비제조		222(1.6)	232(0.9)	408(1.4)	177(0.5)	
산업응용분야	568(3.3)	761(5.4)	3,030(12.0)	4,649(16.1)	7,644(20.1)	5,605(13.6)
공예분야	565(3.3)	594(4.2)	411(1.6)	623(2.2)	908(2.4)	1,466(3.6)
사무관리분야			71(0.3)	118(0.4)	564(1.5)	644(1.6)
의료분야				50(0.2)	100(0.3)	19(0.0)
환경분야			408(1.6)	585(2.0)	696(1.8)	825(2.0)
서비스분야					350(0.9)	420(1.0)
농림·수산분야						30(0.1)
신직업						20(0.0)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전 직종대비 비중

주) '13년부터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로만 직종별 통계가 추출되어 '12년까지의 자료를 KECO로 재분류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훈련직종→산업응용분야,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 훈련직종→서비스분야로 분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실시 인원은 경영·회계·사무, 음식서비스,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가 많다. 이 중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분야는 감소 추세이다.

〈직종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전체	367,649(100.0)	307,287(100.0)	411,606(100.0)	242,553(100.0)
관리직	100(0.0)	38(0.0)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25,338(34.1)	81,961(26.7)	117,469(28.5)	60,883(25.1)
금융·보험관련직		39(0.0)	527(0.1)	221(0.1)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1,328(0.4)	1,726(0.6)	2,432(0.6)	1,829(0.8)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55(0.0)	739(0.2)	1,759(0.4)	1,770(0.7)
보건 및 의료 관련직	12,945(3.5)	13,021(4.2)	19,839(4.8)	17,520(7.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820(2.1)	7,625(2.5)	11,037(2.7)	7,494(3.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8,633(18.7)	36,840(12.0)	45,767(11.1)	22,710(9.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378(0.9)	4,619(1.5)	5,022(1.2)	4,048(1.7)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204(0.3)	1,316(0.4)	1,787(0.4)	1,026(0.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58(0.0)	184(0.1)	141(0.0)	54(0.0)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27,138(7.4)	27,302(8.9)	33,919(8.2)	24,283(10.0)
음식서비스 관련직	62,068(16.9)	59,420(19.3)	84,985(20.6)	41,769(17.2)
건설 관련직	8,908(2.4)	13,027(4.2)	13,690(3.3)	11,824(4.9)
기계 관련직	5,165(1.4)	7,776(2.5)	9,338(2.3)	6,997(2.9)
재료 관련직	3,332(0.9)	4,670(1.5)	6,283(1.5)	4,234(1.7)
화학 관련직	377(0.1)	449(0.1)	528(0.1)	227(0.1)
섬유 및 의복 관련직	8,068(2.2)	12,223(4.0)	12,814(3.1)	6,983(2.9)
전기·전자 관련직	6,042(1.6)	5,547(1.8)	7,095(1.7)	3,949(1.6)
정보통신 관련직	9,118(2.5)	9,046(2.9)	9,207(2.2)	7,655(3.2)
식품가공 관련직	9,796(2.7)	9,732(3.2)	14,918(3.6)	9,732(4.0)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5,490(1.5)	7,395(2.4)	8,987(2.2)	5,635(2.3)
농림어업 관련직	1,088(0.3)	2,592(0.8)	4,062(1.0)	1,710(0.7)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증감률,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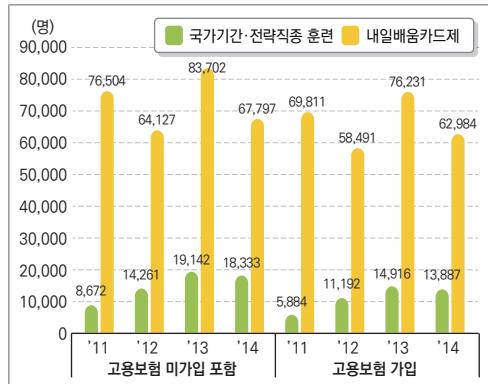
2. 수료자 취업 현황

● 훈련별 수료자 취업률(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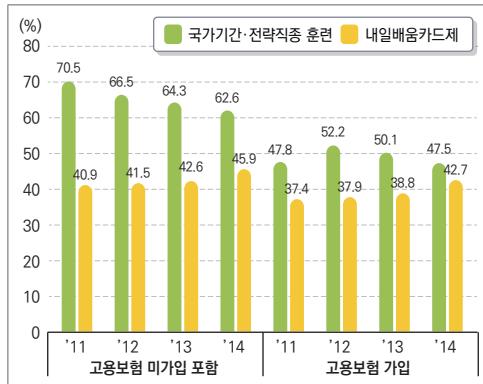
훈련 후 취업률을 고용보험 미가입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면 '14년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은 62.6%, 내일배움카드제 수료자의 취업률은 45.9%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이 높다.

다만 연도별 취업률의 변화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경우 감소세인 반면, 내일배움카드제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훈련별 수료후 취업인원〉



〈훈련별 취업률〉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	취업률	70.5	66.5	64.3	62.6
		수료후 취업인원	8,672	14,261	19,142	18,333
		수료인원	12,306	21,436	29,774	29,264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	47.8	52.2	50.1	47.5
		수료후 취업인원	5,884	11,192	14,916	13,887
		수료인원	12,306	21,436	29,774	29,264
내일배움 카드제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	취업률	40.9	41.5	42.6	45.9
		수료후 취업인원	76,504	64,127	83,702	67,797
		수료인원	186,870	154,381	196,333	147,605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	37.4	37.9	38.8	42.7
		수료후 취업인원	69,811	58,491	76,231	62,984
		수료인원	186,870	154,381	196,333	147,605

자료 1 고용노동부 HRDnet, () 전년대비 증감률, 취업률: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인원/수료인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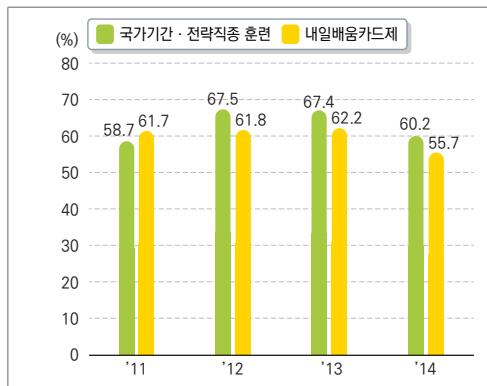
● 훈련별 취업자 고용유지(율)

'14년 기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한 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0.2%,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에는 55.7%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고용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훈련별 고용유지인원〉



〈훈련별 고용유지율〉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고용유지율	58.7	67.5	67.4	60.2
	취업인원	5,884	11,192	14,916	13,887
	고용유지인원	3,452	7,557	10,060	8,360
내일배움 카드제	고용유지율	61.7	61.8	62.2	55.7
	취업인원	69,811	58,491	76,231	62,987
	고용유지인원	43,040	36,165	47,404	35,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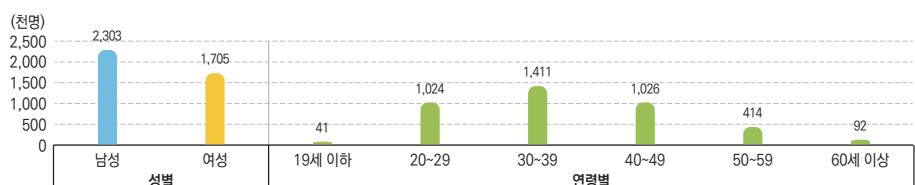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전년대비 증감률, 고용유지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 비율

▶ 재직자 훈련

‘14년 재직자 훈련*은 전체 4,007천명 참여

- 성별로는 남성 2,303천명(57.5%), 여성 1,704천명(42.5%)이 참여
- 연령별로는 30대가 1,411천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26천명(25.6%), 20대 1,024천명(25.6%)의 순

* 대상 훈련: 사업주, 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핵심직무훈련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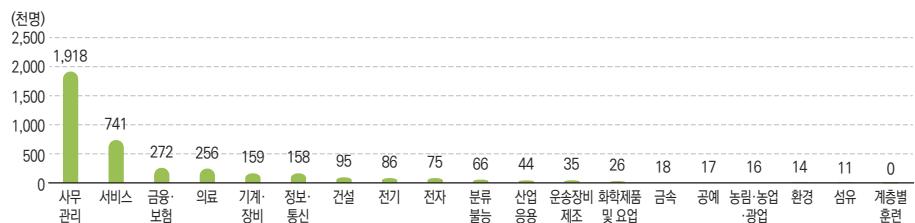


(단위: 천명, %)

	합계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재직자 훈련	4,007	2,303	1,704	41	1,024	1,411	1,026	413	92
	(100.0)	(57.5)	(42.5)	(1.0)	(25.6)	(35.2)	(25.6)	(10.3)	(2.3)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전체대비 비중

직종별로는 사무관리분야가 1,918천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741천명(18.5%)으로 두 분야가 전체의 66.4%를 차지



(단위: 천명, %)

합계	농림·농업·광업분야	섬유분야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금속분야	기계·장비분야	건설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농림·농업·광업
4,007	16	11	26	18	159	95	86	75	158
(100.0)	(0.4)	(0.3)	(0.6)	(0.4)	(4.0)	(2.4)	(2.1)	(1.9)	(3.9)
운송장비제조	산업응용분야	공예분야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금융·보험분야	의료분야	환경분야	계종별훈련분야	직종분류불가
35	44	17	741	1,918	272	256	14	0	66
(0.9)	(1.1)	(0.4)	(18.5)	(47.9)	(6.8)	(6.4)	(0.3)	(0.0)	(1.6)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 전체대비 비중

VI.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³⁾

● 명목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15년 상반기 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은 3,241천원이며, 근로시간은 170.6시간이다. 연도별로 월 평균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상반기
임금	전체	2,636(2.6)	2,816(6.8)	2,844(1.0)	2,995(5.3)	3,111(3.9)	3,190(2.5)	3,241(3.2)
	상용	2,863(2.2)	3,047(6.4)	3,019(-0.9)	3,178(5.3)	3,299(3.8)	3,378(2.4)	3,425(2.9)
	정액	2,139(4.0)	2,234(4.5)	2,341(4.8)	2,470(5.5)	2,578(4.4)	2,660(3.2)	2,722(3.0)
	초과	175(-2.2)	196(12.2)	179(-8.4)	181(1.0)	184(1.7)	201(9.3)	216(9.1)
	특별	550(-2.8)	617(12.3)	498(-19.3)	527(5.8)	537(1.8)	516(-3.7)	487(-0.1)
	임시·일용	1,073(1.9)	1,056(-1.6)	1,215(15.1)	1,293(6.4)	1,377(6.5)	1,387(0.7)	1,408(1.2)
근로시간	전체	176.1(-0.3)	176.7(0.3)	176.3(-0.2)	174.3(-1.1)	172.6(-1.0)	171.4(-0.7)	170.6(0.2)
	상용	184.4(-0.2)	184.7(0.2)	182.1(-1.4)	179.9(-1.2)	178.1(-1.0)	177.1(-0.6)	176.4(0.2)
	소정	169.3(0.2)	168.3(-0.6)	168.5(0.1)	167.2(-0.8)	165.6(-1.0)	164.1(-0.9)	163.4(0.3)
	초과	15.1(-5.0)	16.4(8.6)	13.6(-17.1)	12.8(-5.9)	12.5(-2.3)	12.9(3.2)	13.0(0.0)
	임시·일용	119.3(-3.7)	115.4(-3.3)	122.5(6.2)	122.3(-0.2)	122.5(0.2)	117.0(-4.5)	112.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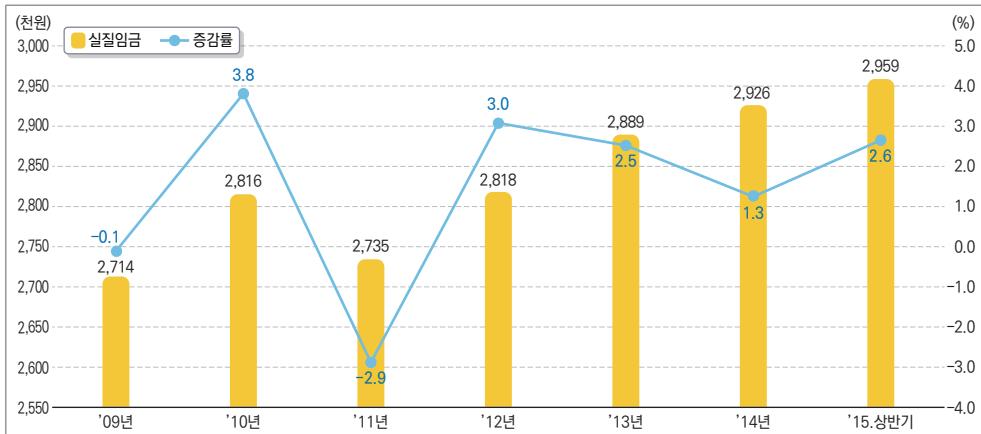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상(임시일용 포함)

3)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한 분석(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총량을 조사 하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가능)

● 실질임금

'1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2,959천원으로 '08년~'09년 금융위기 시 감소한 적이 있고, '11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4%)로 인하여 감소한 적이 있지만 '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질임금 및 증감률〉



(단위: 천원,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상반기
명목임금	2,636	2,816	2,844	2,995	3,111	3,190	3,241
소비자 물가지수	97.13	100.0	104.0	106.28	107.67	109.04	109.54
실질임금	2,714 (-0.1)	2,816 (3.8)	2,735 (-2.9)	2,818 (3.0)	2,889 (2.5)	2,926 (1.3)	2,95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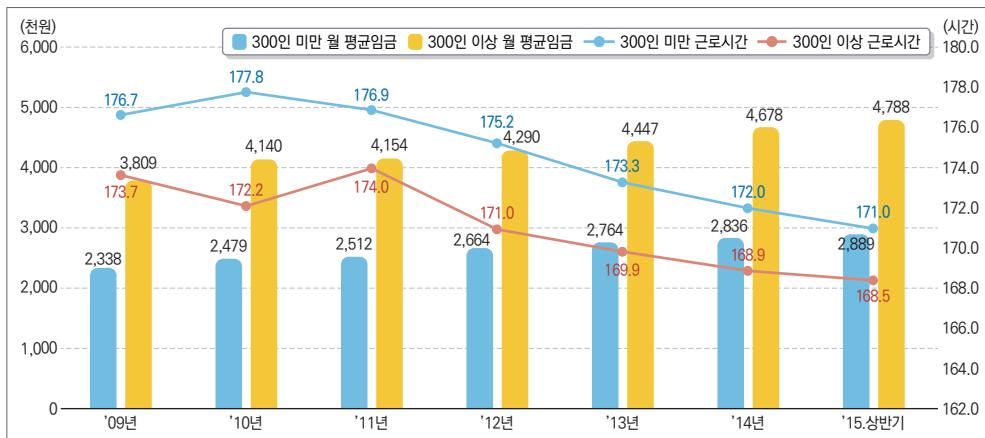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는 '10년(=100) 기준

●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15년 상반기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은 2,889천원이고, 300인 이상은 4,788천원으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 수준은 60.3%이다.

5~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71.0시간이고 300인 이상은 168.5시간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상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상
5인 이상	2,636 (2.6)	2,816 (6.8)	2,844 (1.0)	2,995 (5.3)	3,111 (3.9)	3,190 (2.5)	3,241 (3.2)	176.1 (-0.3)	176.7 (0.3)	176.3 (-0.2)	174.3 (-1.1)	172.6 (-1.0)	171.4 (-0.7)	170.6 (0.2)
300인 미만(A)	2,338 (3.0)	2,479 (6.0)	2,512 (1.3)	2,664 (6.1)	2,764 (3.8)	2,836 (2.6)	2,889 (4.0)	176.7 (-0.4)	177.8 (0.6)	176.9 (-0.5)	175.2 (-1.0)	173.3 (-1.1)	172.0 (-0.8)	171.0 (0.2)
300인 이상(B)	3,809 (0.6)	4,140 (8.7)	4,154 (0.3)	4,290 (3.3)	4,447 (3.7)	4,678 (5.2)	4,788 (4.5)	173.7 (-0.1)	172.2 (-0.9)	174.0 (1.0)	171.0 (-1.7)	169.9 (-0.6)	168.9 (-0.6)	168.5 (-0.1)
A/B	61.4	59.9	60.5	62.1	62.2	60.6	60.3	101.7	103.3	101.7	102.5	102.0	101.8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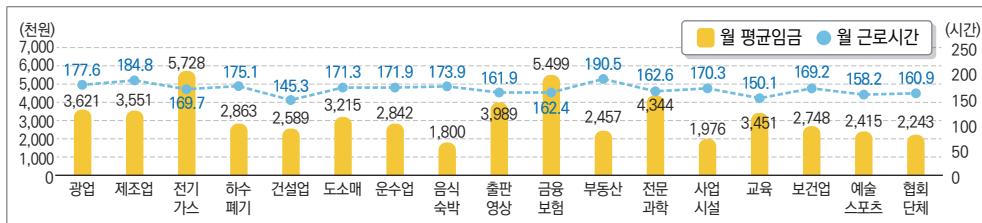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업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이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등이며 이는 가장 적은 숙박 및 음식업의 약 3배 이상 수준이다.

월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건설업의 1.3배 수준이며, 이 업종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전년대비, 단위: 천원, 시간, %)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12년	'13년	'14년	'15.상	'12년	'13년	'14년	'15.상
전 업종	2,995 (5.3)	3,111 (3.9)	3,190 (2.5)	3,241 (3.2)	174.3 (-1.1)	172.6 (-1.0)	171.4 (-0.7)	170.6 (0.2)
광업	3,470 (4.9)	3,557 (2.5)	3,480 (-2.1)	3,621 (3.4)	185.3 (-0.9)	180.6 (-2.5)	179.4 (-0.7)	177.6 (-0.2)
제조업	3,221 (6.1)	3,371 (4.7)	3,506 (4.0)	3,551 (2.7)	186.4 (-2.2)	185.0 (-0.8)	185.4 (0.2)	184.8 (-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554 (0.2)	5,728 (4.2)	175.5 (-0.9)	173.4 (-1.2)	170.5 (-1.7)	169.7 (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812 (2.5)	2,863 (3.9)	184.8 (-0.8)	182.0 (-1.5)	177.8 (-2.3)	175.1 (-0.8)
건설업	2,273 (4.2)	2,414 (6.2)	2,497 (3.4)	2,589 (4.5)	152.5 (-0.9)	152.7 (0.1)	148.5 (-2.8)	145.3 (-1.8)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206 (1.2)	3,215 (2.2)	174.5 (-0.3)	173.4 (-0.6)	172.3 (-0.6)	171.3 (0.2)
운수업	2,589 (8.2)	2,732 (5.5)	2,805 (2.7)	2,842 (5.5)	181.7 (0.1)	177.8 (-2.1)	173.1 (-2.6)	171.9 (0.1)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85 (0.7)	1,800 (3.6)	186.6 (0.2)	177.3 (-5.0)	175.2 (-1.2)	173.9 (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05 (-0.8)	3,989 (2.9)	163.9 (-0.4)	163.0 (-0.5)	161.9 (-0.7)	161.9 (0.4)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234 (3.5)	5,499 (6.0)	163.4 (-0.1)	162.7 (-0.4)	163.4 (0.4)	162.4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323 (2.3)	2,457 (7.1)	193.4 (-0.4)	191.5 (-1.0)	190.1 (-0.7)	190.5 (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419 (4.2)	4,344 (0.7)	165.3 (-0.5)	163.9 (-0.8)	163.3 (-0.4)	162.6 (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924 (2.2)	1,976 (4.3)	173.1 (0.6)	172.3 (-0.5)	171.9 (-0.2)	170.3 (0.0)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75 (3.5)	3,451 (3.6)	151.1 (-1.2)	150.6 (-0.3)	152.0 (0.9)	150.1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700 (1.4)	2,748 (4.8)	174.8 (0.7)	172.0 (-1.6)	169.6 (-1.4)	169.2 (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398 (3.1)	2,415 (1.9)	158.1 (0.6)	158.0 (-0.1)	158.9 (0.6)	158.2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49 (1.0)	2,243 (2.0)	168.9 (-2.7)	167.5 (-0.8)	162.9 (-2.7)	160.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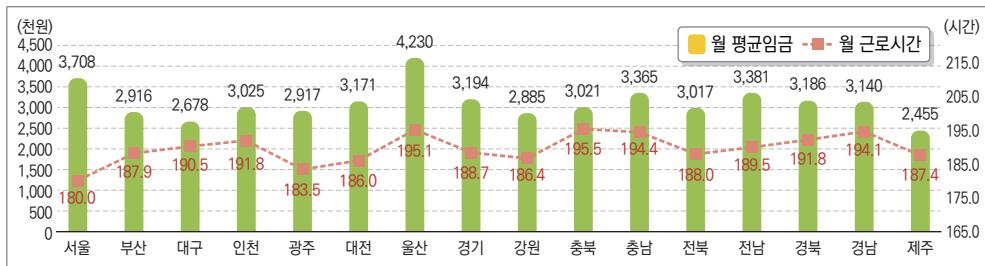
자료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대비(동기) 증감률

●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⁴⁾

'15.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시·도별 월 평균임금은 자동차·선박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과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15.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시·도별 월 평균근로시간은 경남과 충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길며, 서울 지역이 짧게 나타났다.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

시·도	월 평균임금				근로시간			
	'14.4월		'15.4월		'14.4월		'15.4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	3,231	(2.2)	3,305	(2.3)	187.9	(-0.2)	187.9	(0.0)
서울	3,673	(0.7)	3,708	(1.0)	178.9	(-0.3)	180.0	(0.6)
부산	2,862	(1.2)	2,916	(1.9)	187.4	(0.2)	187.9	(0.3)
대구	2,603	(0.7)	2,678	(2.9)	191.2	(-2.3)	190.5	(-0.4)
인천	2,968	(1.7)	3,025	(1.9)	193.8	(0.4)	191.8	(-1.0)
광주	2,847	(2.2)	2,917	(2.4)	186.5	(1.0)	183.5	(-1.6)
대전	3,159	(1.8)	3,171	(0.4)	185.4	(-1.6)	186.0	(0.3)
울산	4,156	(3.6)	4,230	(1.8)	193.5	(1.4)	195.1	(0.8)
경기	3,115	(0.7)	3,194	(2.5)	188.9	(0.5)	188.7	(-0.1)
강원	2,817	(1.3)	2,885	(2.4)	188.2	(-2.1)	186.4	(-1.0)
충북	2,908	(1.3)	3,021	(3.9)	196.4	(0.5)	195.5	(-0.5)
충남	3,335	(0.9)	3,365	(0.9)	193.4	(0.3)	194.4	(0.5)
전북	2,957	(0.0)	3,017	(2.0)	188.3	(-1.9)	188.0	(-0.2)
전남	3,339	(1.7)	3,381	(1.3)	188.7	(-0.8)	189.5	(0.4)
경북	3,144	(0.3)	3,186	(1.4)	193.1	(-0.8)	191.8	(-0.7)
경남	3,079	(2.2)	3,140	(2.0)	196.9	(0.5)	194.1	(-1.4)
제주	2,456	(-3.8)	2,455	(-0.1)	186.5	(-0.5)	187.4	(0.5)

자료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 매월 시행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매년 4월 기준으로 연 1회 시·도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급여는 연초,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월 단위로는 변동성이 큼.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4월의 임금(정액, 초과, 특별급여)을 조사한 것임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⁵⁾

●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14.6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6,701원으로 '1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13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14년에 감소폭이 둔화된 모습이다.

〈시간당 임금 및 증감률〉



〈월 근로시간 및 증감률〉



(단위: 원,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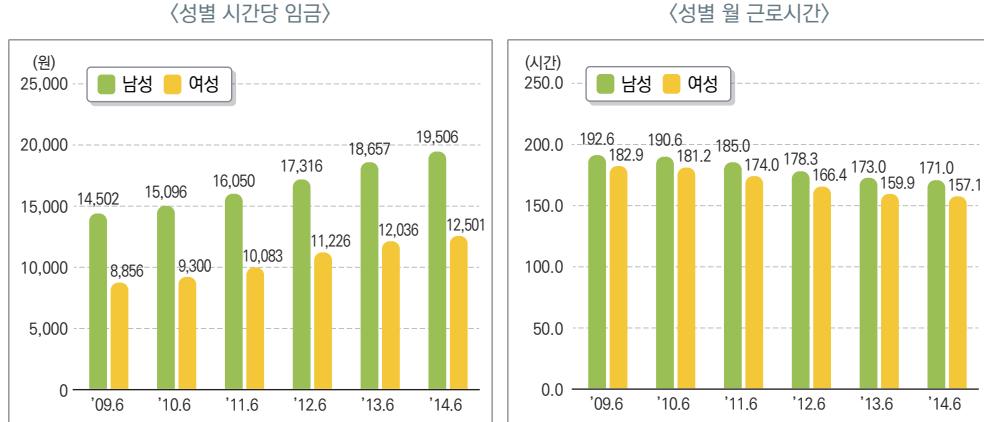
	'09.6	'10.6	'11.6	'12.6	'13.6	'14.6
시간당 임금	12,382 (-4.2)	12,878 (4.0)	13,769 (6.9)	14,966 (8.7)	16,067 (7.4)	16,701 (4.0)
월 근로시간	189.0 (2.4)	187.0 (-1.1)	180.8 (-3.3)	173.7 (-3.9)	167.9 (-3.3)	165.5 (-1.4)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연 1회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직종, 고용형태, 연령대 등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

●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4.6월 여성 시간당 임금은 12,501원으로 남성 시간당 임금 19,506원의 64.1%수준이다. 또한, 여성 근로시간은 157.1시간으로 남성 근로시간 171.0시간의 91.9% 수준이다.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체	12,381(-4.2)	12,879(4.0)	13,770(6.9)	14,967(8.7)	16,068(7.4)	16,701(3.9)
남성	14,502(-4.3)	15,096(4.1)	16,050(6.3)	17,316(7.9)	18,657(7.7)	19,506(4.5)
여성	8,856(-3.9)	9,300(5.0)	10,083(8.4)	11,226(11.3)	12,036(7.2)	12,501(3.9)

자료 ¹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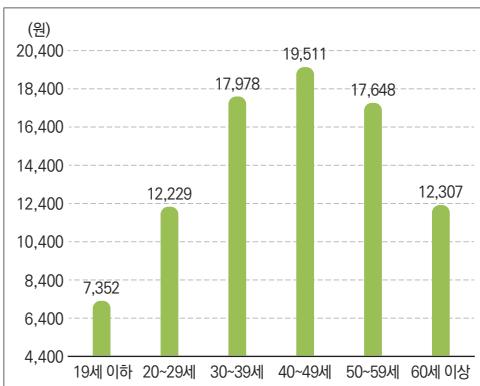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체	189.0(2.4)	187.0(-1.0)	180.8(-3.3)	173.7(-3.9)	167.9(-3.4)	165.5(-1.4)
남성	192.6(2.3)	190.6(-1.0)	185.0(-3.0)	178.3(-3.6)	173.0(-3.0)	171.0(-1.1)
여성	182.9(2.6)	181.2(-1.0)	174.0(-4.0)	166.4(-4.4)	159.9(-3.9)	157.1(-1.7)

자료 ¹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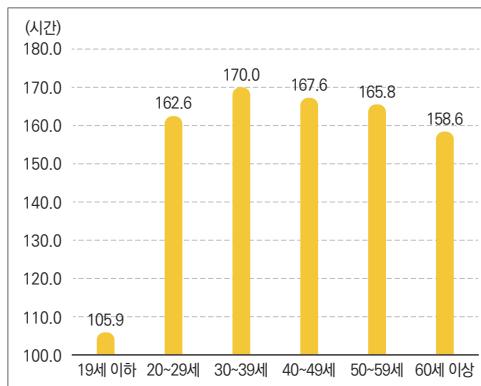
●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며, 근로시간은 19세 이하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 시간당 임금〉



〈연령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연령	12,382(-4.2)	12,878(4.0)	13,769(6.9)	14,966(8.7)	16,067(7.4)	16,701 (3.9)
19세 이하	4,476(-1.7)	5,029(12.4)	5,942(18.2)	6,774(14.0)	7,229(6.7)	7,352 (1.7)
20~29세	9,079(-3.8)	9,450(4.1)	10,070(6.6)	10,959(8.8)	11,616(6.0)	12,229 (5.3)
30~39세	13,439(-5.5)	14,099(4.9)	14,807(5.0)	15,978(7.9)	16,903(5.8)	17,978 (6.4)
40~49세	14,600(-3.9)	15,044(3.0)	16,171(7.5)	17,467(8.0)	18,667(6.9)	19,511 (4.5)
50~59세	13,361(-5.0)	13,666(2.3)	14,638(7.1)	15,885(8.5)	17,552(10.5)	17,648 (0.5)
60세이상	8,891(-4.5)	9,165(3.1)	9,978(8.9)	11,245(12.7)	12,144(8.0)	12,307 (1.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연령	189.0(2.4)	187.0(-1.1)	180.8(-3.3)	173.7(-3.9)	167.9(-3.3)	165.5 (-1.4)
19세 이하	137.1(-1.6)	135.5(-1.2)	131.3(-3.1)	112.4(-14.4)	113.4(0.9)	105.9 (-6.6)
20~29세	186.7(3.3)	183.1(-1.9)	178.5(-2.5)	170.8(-4.3)	164.1(-3.9)	162.6 (-0.9)
30~39세	189.3(3.4)	187.6(-0.9)	183.0(-2.5)	176.5(-3.6)	170.9(-3.2)	170.0 (-0.5)
40~49세	190.4(1.9)	189.2(-0.6)	182.3(-3.6)	175.9(-3.5)	170.2(-3.2)	167.6 (-1.5)
50~59세	191.9(1.4)	190.5(-0.7)	181.5(-4.7)	175.4(-3.4)	169.7(-3.2)	165.8 (-2.3)
60세이상	196.2(-3.4)	192.8(-1.7)	180.6(-6.3)	169.8(-6.0)	163.1(-3.9)	158.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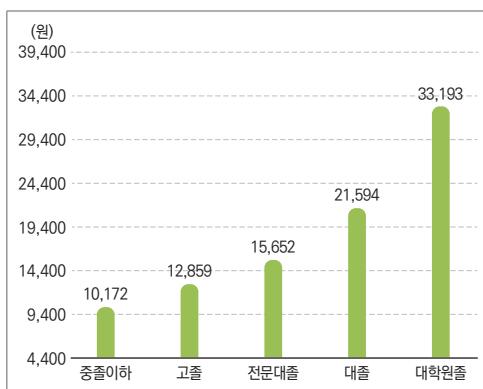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 학력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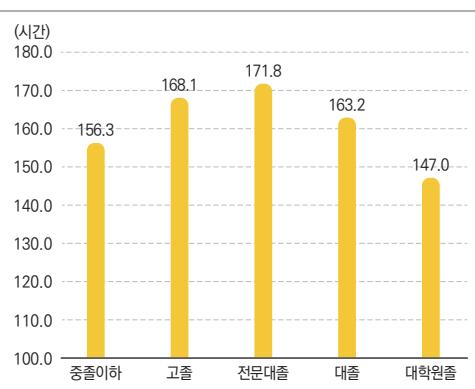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많아진다. '14.6월 대졸(=100)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는 47.1%, 고졸은 59.5% 수준이다.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대졸보다 53.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전문대졸이 가장 길고 그 이상의 학력에서는 줄어든다. '14.6월 대졸(=100)을 기준으로 대학원졸은 90.1%, 전문대졸은 105.3%, 고졸은 1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시간당 임금〉



〈학력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 학력	12,382(-4.2)	12,878(4.0)	13,769(6.9)	14,966(8.7)	16,067(7.4)	16,701(3.9)
중졸이하	7,757(-2.2)	8,005(3.2)	8,862(10.7)	9,673(9.2)	10,361(7.1)	10,172(-1.8)
고졸	9,765(-2.3)	9,944(1.8)	10,726(7.9)	11,610(8.2)	12,505(7.7)	12,859(2.8)
전문대졸	11,328(-5.2)	11,587(2.3)	12,743(10.0)	13,632(7.0)	14,602(7.1)	15,652(7.2)
대졸	16,591(-7.7)	17,170(3.5)	18,339(6.8)	19,817(8.1)	21,092(6.4)	21,594(2.4)
대학원졸	25,032(-8.9)	26,464(5.7)	28,169(6.4)	29,817(5.9)	32,757(9.9)	33,193(1.3)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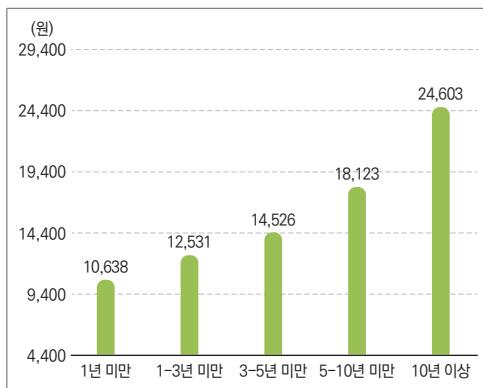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 학력	189.0(2.4)	187.0(-1.1)	180.8(-3.3)	173.7(-3.9)	167.9(-3.3)	165.5(-1.4)
중졸이하	194.2(-1.2)	192.1(-1.1)	180.8(-5.9)	169.2(-6.4)	163.6(-3.3)	156.3(-4.5)
고졸	193.9(0.9)	192.2(-0.9)	185.2(-3.6)	178.2(-3.8)	172.6(-3.1)	168.1(-2.6)
전문대졸	189.8(3.8)	188.5(-0.7)	183.6(-2.6)	177.8(-3.2)	172.3(-3.1)	171.8(-0.3)
대졸	181.9(5.4)	180.3(-0.9)	175.9(-2.4)	168.9(-4.0)	162.0(-4.1)	163.2(0.7)
대학원졸	169.9(7.8)	165.9(-2.4)	156.0(-6.0)	154.0(-1.3)	149.1(-3.2)	147.0(-1.4)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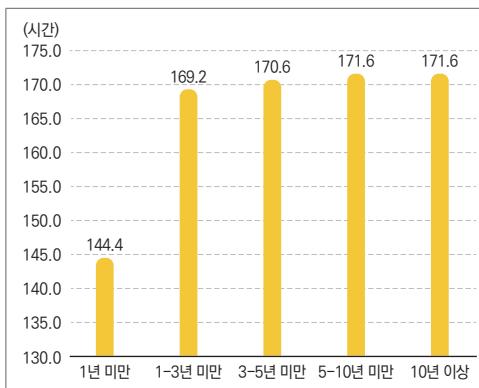
● 경력연수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4.6월 경력 1년 미만자의 임금(=100)을 기준으로 3~5년 경력자는 123.8%, 10년 이상은 194.8%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1년 미만자를 제외하면 경력연수간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경력연수별 시간당 임금〉



〈경력연수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 경력	12,381(-4.2)	12,879(4.0)	13,770(6.9)	14,967(8.7)	16,068(7.4)	16,701(3.9)
1년 미만	7,200(-2.7)	7,809(8.4)	8,433(8.0)	9,501(12.7)	10,158(6.9)	10,638(4.7)
1~3년 미만	9,204(-2.8)	9,465(2.8)	10,278(8.6)	11,208(9.1)	11,910(6.3)	12,531(5.2)
3~5년 미만	10,875(-4.0)	11,037(1.5)	12,048(9.2)	12,948(7.5)	13,518(4.4)	14,526(7.5)
5~10년 미만	12,960(-6.4)	13,599(4.9)	14,781(8.7)	15,726(6.4)	16,851(7.2)	18,123(7.6)
10년 이상	18,534(-7.5)	19,224(3.7)	20,574(7.0)	21,744(5.7)	23,163(6.5)	24,603(6.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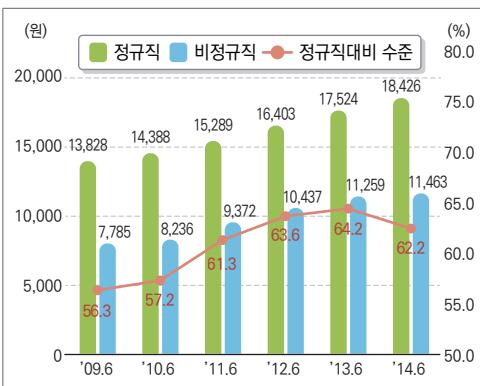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 경력	189.0(2.4)	187.0(-1.0)	180.8(-3.3)	173.7(-3.9)	167.9(-3.4)	165.5(-1.4)
1년 미만	175.5(0.3)	174.1(-0.8)	165.2(-5.1)	153.4(-7.1)	149.1(-2.8)	144.4(-3.1)
1~3년 미만	191.5(1.8)	187.9(-1.8)	181.9(-3.2)	176.3(-3.1)	169.7(-3.8)	169.2(-0.3)
3~5년 미만	192.6(2.5)	191.8(-0.5)	185.4(-3.3)	177.4(-4.3)	171.7(-3.2)	170.6(-0.7)
5~10년 미만	192.2(3.4)	191.4(-0.4)	186.1(-2.8)	180.4(-3.0)	172.9(-4.2)	171.6(-0.7)
10년 이상	191.1(3.1)	189.4(-0.9)	185.5(-2.0)	178.6(-3.7)	172.7(-3.3)	171.6(-0.6)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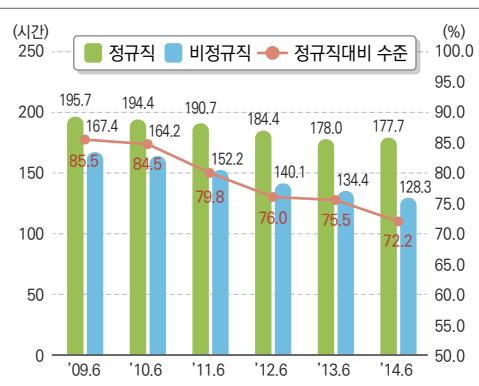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4.6월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426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1,463원이다. 근로시간은 정규직이 177.7시간이고, 비정규직이 128.3시간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체	12,382(-4.2)	12,878(4.0)	13,769(6.9)	14,966(8.7)	16,607(11.0)	16,701(4.0)
정규직	13,828(-3.2)	14,388(4.0)	15,289(6.3)	16,403(7.3)	17,524(6.8)	18,426(5.1)
비정규직	7,785(-1.9)	8,236(5.8)	9,372(13.8)	10,437(11.4)	11,259(7.9)	11,463(1.8)
기간제근로자	8,923(-3.3)	9,878(10.7)	10,604(7.3)	11,076(4.5)	12,015(8.5)	11,872(-1.2)
단시간근로자	6,473(-2.3)	7,052(8.9)	8,245(16.9)	9,521(15.5)	10,801(13.4)	11,603(7.4)
일일근로자	8,243(-1.8)	8,598(4.3)	10,110(17.6)	12,047(19.2)	12,766(6.0)	12,589(-1.4)
파견근로자	8,068(-0.4)	8,413(4.3)	9,262(10.1)	9,540(3.0)	10,600(11.1)	10,189(-3.9)
용역근로자	6,111(-0.4)	6,537(7.0)	7,524(15.1)	8,081(7.4)	8,804(8.9)	8,792(-0.1)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체	189.0(2.4)	187.0(-1.1)	180.8(-3.3)	173.7(-3.9)	167.9(-3.3)	165.5(-1.4)
정규직	195.7(3.2)	194.4(-0.7)	190.7(-1.9)	184.4(-3.3)	178.0(-3.5)	177.7(-0.2)
비정규직	167.4(1.0)	164.2(-1.9)	152.2(-7.3)	140.1(-8.0)	134.4(-4.1)	128.3(-4.6)
기간제근로자	189.3(1.7)	183.3(-3.2)	182.7(-0.3)	176.9(-3.2)	175.3(-0.9)	178.0(1.6)
단시간근로자	124.4(2.3)	122.6(-1.4)	111.0(-9.5)	90.9(-18.1)	81.7(-10.1)	76.8(-6.0)
일일근로자	157.0(0.5)	153.1(-2.5)	139.0(-9.2)	117.7(-15.3)	116.1(-1.4)	101.1(-12.9)
파견근로자	182.3(0.6)	174.4(-4.3)	173.6(-0.5)	169.6(-2.3)	166.1(-2.1)	173.1(4.2)
용역근로자	215.5(1.2)	209.5(-2.8)	197.8(-5.6)	187.4(-5.3)	186.1(-0.7)	186.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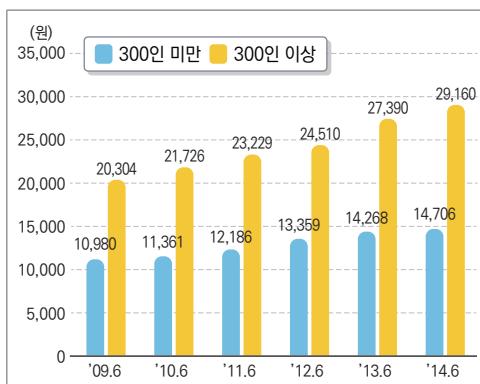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 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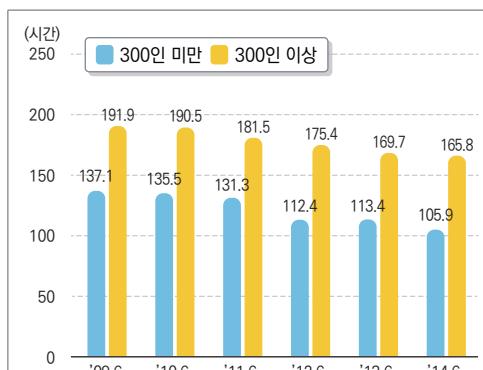
’14.6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9,16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14,706원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이 165.8시간, 300인 미만이 105.9시간이다.

〈규모별 시간당 임금〉



〈규모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8.6	’09.6	’10.6	’11.6	’12.6	’13.6	’14.6
전 규모	12,921	12,381(-4.2)	12,879(4.0)	13,770(6.9)	14,967(8.7)	16,068(7.4)	16,701(3.9)
300인 미만	11,493	10,980(-4.5)	11,361(3.5)	12,186(7.2)	13,359(9.6)	14,268(6.8)	14,706(3.1)
5인 미만	7,686	7,485(-2.6)	7,662(2.4)	8,217(7.2)	9,495(15.6)	10,236(7.8)	10,638(3.9)
5~29인	11,940	11,340(-5.0)	11,862(4.6)	12,699(7.1)	13,749(8.3)	14,769(7.4)	15,048(1.9)
30~299인	14,649	13,764(-6.0)	14,379(4.5)	15,135(5.3)	16,269(7.5)	17,334(6.6)	17,784(2.6)
300인 이상	21,642	20,304(-6.2)	21,726(7.0)	23,229(6.9)	24,510(5.5)	27,390(11.8)	29,160(6.5)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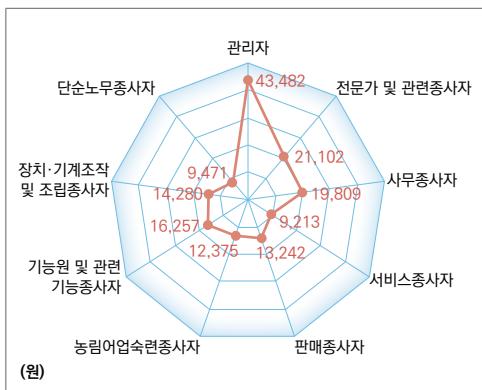
월 근로시간	’08.6	’09.6	’10.6	’11.6	’12.6	’13.6	’14.6
전 규모	184.5	189.0(2.4)	187.0(-1.0)	180.8(-3.3)	173.7(-3.9)	167.9(-3.4)	165.5(-1.4)
300인 미만	139.4	137.1(-1.7)	135.5(-1.2)	131.3(-3.1)	112.4(-14.4)	113.4(0.9)	105.9(-6.6)
5인 미만	180.7	186.7(3.3)	183.1(-1.9)	178.5(-2.5)	170.8(-4.3)	164.1(-3.9)	162.6(-0.9)
5~29인	183.1	189.3(3.4)	187.6(-0.9)	183.0(-2.5)	176.5(-3.5)	170.9(-3.2)	170.0(-0.5)
30~299인	186.8	190.4(1.9)	189.2(-0.7)	182.3(-3.6)	175.9(-3.5)	170.2(-3.2)	167.6(-1.5)
300인 이상	189.3	191.9(1.4)	190.5(-0.7)	181.5(-4.8)	175.4(-3.3)	169.7(-3.3)	165.8(-2.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 직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4.6월 직종별 시간당 임금은 관리자가 가장 많으며,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길며,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시간당 임금〉



〈직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 직종	12,381	12,879(4.0)	13,770(6.9)	14,967(8.7)	16,068(7.4)	16,701(3.9)
관리자	28,284	30,171(6.7)	33,459(10.9)	36,105(7.9)	38,799(7.5)	43,482(12.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6,065	16,977(5.7)	17,856(5.2)	19,389(8.6)	20,442(5.4)	21,102(3.2)
사무종사자	14,208	14,829(4.4)	16,203(9.3)	17,805(9.9)	18,888(6.1)	19,809(4.9)
서비스종사자	6,426	6,528(1.6)	7,437(13.9)	8,583(15.4)	9,483(10.5)	9,213(-2.9)
판매종사자	10,215	10,704(4.8)	11,886(11.1)	12,372(4.1)	12,831(3.7)	13,242(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477	9,963(5.1)	11,127(11.7)	11,913(7.1)	12,519(5.1)	12,375(-1.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1,151	11,754(5.4)	12,897(9.7)	13,806(7.0)	15,048(9.0)	16,257(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980	11,079(0.9)	12,291(10.9)	13,023(6.0)	13,893(6.7)	14,280(2.8)
단순노무종사자	6,726	6,939(3.2)	7,803(12.5)	8,568(9.8)	9,117(6.4)	9,471(3.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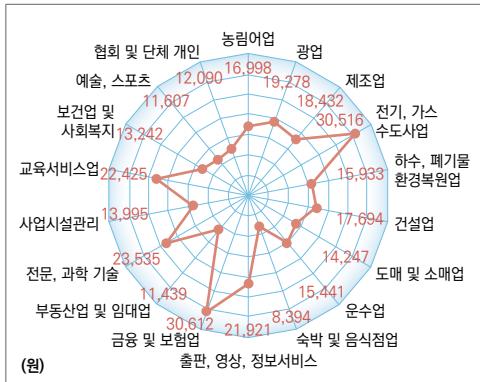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 직종	189	187.0(-1.0)	180.8(-3.3)	173.7(-3.9)	167.9(-3.4)	165.5(-1.4)
관리자	183.2	180.5(-1.5)	176.7(-2.1)	168.3(-4.7)	165.6(-1.6)	167.0(0.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9.6	176.7(-1.6)	171.5(-2.9)	166.2(-3.1)	159.1(-4.3)	158.3(-0.5)
사무종사자	184.9	183.0(-1.0)	179.1(-2.1)	171.5(-4.3)	164.8(-3.9)	165.4(0.4)
서비스종사자	189.9	189.7(-0.1)	172.6(-9.0)	161.6(-6.4)	157.7(-2.4)	148.2(-6.0)
판매종사자	183.5	183.2(-0.2)	178.2(-2.7)	170.6(-4.3)	163.4(-4.2)	163.2(-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1.5	159.0(-7.3)	169.5(6.6)	164.3(-3.1)	155.0(-5.6)	165.3(6.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89.0	186.5(-1.3)	178.8(-4.1)	173.1(-3.2)	168.8(-2.5)	165.6(-1.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8.6	210.4(0.9)	205.9(-2.1)	200.3(-2.7)	194.1(-3.1)	192.3(-0.9)
단순노무종사자	191.8	186.7(-2.7)	176.6(-5.4)	167.3(-5.3)	164.3(-1.8)	159.0(-3.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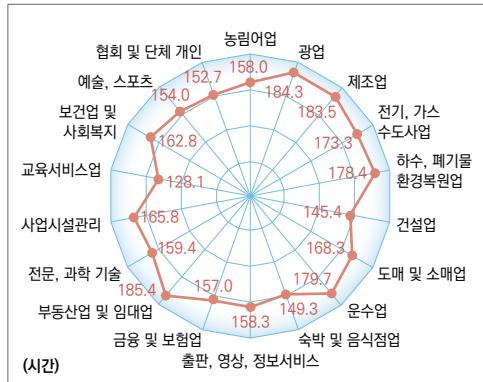
● 업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 광업, 제조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시간당 임금〉



〈업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09.6	'10.6	'11.6	'12.6	'13.6	'14.6
전 업종	12,381	12,879(4.0)	13,770(6.9)	14,967(8.7)	16,068(7.4)	16,701(3.9)
농림어업	12,891	14,013(8.7)	14,646(4.5)	15,705(7.2)	16,980(8.1)	16,998(0.1)
광업	15,237	16,017(5.1)	16,086(0.4)	17,187(6.8)	18,564(8.0)	19,278(3.8)
제조업	12,891	13,488(4.6)	14,106(4.6)	15,426(9.4)	17,025(10.4)	18,432(8.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744	26,424(6.8)	27,240(3.1)	28,353(4.1)	30,396(7.2)	30,516(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322	11,982(5.8)	12,882(7.5)	13,641(5.9)	15,363(12.6)	15,933(3.7)
건설업	12,297	13,188(7.3)	14,334(8.7)	15,465(7.9)	16,758(8.4)	17,694(5.6)
도매 및 소매업	10,494	11,034(5.1)	11,586(5.0)	12,729(9.9)	13,470(5.8)	14,247(5.8)
운수업	11,511	11,634(1.1)	13,506(16.1)	15,219(12.7)	15,906(4.5)	15,441(-2.9)
숙박 및 음식점업	5,826	5,934(1.9)	6,474(9.1)	7,527(16.2)	8,409(11.7)	8,394(-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144	18,966(4.5)	19,674(3.7)	20,646(4.9)	22,653(9.7)	21,921(-3.2)
금융 및 보험업	22,077	23,613(7.0)	25,419(7.7)	27,054(6.4)	29,523(9.1)	30,612(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02	8,454(3.1)	9,534(12.8)	9,927(4.1)	10,911(9.9)	11,439(4.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7,031	17,808(4.6)	19,380(8.8)	21,309(10.0)	23,052(8.2)	23,535(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048	12,159(0.9)	12,252(0.8)	12,921(5.5)	13,293(2.9)	13,995(5.3)
교육서비스업	15,429	16,206(5.0)	18,855(16.4)	19,725(4.6)	21,243(7.7)	22,425(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35	11,400(4.2)	11,751(3.1)	13,002(10.7)	13,605(4.6)	13,242(-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556	9,090(6.2)	9,615(5.8)	10,662(10.9)	11,118(4.3)	11,607(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38	9,540(1.1)	9,903(3.8)	10,755(8.6)	11,808(9.8)	12,090(2.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09.6	'10.6	'11.6	'12.6	'13.6	'14.6
전 업종	189	187(-1.0)	180.8(-3.3)	173.7(-3.9)	167.9(-3.4)	165.5(-1.4)
농림어업	179.1	174.4(-2.6)	166(-4.8)	160.2(-3.5)	156.3(-2.4)	158.0(1.1)
광업	193.5	193.1(-0.2)	197.4(2.2)	191.3(-3.1)	183.7(-4.0)	184.3(0.4)
제조업	199.9	200.1(0.1)	199.1(-0.5)	192.7(-3.2)	186.0(-3.5)	183.5(-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5.5	183.6(-1.0)	184.8(0.7)	174.7(-5.5)	170.5(-2.4)	173.3(1.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0.9	198.9(-1.0)	192.8(-3.1)	183.8(-4.7)	177.9(-3.2)	178.4(0.3)
건설업	173.6	169.5(-2.4)	161.2(-4.9)	152.5(-5.4)	148.8(-2.5)	145.4(-2.2)
도매 및 소매업	192.0	187.0(-2.6)	182.2(-2.6)	176.6(-3.1)	171.7(-2.8)	168.3(-2.0)
운수업	198.5	199.7(0.6)	185.5(-7.1)	180.0(-3.0)	176.1(-2.2)	179.7(2.0)
숙박 및 음식점업	183.8	187.4(2.0)	176.4(-5.9)	165.5(-6.2)	157.0(-5.1)	149.3(-5.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0.3	177.2(-1.7)	169.8(-4.2)	161.7(-4.8)	154.3(-4.6)	158.3(2.6)
금융 및 보험업	178.2	172.5(-3.2)	171.0(-0.9)	164.1(-4.0)	155.5(-5.2)	157.0(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8.8	216.2(-1.2)	204.6(-5.4)	195.6(-4.4)	190.0(-2.8)	185.4(-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79.3	176.0(-1.9)	172.8(-1.8)	165.6(-4.1)	157.4(-5.0)	159.4(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8.1	183.1(-2.7)	177.4(-3.1)	170.9(-3.6)	166.0(-2.9)	165.8(-0.1)
교육서비스업	157.9	156.1(-1.1)	145.2(-7.0)	139.7(-3.8)	132.2(-5.4)	128.1(-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7.6	186.2(-0.8)	177.7(-4.6)	168.8(-5.0)	163.2(-3.3)	162.8(-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8.7	172.9(-3.3)	169.5(-2.0)	163.2(-3.7)	156.2(-4.3)	154.0(-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7.3	185.7(-0.9)	177.0(-4.7)	168.6(-4.8)	164.3(-2.5)	152.7(-7.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 통계조사별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우리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대표 통계는 총 3종

- 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총임금 및 총근로시간을 매월 조사하며, 업종별 규모별 분석이 가능
- 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표본사업체의 근로자별 월임금 및 월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며(성, 연령, 근속년수 등),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능
-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근로자별 3개월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2회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14.8)
임금	월평균 3,190천원	월 2,700천원(시간당 16,701원)	월 2,231천원
근로시간	월평균 171.4시간	월 165.5시간	주 38.1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 우리나라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대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며, 개인 특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5% 이상이며,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p)

		'09.6	'10.6	'11.6	'12.6	'13.6	'14.6
고용보험	전체	85.9 (0.4)	86.0 (0.1)	85.1 (-0.9)	87.5 (2.4)	88.6 (1.1)	88.5 (-0.1)
	정규직	95.6 (1.6)	95.7 (0.1)	94.9 (-0.8)	95.4 (0.5)	95.6 (0.2)	95.4 (-0.2)
	비정규직	51.9 (0.6)	52.1 (0.2)	53.5 (1.4)	57.8 (4.3)	60.9 (3.1)	63.0 (2.1)
건강보험	전체	87.4 (0.5)	87.5 (0.1)	87.2 (-0.3)	86.6 (-0.6)	87.6 (1.0)	87.5 (-0.1)
	정규직	96.6 (1.5)	96.8 (0.2)	96.4 (-0.4)	97.0 (0.6)	97.4 (0.4)	97.8 (0.4)
	비정규직	49.7 (0.6)	49.5 (-0.2)	50.6 (1.1)	49.6 (-1.0)	50.6 (1.0)	51.2 (0.6)
국민연금	전체	87.1 (0.3)	87.5 (0.4)	87.0 (-0.5)	86.7 (-0.3)	87.6 (0.9)	87.6 (0.0)
	정규직	96.4 (1.5)	96.6 (0.2)	96.1 (-0.5)	96.7 (0.6)	97.2 (0.5)	97.6 (0.4)
	비정규직	46.8 (-0.4)	46.9 (0.1)	48.1 (1.2)	47.7 (-0.4)	47.0 (-0.7)	48.2 (1.2)
산재보험	전체	96.2 (1.0)	96.8 (0.6)	96.3 (-0.5)	97.3 (1.0)	97.5 (0.2)	97.5 (0.0)
	정규직	97.0 (1.1)	97.6 (0.6)	96.8 (-0.8)	97.6 (0.8)	97.8 (0.2)	97.7 (-0.1)
	비정규직	92.3 (0.8)	93.1 (0.8)	94.2 (1.1)	95.9 (1.7)	96.4 (0.5)	96.5 (0.1)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

주) 가입률(적용률) = 가입(적용)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100.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제외(공립학교는 공무원, 사립학교는 적용 제외 대상),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시 1인 미만, 농림어업 상시 5인 미만 제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제외

▶ 통계조사별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6월)	88.5	87.5	87.6	97.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14.8월)	68.8	71.4	67.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모수(분모)에서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2)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3)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4)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 제외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대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모수(분모)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 3)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제외자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포함되어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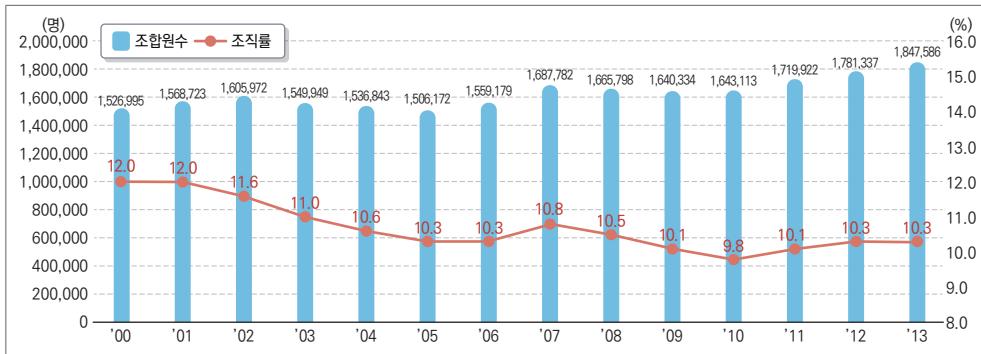
VII. 노사협력

1.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황

'13년 현재 노동조합수는 연합단체와 단위노조를 합하여 5,373개, 조합원수는 1,848천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0.3%이다. 연도별로 연합단체는 증가 추세이며, 단위노조는 줄어들다가 '10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수 및 조직률〉



(단위: 개소,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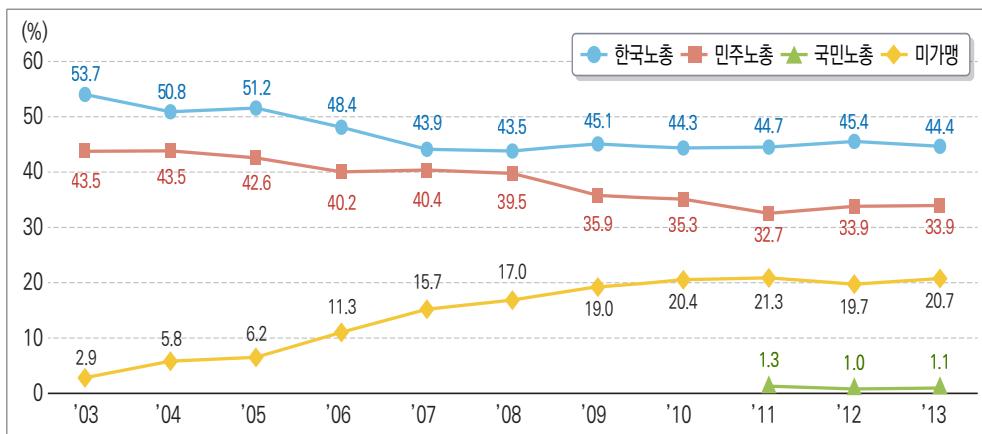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연합단체	단위노조	남성	여성	
'00	46(2.2)	5,698(1.1)	1,526,995(3.1)	1,221,117(4.1)	305,878(-0.5) 12.0[0.1]
'01	45(-2.2)	6,150(7.9)	1,568,723(2.7)	1,263,314(3.5)	305,409(-0.2) 12.0[0.0]
'02	43(-4.4)	6,506(5.8)	1,605,972(2.4)	1,306,221(3.4)	299,751(-1.9) 11.6[-0.4]
'03	45(4.7)	6,257(-3.8)	1,549,949(-3.5)	1,223,330(-6.3)	326,619(9.0) 11.0[-0.6]
'04	44(-2.2)	6,017(-3.8)	1,536,843(-0.8)	1,211,952(-0.9)	324,891(-0.5) 10.6[-0.4]
'05	45(2.3)	5,971(-0.8)	1,506,172(-2.0)	1,182,535(-2.4)	323,637(-0.4) 10.3[-0.3]
'06	53(17.8)	5,889(-1.4)	1,559,179(3.5)	1,215,253(2.8)	343,926(6.3) 10.3[0.0]
'07	53(0.0)	5,099(-13.4)	1,687,782(8.2)	1,317,467(8.4)	370,315(7.7) 10.8[0.5]
'08	56(5.7)	4,886(-4.2)	1,665,798(-1.3)	1,290,682(-2.0)	375,116(1.3) 10.5[-0.3]
'09	53(-5.4)	4,689(-4.0)	1,640,334(-1.5)	1,285,965(-0.4)	354,369(-5.5) 10.1[-0.4]
'10	54(1.9)	4,420(-5.7)	1,643,113(0.2)	1,285,315(-0.1)	360,579(1.8) 9.8[-0.3]
'11	64(18.5)	5,120(15.8)	1,719,922(4.7)	1,328,055(3.3)	391,867(8.7) 10.1[0.3]
'12	66(3.1)	5,177(1.1)	1,781,337(3.6)	1,358,699(2.3)	422,638(7.9) 10.3[0.2]
'13	68(3.0)	5,305(2.5)	1,847,586(3.7)	1,404,821(3.4)	442,765(4.8) 10.3[0.0]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 증감률, [] 증감

●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현황

'13년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한국노총 소속은 44.4%(819,755명)로 가장 많으며, 민주노총 33.9%(626,035명), 국민노총 1.1%(20,221명), 미가맹 20.7%(381,5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맹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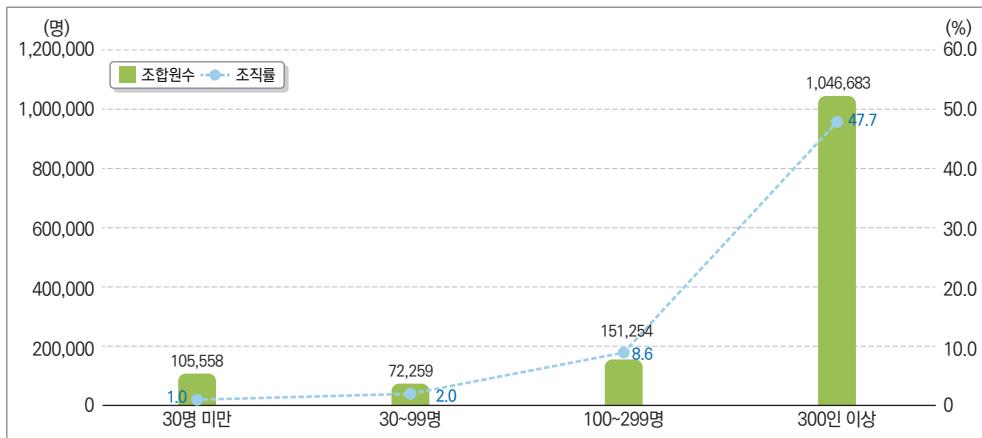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03	1,549,949	831,660 (53.7)	673,880 (43.5)		44,409 (2.9)
'04	1,536,843	780,183 (50.8)	668,136 (43.5)		88,524 (5.8)
'05	1,506,172	770,572 (51.2)	642,053 (42.6)		93,547 (6.2)
'06	1,559,179	755,234 (48.4)	627,274 (40.2)		176,671 (11.3)
'07	1,687,782	740,308 (43.9)	682,418 (40.4)		265,056 (15.7)
'08	1,665,798	725,014 (43.5)	658,118 (39.5)		282,666 (17.0)
'09	1,640,334	740,335 (45.1)	588,394 (35.9)		311,605 (19.0)
'10	1,643,113	728,649 (44.3)	580,064 (35.3)		334,400 (20.4)
'11	1,719,922	768,953 (44.7)	562,310 (32.7)	21,913 (1.3)	366,746 (21.3)
'12	1,781,337	808,664 (45.4)	604,705 (33.9)	17,914 (1.0)	350,054 (19.7)
'13	1,847,586	819,755 (44.4)	626,035 (33.9)	20,221 (1.1)	381,575 (20.7)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 규모별 노동조합 현황

'13년 기준 100명 미만 사업장은 1~2%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반수에 근접한 47.7%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 조합원수 및 조직률〉



(단위: 명, %)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수	10,884,000	3,581,000	1,754,000	2,195,000
조합원수	105,558	72,259	151,254	1,046,683
조직률	1.0	2.0	8.6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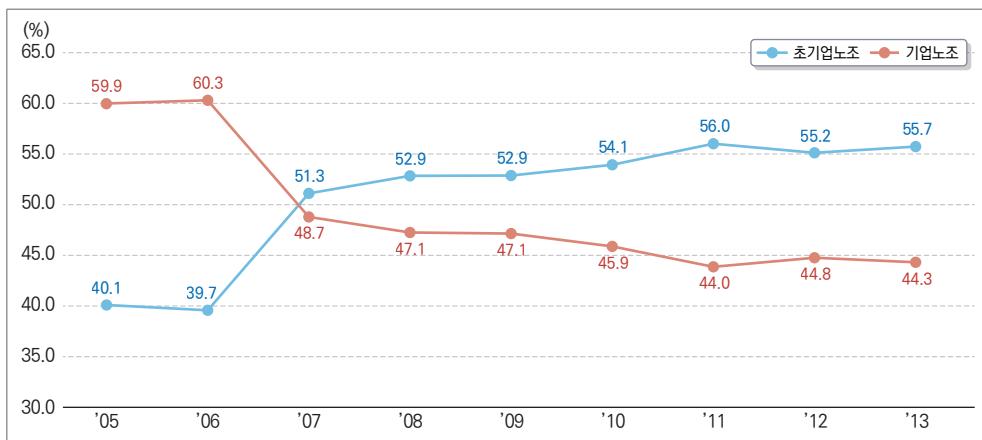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임금근로자수는 '13.12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주) 총 조합원수 중 기업규모 산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공무원, 교원, 초기업노조 지부·분회 중 규모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단체카드에 규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수와 일부 차이가 있음)

● 조직형태별 노동조합 현황

'05년 이후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수와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노조의 조합원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직형태별 비중〉



(단위: 명, %)

	조합원수	초기업노조		기업노조	
		원수	비중(%)	원수	비중(%)
'05	1,506,172	603,820	(40.1)	902,352	(59.9)
'06	1,559,179	618,356	(39.7)	940,823	(60.3)
'07	1,687,782	865,423	(51.3)	822,359	(48.7)
'08	1,665,798	881,277	(52.9)	784,521	(47.1)
'09	1,640,334	868,467	(52.9)	771,867	(47.1)
'10	1,643,113	888,437	(54.1)	754,676	(45.9)
'11	1,719,922	963,632	(56.0)	756,290	(44.0)
'12	1,781,337	983,707	(55.2)	797,630	(44.8)
'13	1,847,586	1,029,787	(55.7)	817,799	(44.3)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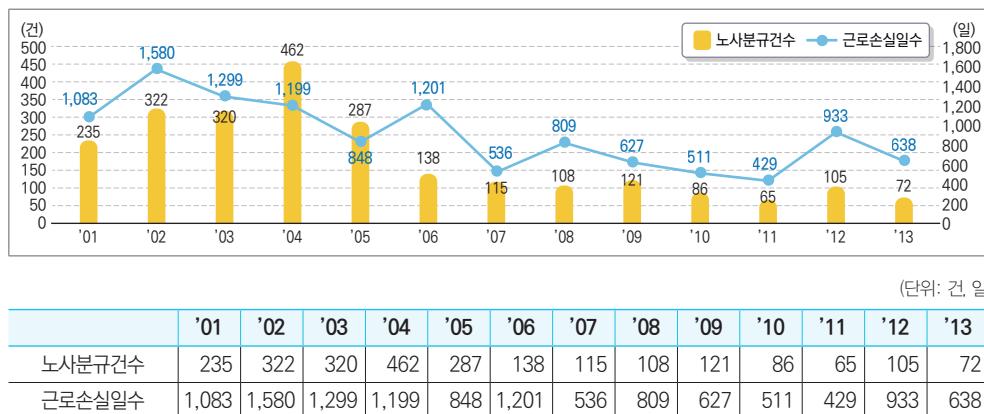
주) 초기업노조는 산별노조, 지역별·업종별 노조를 포함하는 개념. 다만, 총연맹수, 연맹수도 포함, ()비중

2. 노사분규

●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건수는 '0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하향 추세를 나타나내고 있다.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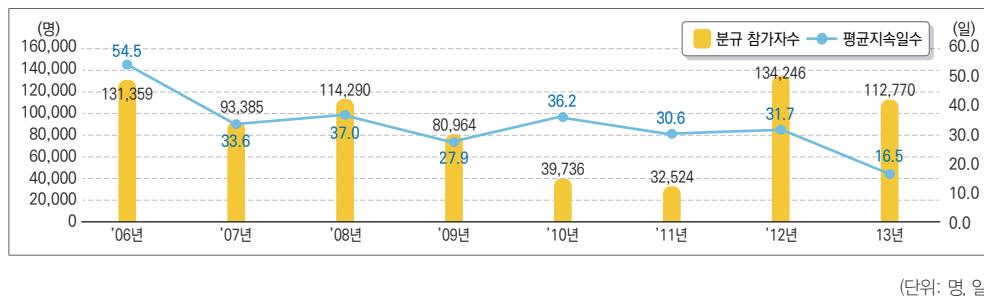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 분규 참가자수 및 평균지속일수

분규 참가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2년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의 파업으로 크게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분규 평균지속일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규 참가자 및 평균지속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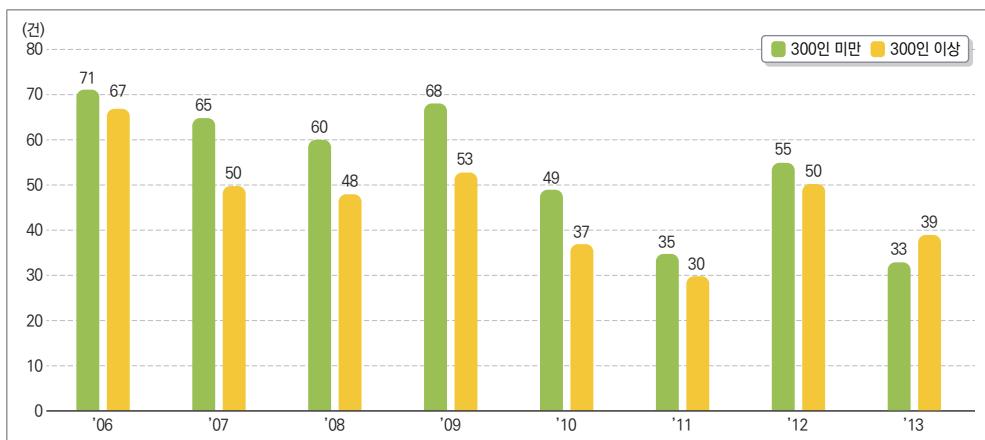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 규모별 노사분규건수

'13년도 사업체 규모별 노사분규 건수는 1,000인 이상에서 19건으로 가장 많으며 50인 미만, 100~299인, 500~999인이 13~14건 수준이다.

〈규모별 노사분규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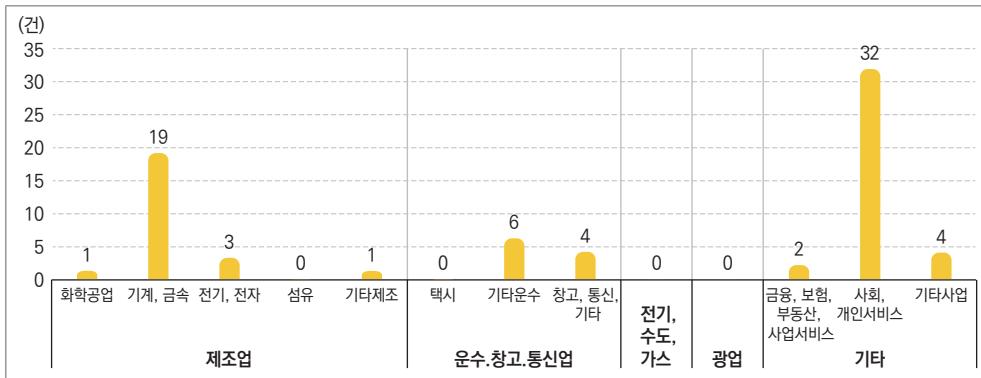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138	115	108	121	86	65	105	72
300인 미만	71	65	60	68	49	35	55	33
50인 미만	18	11	11	15	21	9	15	13
50~99인	23	18	21	17	12	8	15	6
100~299인	30	36	28	36	16	18	25	14
300인 이상	67	50	48	53	37	30	50	39
300~499인	12	10	10	9	6	7	8	7
500~999인	15	11	15	16	10	6	12	13
1000인 이상	40	29	23	28	21	17	30	19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 업종별 노사분규건수

업종별로는 '13년의 경우 사회·개인서비스업의 분규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기계금속업이다.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



(단위: 건)

	'06	'07	'08	'09	'10	'11	'12	'13
계	138	115	108	121	86	65	105	72
제조업	64	54	71	58	30	22	46	24
화학공업	12	7	9	6	3	1	2	1
기계·금속	41	33	44	36	23	13	30	19
전기·전자	7	4	6	6	1	0	1	3
섬유	0	0	0	0	0	0	1	0
기타제조	4	10	12	10	3	8	12	1
운수·창고·통신업	14	17	8	9	13	11	13	10
택시	7	2	3	2	2	6	0	0
기타운수	6	6	3	6	11	3	11	6
창고·통신·기타	1	9	2	1	0	2	2	4
전기·수도·가스	2	0	0	6	0	1	2	0
광업	0	0	0	0	0	0	0	0
기타	58	44	29	48	43	31	44	38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12	16	6	6	1	4	7	2
사회·개인서비스	41	20	19	28	38	21	35	32
기타사업	5	8	4	14	4	6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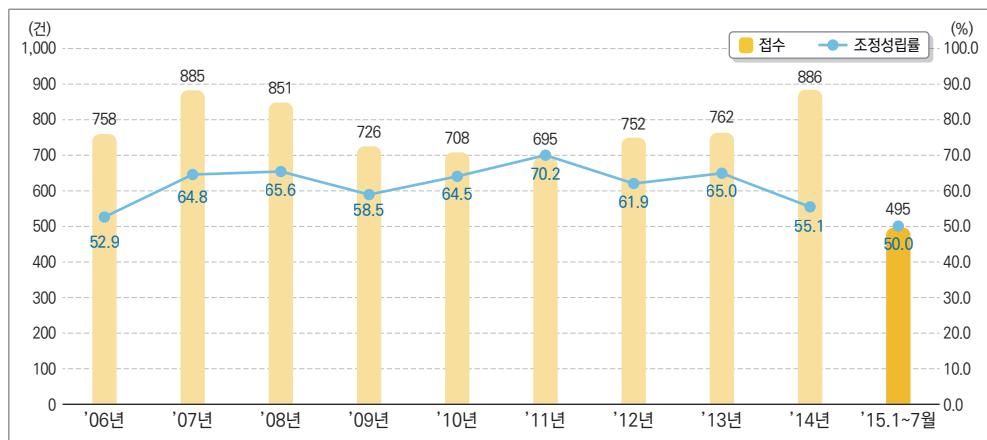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3. 노사분쟁 사건

● 조정사건

조정사건 접수 현황은 '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12년부터 상승하는 모습이며, 조정성립률은 '11년 70.2%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전년 이월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06년	758	739	340	106	234	303	97	206	22	64	10	19	52.9	16						
'07년	885	871	500	207	293	272	120	152	37	61	1	14	64.8	19						
'08년	851	839	480	262	218	252	110	142	55	51	1	12	65.6	14						
'09년	726	713	357	169	188	253	99	154	36	67	0	13	58.5	12						
'10년	708	694	381	181	200	210	99	111	53	50	0	14	64.5	13						
'11년	695	681	405	153	252	172	68	104	52	52	0	14	70.2	14						
'12년	752	741	394	179	215	243	92	151	38	66	0	11	61.9	14						
'13년	762	739	414	252	162	223	71	152	34	68	0	23	65.0	11						
'14년	886	864	401	169	232	327	43	284	45	91	0	22	55.1	23						
'15.1~7	495	466	189	78	111	189	27	162	23	65	0	29	50.0	2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전년 이월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06년	74	72	16	5	11	53	12	41	2	1	0	2	23.2	4
'07년	70	70	29	8	21	33	6	27	5	3	0	0	46.8	2
'08년	65	64	21	7	14	34	5	29	7	2	0	1	38.2	0
'09년	61	59	16	5	11	30	7	23	10	3	0	2	34.8	1
'10년	60	58	19	4	15	26	8	18	8	5	0	2	42.2	2
'11년	62	61	24	11	13	26	7	19	6	5	0	1	48	2
'12년	64	63	28	9	19	30	16	14	2	3	0	1	48.3	1
'13년	75	70	27	11	16	38	21	17	2	3	0	5	41.5	1
'14년	107	103	27	8	19	62	10	52	3	11	0	4	30.3	5
'15.1~7	58	56	11	1	10	34	5	29	3	8	0	2	24.4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전년 이월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06년	684	667	324	101	223	250	85	165	20	63	10	17	56.4	12
'07년	815	801	471	199	272	239	114	125	32	58	1	14	66.3	17
'08년	786	775	459	255	204	218	105	113	48	49	1	11	67.8	14
'09년	665	654	341	164	177	223	92	131	26	64	0	11	60.5	11
'10년	648	636	362	177	185	184	91	93	45	45	0	12	66.3	11
'11년	633	620	381	142	239	146	61	85	46	47	0	13	72.3	12
'12년	688	678	366	170	196	213	76	137	36	63	0	10	63.2	13
'13년	687	669	387	241	146	185	50	135	32	65	0	18	67.7	10
'14년	779	761	374	161	213	265	33	232	42	80	0	18	58.5	18
'15.1~7	437	410	178	77	101	155	22	133	20	57	0	27	53.4	1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심판사건

심판사건은 '11년 및 '12년에 감소한 적이 있으나,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15년 1~7월 접수 건수는 9,221건이며, 처리내역으로는 취하 2,916건, 화해 1,930건 이고, 판정에서 인정된 것은 946건, 기각·각하 1,673건이다.

〈심판사건〉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이월포함)	처리내역						진행
		합계	인정	기각	각하	화해	취하	
'06년	8,631	7,378	1,306	2,186	431	250	3,205	1,253
'07년	9,389	8,028	1,279	1,812	357	1,220	3,360	1,361
'08년	11,158	10,004	1,334	1,953	504	2,286	3,927	1,154
'09년	11,935	10,714	1,256	1,995	667	2,724	4,072	1,221
'10년	13,591	11,667	1,245	2,605	1,112	2,915	3,790	1,924
'11년	12,681	11,418	1,116	2,601	620	3,643	3,438	1,263
'12년	12,922	11,352	1,249	1,993	614	3,907	3,589	1,570
'13년	14,323	12,769	1,350	1,989	757	4,277	4,396	1,554
'14년	14,631	13,068	1,427	2,130	756	3,570	5,185	1,563
'15.1~7월	9,221	7,465	946	1,175	498	1,930	2,916	1,75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접수건수 (이월포함)	처리내역						진행
		합계	인정	기각	각하	화해	취하	
'06년	2,297	1,682	319	738	108	12	505	615
'07년	1,986	1,488	394	675	96	29	294	498
'08년	1,697	1,502	374	627	124	57	320	195
'09년	1,559	1,323	295	540	128	67	293	236
'10년	2,313	1,351	241	613	104	63	330	962
'11년	2,320	2,073	346	1,192	109	56	370	247
'12년	1,901	1,304	306	542	126	50	280	597
'13년	2,052	1,707	444	669	181	94	319	345
'14년	1,969	1,562	390	571	128	110	363	407
'15.1~7월	1,377	921	283	304	94	59	181	45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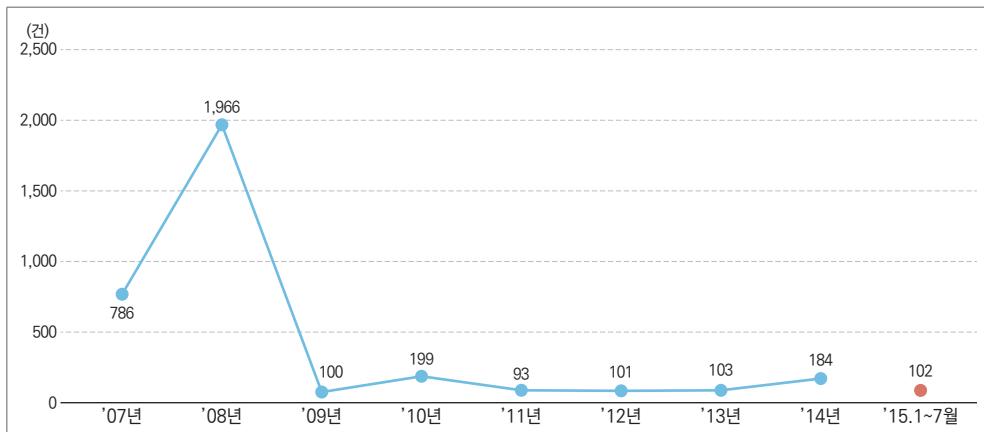
	접수건수 (이월포함)	처리내역						진행
		합계	인정	기각	각하	화해	취하	
'06년	6,334	5,696	987	1,448	323	238	2,700	638
'07년	7,403	6,540	885	1,137	261	1,191	3,066	863
'08년	9,461	8,502	960	1,326	380	2,229	3,607	959
'09년	10,376	9,391	961	1,455	539	2,657	3,779	985
'10년	11,278	10,316	1,004	1,992	1,008	2,852	3,460	962
'11년	10,361	9,345	770	1,409	511	3,587	3,068	1,016
'12년	11,021	10,048	943	1,451	488	3,857	3,309	973
'13년	12,271	11,062	906	1,320	576	4,183	4,077	1,209
'14년	12,662	11,506	1,037	1,559	628	3,460	4,822	1,156
'15.1~7월	7,844	6,544	663	871	404	1,871	2,735	1,3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차별시정사건

차별시정사건은 '07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시작되어 '08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 '11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다. '15.1~7월의 경우 전체 접수 건수는 102건이며, 이 중 취하 22건, 조정 4건, 판정 35건이며, 판정 35건 중 인정 26건, 기각·각하 9건이다.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판정				취하	조정	종재		
		소계	인정	기각	각하					
'07년	786	145	71	55	15	1	73	1	0	641
'08년	1,966	1,948	699	41	577	81	772	477	0	18
'09년	100	95	33	18	5	10	51	11	0	5
'10년	199	152	105	24	26	55	26	19	2	47
'11년	93	88	53	41	8	4	15	20	0	5
'12년	101	78	34	7	13	14	27	17	0	23
'13년	103	99	42	23	13	6	37	20	0	4
'14년	184	161	49	6	39	4	101	11	0	23
'15.1~7월	102	61	35	26	7	2	22	4	0	4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판정				취하	조정	중재		
		소계	인정	기각	각하					
'07년	26	-	-	-	-	-	-	0	26	
'08년	55	51	45	18	20	7	4	0	4	
'09년	16	15	12	8	0	4	3	0	0	
'10년	27	21	21	12	7	2	0	0	6	
'11년	12	11	7	2	4	1	4	0	1	
'12년	15	13	13	2	7	4	0	0	2	
'13년	17	15	13	9	1	3	2	0	2	
'14년	15	11	6	2	4	0	1	4	0	
'15.1~7월	18	15	15	13	2	0	0	0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판정				취하	조정	중재		
		소계	인정	기각	각하					
'07년	760	145	71	55	15	1	73	1	0	615
'08년	1911	1,897	654	23	557	74	768	475	0	14
'09년	84	80	21	10	5	6	48	11	0	4
'10년	172	131	84	12	19	53	26	19	2	41
'11년	81	77	46	39	4	3	11	20	0	4
'12년	86	65	21	5	6	10	27	17	0	21
'13년	86	84	29	14	12	3	35	20	0	2
'14년	169	150	43	4	35	4	100	7	0	19
'15.1~7월	84	46	20	13	5	2	22	4	0	3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소송사건

'14년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384건이며, 소송수행이 완료된 것은 381건이다. 소송이 완료된 것 중 승소 및 취하는 322건으로 재심유지율은 84.5%이다.

〈소송제기 및 재심유지율〉



	소송제기	소송수행결과(종결)				재심유지율
		합계	승소	패소	취하	
'06년	396	319	161	65	93	79.6
'07년	499	422	236	68	118	83.9
'08년	429	431	250	65	116	84.9
'09년	367	425	262	69	94	83.8
'10년	321	382	262	57	63	85.1
'11년	457	384	274	46	64	88.0
'12년	352	340	229	58	53	82.9
'13년	443	340	234	41	65	87.9
'14년	384	381	246	59	76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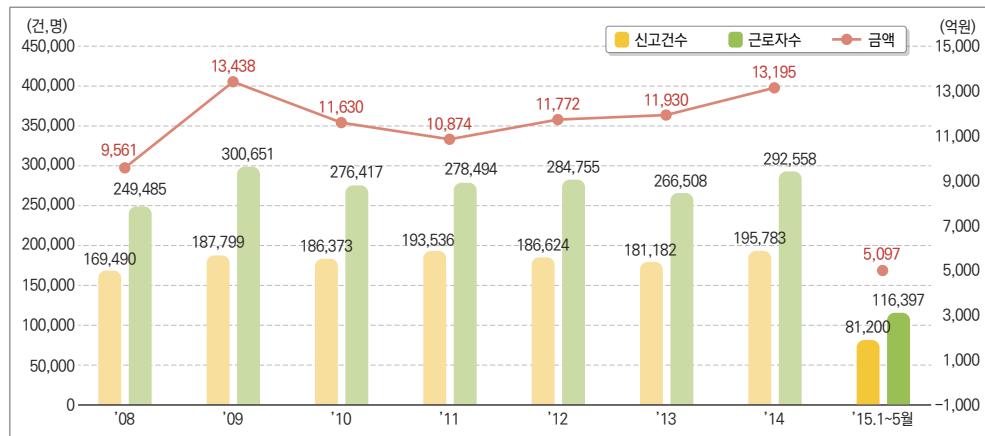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4. 근로감독 현황

체불임금

매년 체불사건 신고건수는 대략 18~19만건, 28~29만명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4년에는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체불금액은 '11년 1조 874억원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체불임금〉



(단위: 건, %)

	신고건수	처리				처리 중	
		합계	지도 해결	사법 처리			
'08	169,490	162,602	109,746	67.5%	52,856	32.5%	6,888
'09	187,799	181,675	118,670	65.3%	63,005	34.7%	6,124
'10	186,373	179,503	121,673	67.8%	57,830	32.2%	6,870
'11	193,536	187,415	135,366	72.2%	52,049	27.8%	6,121
'12	186,624	179,278	121,664	67.9%	57,614	32.1%	7,346
'13	181,182	175,041	114,064	65.2%	60,977	34.8%	6,141
'14	195,783	190,077	131,052	68.9%	59,025	31.1%	5,706
'15.1~5월	81,200	74,929	53,168	71.0%	21,761	29.0%	6,271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단위: 명, %)

	근로자수	처리				처리 중	
		합계	지도 해결	사법 처리			
'08	249,485	239,651	155,391	64.8%	84,260	35.2%	9,834
'09	300,651	291,929	183,987	63.0%	107,942	37.0%	8,722
'10	276,417	266,322	174,353	65.5%	91,969	34.5%	10,095
'11	278,494	268,683	188,098	70.0%	80,585	30.0%	9,811
'12	284,755	273,423	172,003	62.9%	101,420	37.1%	11,332
'13	266,508	257,842	157,644	61.1%	100,198	38.9%	8,666
'14	292,558	283,824	176,209	62.1%	107,615	37.9%	8,734
'15.1~5월	116,397	106,211	66,882	63.0%	39,329	37.0%	10,186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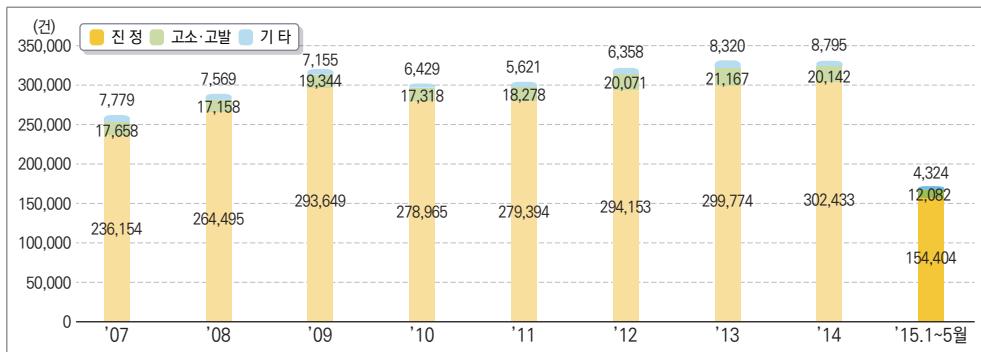
	금액	처리				처리 중	
		합계	지도 해결	사법 처리			
'08	9,561	9,116	5,171	56.7%	3,945	43.3%	445
'09	13,438	13,027	7,784	59.8%	5,243	40.2%	411
'10	11,630	11,127	6,037	54.3%	5,090	45.7%	503
'11	10,874	10,300	6,105	59.3%	4,195	40.7%	574
'12	11,772	11,124	6,252	56.2%	4,873	43.8%	647
'13	11,930	11,391	5,565	48.9%	5,826	51.1%	539
'14	13,195	12,716	6,452	50.7%	6,264	49.3%	479
'15.1~5월	5,097	4,490	2,240	49.9%	2,251	50.1%	607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신고사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수는 '10년, '11년에 소폭 감소한 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진정사건의 비중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고, 고소·고발건은 6~7% 수준이다.

〈신고사건〉



(단위: 건)

	합계	진정		고소·고발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7	261,591	236,154	90.3%	17,658	6.8%	7,779	3.0%
2008	289,222	264,495	91.5%	17,158	5.9%	7,569	2.6%
2009	320,148	293,649	91.7%	19,344	6.0%	7,155	2.2%
2010	302,712	278,965	92.2%	17,318	5.7%	6,429	2.1%
2011	303,293	279,394	92.1%	18,278	6.0%	5,621	1.9%
2012	320,582	294,153	91.8%	20,071	6.3%	6,358	2.0%
2013	329,261	299,774	91.0%	21,167	6.4%	8,320	2.6%
2014	331,370	302,433	91.3%	20,142	6.1%	8,795	2.7%
2015.1~5	170,810	154,404	90.4%	12,082	7.1%	4,324	2.5%

자료 1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기타: 기소중지 재기사건, 사업장감독인지사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등

(단위: 건, %)

	처리	행정 종결		사법 종결	
		소계	지도해결	소계	기소
2007	263,084	172,170	105,712	90,914	55,792
2008	278,771	190,690	115,723	88,081	53,444
2009	326,116	226,328	131,188	99,767	64,995
2010	303,770	214,431	126,793	89,312	57,523
2011	305,657	224,327	138,873	81,330	51,740
2012	323,133	236,381	127,060	86,751	56,503
2013	334,007	244,844	126,979	89,163	58,933
2014	336,308	248,680	147,017	87,628	58,805
2015.1~5	137,964	103,508	62,048	34,456	23,374

자료 1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지도해결 = 권리구제 + 반의사불벌(행정종결), '사법종결'은 '불기소(공소권없음 – 반의사불벌)'의견 송치 포함

● 체당금

체당금 대상 사업체, 근로자, 금액 등은 꾸준히 증가하여 '09년에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체당금〉



(단위: 개소, 명, 억원)

연도	사업체	근로자	금액
'03	1,291	34,774	1,220
'04	1,807	43,362	1,591
'05	1,843	42,588	1,602
'06	1,957	44,765	1,608
'07	2,003	41,502	1,499
'08	2,153	44,121	1,881
'09	3,117	66,073	3,080
'10	2,888	58,718	2,639
'11	2,541	50,230	2,355
'12	2,514	48,650	2,323
'13	2,665	44,741	2,239
'14	2,815	50,152	2,632
'15.1~5	1,172	18,558	1,037

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2010년도 9월 통계부터 신규사업장 기준이 '사업장 관리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연도별 자료(사업장 수 등) 일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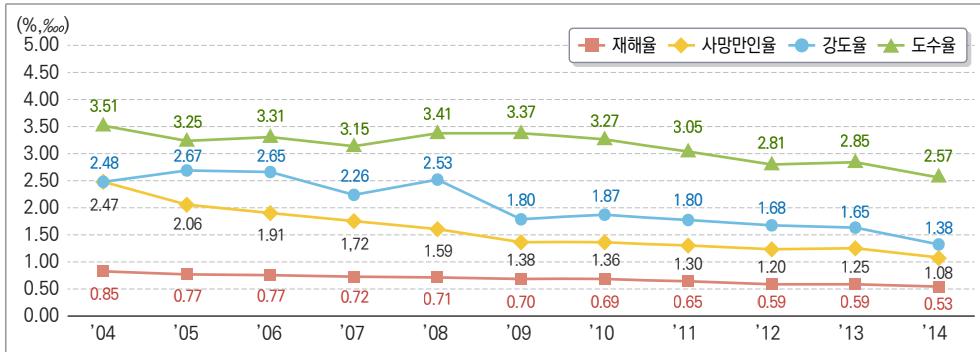
VIII. 산업안전

1. 산업재해

● 산업재해 추이

'14년의 경우 재해자수는 90,909명이며 재해율은 0.53%, 이 중 사망자는 1,850명, 사망만인율은 1.08‰이다. 재해율, 사망만인율, 강도율과 도수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산업재해〉



(단위: 명, %, ‰)

	대상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만인율	부상자	강도율	도수율
'04	10,473 (100.0)	88,874 (100.0)	0.85	2,586 (100.0)	2.47	44,255 (100.0)	2.48	3.51
'05	11,059 (105.6)	85,411 (96.1)	0.77	2,282 (88.2)	2.06	39,545 (89.4)	2.67	3.25
'06	11,689 (111.6)	89,910 (101.2)	0.77	2,238 (86.5)	1.91	39,746 (89.8)	2.65	3.31
'07	12,529 (119.6)	90,147 (101.4)	0.72	2,159 (83.5)	1.72	41,499 (93.8)	2.26	3.15
'08	13,490 (128.8)	95,806 (107.8)	0.71	2,146 (83.0)	1.59	47,741 (107.9)	2.53	3.41
'09	13,885 (132.6)	97,821 (110.1)	0.70	1,916 (74.1)	1.38	52,426 (118.5)	1.80	3.37
'10	14,199 (135.6)	98,645 (111.0)	0.69	1,931 (74.7)	1.36	52,019 (117.5)	1.87	3.27
'11	14,362 (137.1)	93,292 (105.0)	0.65	1,860 (71.9)	1.30	47,694 (107.8)	1.80	3.05
'12	15,548 (148.5)	92,256 (103.8)	0.59	1,864 (72.1)	1.20	46,026 (104.0)	1.68	2.81
'13	15,449 (147.5)	91,824 (103.3)	0.59	1,929 (74.6)	1.25	47,313 (106.9)	1.65	2.85
'14	17,062 (162.9)	90,909 (102.3)	0.53	1,850 (71.5)	1.08	47,552 (107.5)	1.38	2.57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주) 재해율(%):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X100,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X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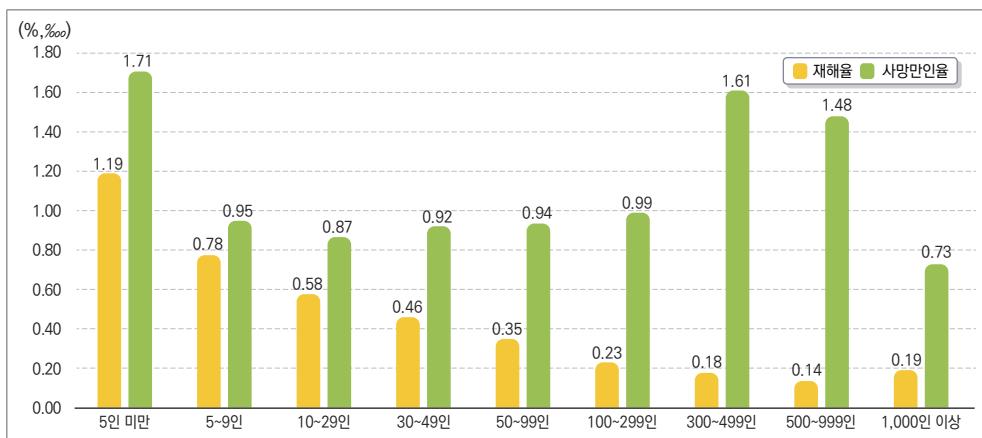
도수율: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X1,000,000]

강도율: 재해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X1,000]

● 규모별 산업재해

'14년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 재해율(율) 및 사망(만인율)을 보면, 모두 규모가 작을수록 발생 건수도 많고 발생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별 산업재해〉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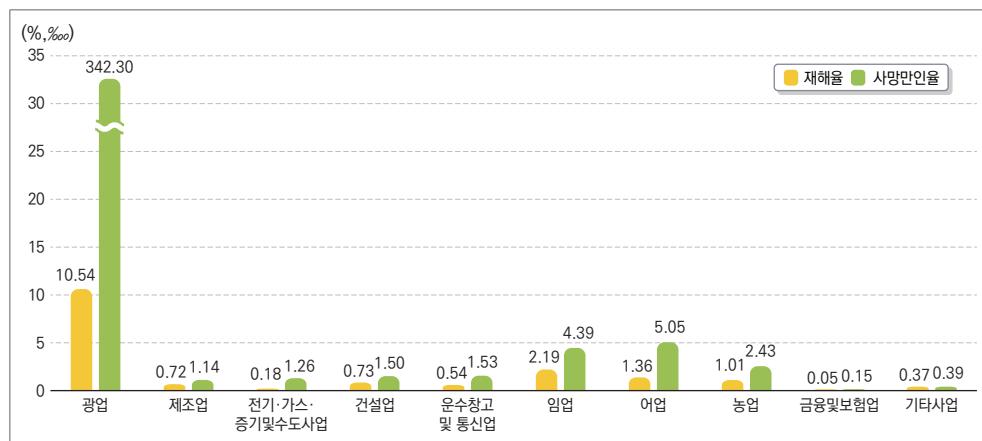
	대상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총 계	2,187,391	17,062,308	90,909 (100.0)	0.53	1,850 (100.0)	1.08
300인 미만	2,183,475	13,971,987	85,623 (94.2)	0.61	1,491 (80.6)	1.07
5인미만	1,569,218	2,472,723	29,439 (32.4)	1.19	422 (22.8)	1.71
5~9인	303,084	1,985,702	15,576 (17.1)	0.78	189 (10.2)	0.95
10~29인	224,816	3,602,839	20,966 (23.1)	0.58	315 (17.0)	0.87
30~49인	44,124	1,656,507	7,618 (8.4)	0.46	152 (8.2)	0.92
50~99인	27,122	1,849,030	6,438 (7.1)	0.35	174 (9.4)	0.94
100~299인	15,111	2,405,186	5,586 (6.1)	0.23	239 (12.9)	0.99
300인 이상	3,916	3,090,321	5,286 (5.8)	0.17	359 (19.4)	1.16
300~499인	2,155	812,440	1,422 (1.6)	0.18	131 (7.1)	1.61
500~999인	1,209	822,317	1,132 (1.2)	0.14	122 (6.6)	1.48
1,000인 이상	552	1,455,564	2,732 (3.0)	0.19	106 (5.7)	0.73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업종별 산업재해

‘14년의 경우 광업의 재해율이 10.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임업(2.19%), 어업(1.36%), 농업(1.01%) 순이며, 건설업은 0.73%, 제조업은 0.72%이다. 사망만인율도 광업이 월등히 높고, 그 다음이 어업, 임업 순이다.

〈업종별 산업재해〉



(단위: 명, %, %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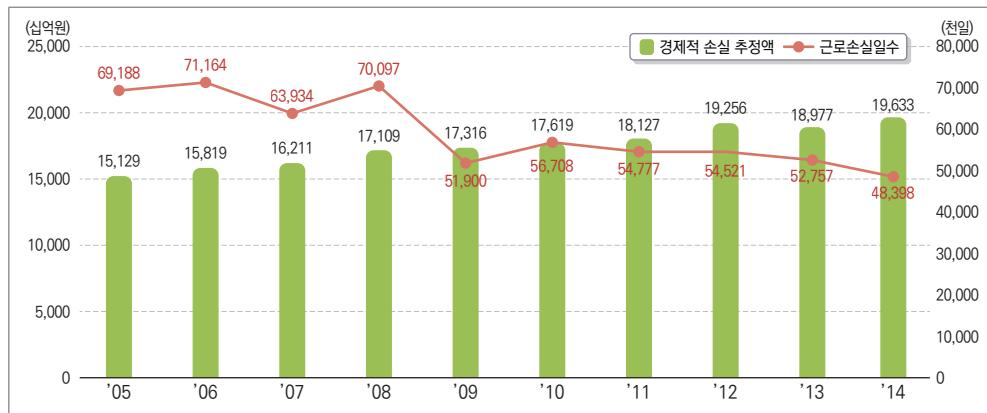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총계	2,187,391	17,062,308	90,909 (100.0)	0.53	1,850 (100.0)	1.08
광업	1,107	11,715	1,235 (1.4)	10.54	401 (21.7)	342.30
제조업	342,700	3,967,908	28,649 (31.5)	0.72	453 (24.5)	1.1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817	55,445	98 (0.1)	0.18	7 (0.4)	1.26
건설업	329,061	3,249,687	23,669 (26.0)	0.73	486 (26.3)	1.50
운수창고 및 통신업	60,394	776,341	4,188 (4.6)	0.54	119 (6.4)	1.53
임업	11,674	77,486	1,696 (1.9)	2.19	34 (1.8)	4.39
어업	1,468	5,943	81 (0.1)	1.36	3 (0.2)	5.05
농업	10,871	61,681	621 (0.7)	1.01	15 (0.8)	2.43
금융및보험업	38,596	681,236	337 (0.4)	0.05	10 (0.5)	0.15
기타사업	1,389,703	8,174,866	30,335 (33.4)	0.37	322 (17.4)	0.39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경제적 손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3년의 경우 약 19조원인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3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근로손실일수는 '08년 이후 하향 추세이며, '13년에는 52,757,034일 이었다.

〈경제적 손실액 및 손실일수〉



(단위: 백만원, 일)

	경제적 손실액			근로 손실일수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05	15,128,855	3,025,771	12,103,084	69,188,477
'06	15,818,845	3,163,769	12,655,076	71,163,565
'07	16,211,380	3,242,276	12,969,104	63,934,071
'08	17,109,425	3,421,885	13,687,540	70,097,376
'09	17,315,705	3,463,141	13,852,564	51,900,074
'10	17,618,670	3,523,734	14,094,936	56,707,886
'11	18,126,985	3,625,397	14,501,588	54,776,539
'12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13	18,977,170	3,795,434	15,181,736	52,757,034
'14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주)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간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이외에 재해로 인한 기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 재해로 인해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 총액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못한 일수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단위: 명, 개소, %,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장수	1,738,196	1,825,296	1,977,057	2,187,391
(전년대비)	(8.1)	(5.0)	(8.3)	(10.64)
근로자수	14,362,372	15,548,423	15,449,228	17,062,308
(전년대비)	(1.2)	(8.3)	(-0.6)	(10.44)
재해자수	93,292	92,256	91,824	90,909
(전년대비)	(-5.4)	(-1.1)	(-0.5)	(-1.0)
사망자수	1,860	1,864	1,929	1,850
(전년대비)	(-3.7)	(0.2)	(3.5)	(-4.1)
부상자수	84,662	83,349	82,803	81,955
(전년대비)	(-5.4)	(-1.6)	(-0.7)	(-1.0)
업무상질병요양자수	6,516	6,742	6,788	6,820
(전년대비)	(-6.7)	(3.5)	(0.7)	(0.47)
재해율(%)	0.65	0.59	0.59	0.53
(전년대비, %p)	(-0.04)	(-0.06)	(0.00)	(-0.06)
사망만인율(‰)	1.30	1.20	1.25	1.08
(전년대비, ‰p)	(-0.06)	(-0.10)	(0.05)	(-0.17)
경제적 손실액	18조 1,270억원	19조 2,564억원	18조 9,772억원	19조 6,328억원
(전년대비)	(2.9)	(6.2)	(-1.4)	(3.5)
근로손실 일수(천일)	54,777	54,521	52,757	48,398
(전년대비)	(-3.4)	(-0.5)	(-3.2)	(-8.3)
도수율	3.05	2.81	2.85	2.57
(전년대비, %p)	(-0.22)	(-0.24)	(0.04)	(-0.28)
강도율	1.80	1.68	1.65	1.38
(전년대비, %p)	(-0.07)	(-0.12)	(-0.03)	(-0.27)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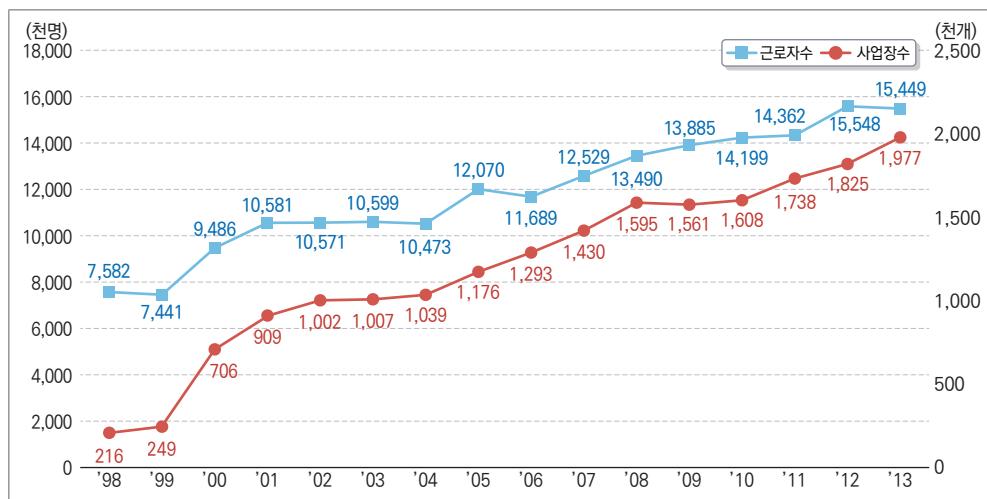
주) 사망자수는 사고사망자수와 재해사망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3. 산재보험

●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근로자수는 15,449천 명, 사업장은 1,977천개소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



(단위: 천명, 천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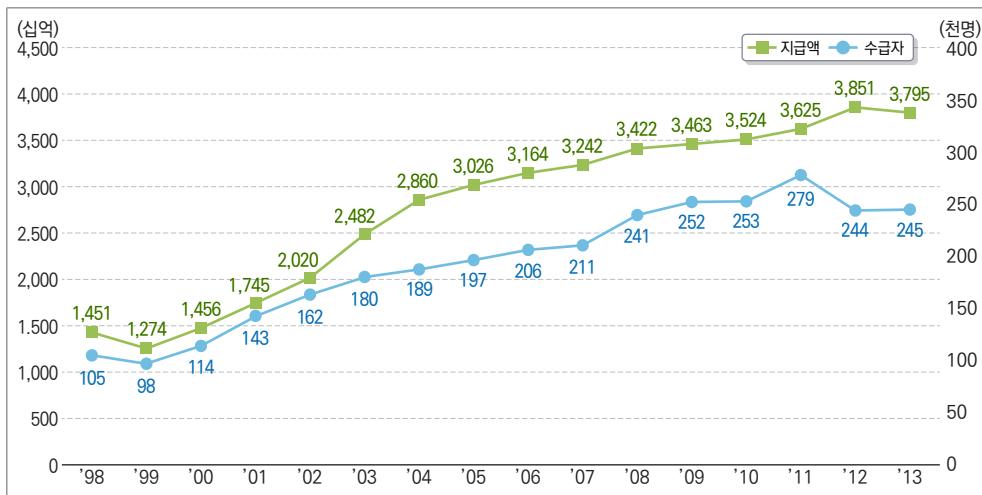
	'98	'99	'00	'01	'02	'03	'04	'05
근로자수	7,582	7,441	9,486	10,581	10,571	10,599	10,473	12,070
사업장수	216	249	706	909	1,002	1,007	1,039	1,176
	'06	'07	'08	'09	'10	'11	'12	'13
근로자수	11,689	12,529	13,490	13,885	14,199	14,362	15,548	15,449
사업장수	1,293	1,430	1,595	1,561	1,608	1,738	1,825	1,977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연도말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임

● 보험급여 지급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액은 '12년을 정점으로 '13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단위: 천명, 십억)

	'98	'99	'00	'01	'02	'03	'04	'05
수급자	105	98	114	143	162	180	189	197
지급건	845	781	983	1,506	1,732	2,008	2,221	2,261
지급액	1,451	1,274	1,456	1,745	2,020	2,482	2,860	3,026
	'06	'07	'08	'09	'10	'11	'12	'13
수급자	206	211	241	252	253	279	244	245
지급건	2,329	2,326	2,419	2,515	2,556	2,962	2,930	3,033
지급액	3,164	3,242	3,422	3,463	3,524	3,625	3,851	3,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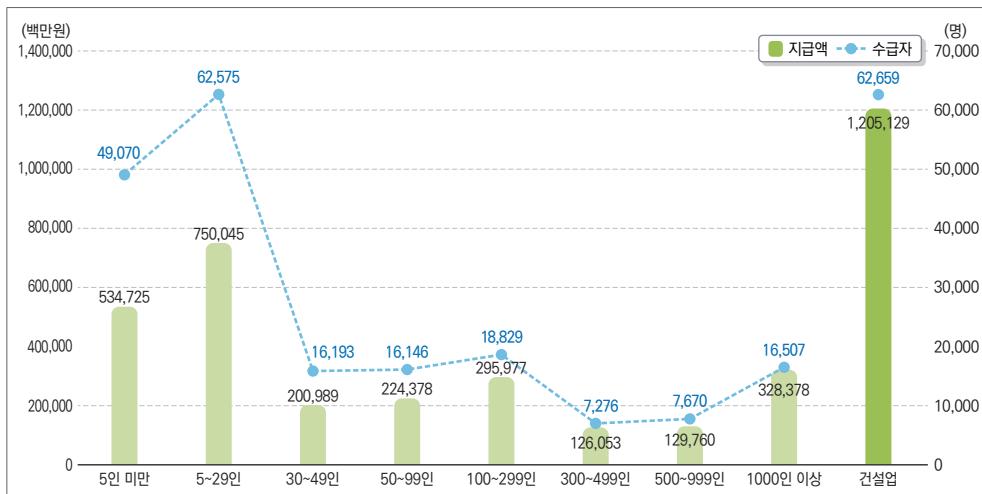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연도말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입

● 규모별 보험급여 지급

사업체 규모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는 규모가 적을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13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1,272천개, 근로자수는 5~29인이 4,43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급여 수급자, 수급건수, 지급액은 모두 5~29인 사업장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수급자는 63천명, 수급건수는 698천건, 지급액은 750,045백만원이었다.

〈규모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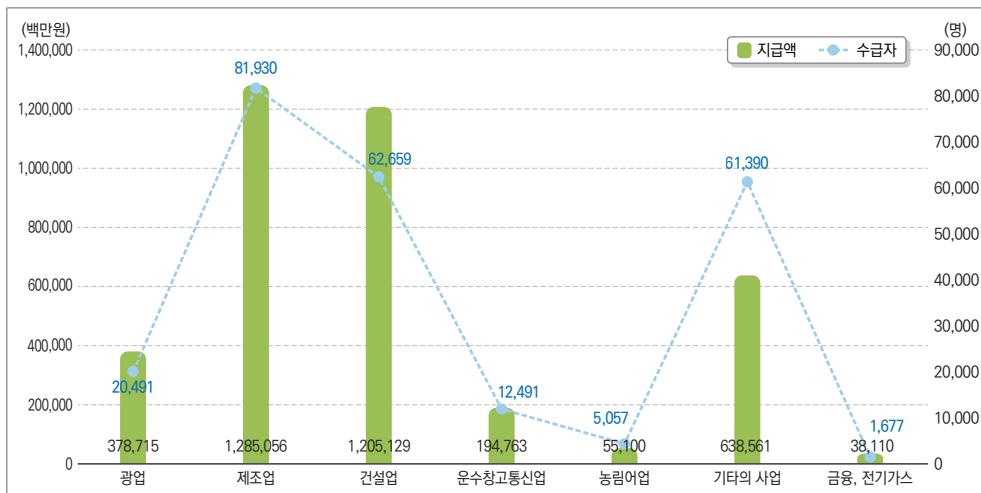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	지급액
합계	1,977,057(8.3)	15,449,228(-0.6)	245,399(0.6)	3,033,432(3.5)	3,795,434(-1.5)
5인 미만	1,272,254(11.7)	1,989,844(6.0)	49,070(-0.7)	516,847(5.0)	534,725(0.4)
5~29인	419,155(4.6)	4,436,311(1.7)	62,575(1.0)	697,591(5.2)	750,045(2.1)
30~49인	34,822(1.6)	1,305,596(1.4)	16,193(0.4)	176,039(3.6)	200,989(-0.1)
50~99인	21,142(0.9)	1,438,238(0.6)	16,146(1.5)	183,972(4.3)	224,378(2.6)
100~299인	12,283(0.1)	2,202,904(0.2)	18,829(0.8)	230,737(3.1)	295,977(0.9)
300~499인	1,285(-1.8)	481,763(-2.0)	7,276(2.6)	88,308(3.8)	126,053(4.3)
500~999인	697(-2.9)	471,811(-3.7)	7,670(-7.2)	93,611(8.7)	129,760(3.3)
1,000인 이상	384(1.1)	1,037,692(-15.4)	16,507(-1.2)	226,448(0.9)	328,378(-3.0)
건설업	216,320(-0.4)	2,566,832(-7.9)	62,659(0.4)	819,879(1.3)	1,205,129(-6.3)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전년대비 증감률

●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

'13년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수, 지급건, 지급액 모두 가장 많았으나, 지급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농업이 15.5%로 가장 높고 지급액도 10.5%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	지급액
합계	1,977,057(8.3)	15,449,228(-0.6)	245,399(0.6)	3,033,432(3.5)	3,795,434(-1.5)
금융·보험업	39,447(1.3)	652,452(-1.0)	1,272(1.9)	15,585(9.0)	25,958(-1.2)
광업	1,090(1.9)	11,647(-11.2)	20,491(-0.7)	267,333(-1.0)	378,715(2.8)
제조업	328,073(6.2)	3,776,613(-0.1)	81,930(-1.8)	1,038,354(2.0)	1,285,056(-1.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763(7.7)	61,143(8.3)	405(-1.0)	6,125(14.6)	12,152(5.0)
건설업	216,320(-0.4)	2,566,832(-7.9)	62,659(0.4)	819,879(1.3)	1,205,129(-6.3)
운수·창고·통신업	57,965(6.6)	774,041(-4.5)	12,491(2.0)	156,983(4.9)	194,763(2.1)
임업	11,373(-2.9)	74,389(0.9)	3,606(-1.1)	39,848(0.7)	39,448(-1.2)
어업	1,345(13.1)	4,342(5.5)	188(2.7)	2,160(-2.7)	2,292(13.2)
농업	8,841(19.5)	50,634(8.9)	1,263(6.9)	14,347(15.5)	13,360(10.5)
기타의 사업	1,310,840(10.8)	7,477,135(2.2)	61,390(4.3)	672,818(10.4)	638,561(4.4)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전년대비 증감률